

# 海軍力이 러일戰爭에 미친 影響

- 한반도 안보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Naval Power  
upon the Russo-Japanese War*

指導教授 金 吉 洙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運經營學科

柳 三 男

本 論文을 柳三男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도장받은 것으로 대체할 것)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2007年 8月 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 - 목 차 -

Abstract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및 범위 .....	4
1. 연구의 방법 .....	4
2. 연구의 범위 .....	5

## 제2장 전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7
1. 전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 .....	7
2. 러일전쟁에 대한 선행 연구 .....	9
제2절 전쟁분석 이론 검토 .....	11
1. 전쟁분석 이론과 왈츠의 3 Images .....	11
2. 해군력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5
제3절 분석의 틀 .....	37

## 제3장 전쟁의 원인과 경과

제1절 전쟁의 배경과 원인 .....	40
제2절 해전경과 .....	43

1. 주도권 확보 : 기습공격 .....	43
2. 제해권 확보 : 함대봉쇄 .....	45
3. 결정적 승리 : 함대결전 .....	49

## 제4장 해군력이 러일전쟁 승패에 미친 영향

제1절 개인적 수준 .....	53
1. 전쟁지도부 .....	53
2. 전장지휘관 .....	63
3. 국민의 의지 .....	69
제2절 국가적 수준 .....	70
1. 해양전략의 목표 .....	70
2. 해양통제의 방법 .....	75
3. 해양통제의 수단 .....	86
제3절 국제적 수준 .....	90
1. 영일동맹과 세력전이 .....	91
2. 삼국간섭의 와해와 러프동맹의 한계 .....	107

## 제5장 러일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

제1절 동북아 역학 구도와 한반도 안보 .....	112
1. 대북억제능력 확보와 한미동맹 .....	114
2. 대주변국 협력과 한미동맹 .....	118
3. 동맹을 고려한 해군력 건설 .....	125
제2절 해군전략의 현대적 유용성 .....	128

1. 해양통제 전략 .....	129
2. 군사력투사 전략 .....	134
3. 한국 해군전략의 선택 .....	137
제6장 결 론 .....	139
참고문헌 .....	147

- 표 목 차 -

<표 2-1> 제해권 개념의 변천 .....	27
<표 2-2> 분석의 틀 .....	37
<표 3-1>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 비교 .....	50
<표 4-1> 러일전쟁시 러시아가 적용한 해군전략의 변화 .....	80
<표 4-2> 블라디보스톡 전대 세력의 제원 .....	83
<표 4-3>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출동상황 및 전과 .....	85
<표 4-4> 1904년 1월의 일본과 러시아 함대의 상대전력 비교 .....	88
<표 4-5> 영일동맹 이전의 각국 국력 비교 .....	93
<표 4-6> 일본의 무역현황 .....	100
<표 4-7> 일본, 러시아의 외채 현황(실수령액 기준) .....	103
<표 4-8> 1901년 이후 진수된 각국 함정의 수 .....	106
<표 5-1> 동북아 6개국 미국대비 국력 지수, 2006·2020 .....	119

<표 5-2>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 해군력 현황 ..... 126  
<표 5-3> 전력수준 분류 ..... 127

- 그림 목 차 -

<그림 4-1> 동맹 해군력 지수의 변화(러일전쟁) ..... 107  
<그림 5-1> 해양통제수행과 해양통제 거부와의 상관관계도 ..... 132

*Abstract*

*The Influence of Naval Power  
upon the Russo-Japanese War*

Yu, Sam Nam

Department of Shipping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Great Britain parted from its splendid isolation policy and extended friendly gesture to Japan which was eager to eliminate Russian influence from Korea and Manchuria.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apan had common interests with Great Britain in the Far East in preventing Russia from expanding southward. Russian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 had fatally threatened the interests of both Great Britain and Japan in terms of Manchuria and Korea. As the result of such a situation, Japan approached Britain and signed an alliance with Great Britain in 1902. With the success of the defensive alliance with Great Britain, Japan made France as well as Germany declare a neutral position from Russia, which was one of the Tripartite. Anglo-Japanese alliance thus

made a strategic environment favorable to Japan and encouraged Japan to attack Russia. During Russo-Japanese war, Great Britain gave many aides to Japan as an al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ole of naval power upon the Russo-Japanese War which was begun by surprise attacks at sea and ended by naval battles.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Russo-Japanese War, process of the naval battles and elements of victory of naval battles. The time period of the research is from the year of Tripartite(1895) when Russia and Japan began to collide directly to the year of 1905 when the Russian Baltic Fleets were destroyed completely at the battle of Tsushima.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the specialized books, documents, research papers on the Russo-Japanese war. In order to analyze the roles of naval powers in the war, Kenneth Waltz's 3 images concept was adopted, which consists of individual level, national leve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research consists of 6 chapters: chapter 1 is introduction; chapter 2 is analytical frame work; chapter 3 analyses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war, the process of the war and the struggle for initiative on the naval battle to have the command of the sea; chapter 4 explains how the naval powers influenced the war; chapter 5 introduces lessons from the war; chapter 6, the last chapter, presents strategic options and directions for contemporary Korea.

The results induced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individual level, as Von Clausewitz argued, consists of 3 elements called Trinity,



which is ① government, ② military commander and his troop, ③ people's passion. Russia could not achieve Trinity while Japan succeeded. The Russo-Japanese war was a totally fallible war for Russia because Baltic fleet was sent to wrong places, let alone wrong time. 'Wrong place' means that the Russian fleet was remote from Vladivostok squadron and 'wrong time' means that Baltic fleet was too late to rescue Russian fleet in port Arthur. Therefore it was natural that Russia was defeated.

From the analysis of national level, which means naval powers in this study, Japan used her navy aggressively for achieving the command of the sea through decisive battles at sea while Russia insisted on 'fleet-in-being' strategy. The strategy confined her fleet in fortress in spite of Russia's superior naval power, which might be used to interdict sea lanes of Japanese communication and l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Manchuria.

From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level which means naval diplomacy. Japan could defeat Russian fleets one by one through Anglo-Japanese alliance which provided Japan with favorable strategic environment even though Japan had inferior naval power. Moreover, Japan could pre-plan the war and make a surprise attack as well as continued fighting thereafter with the help of Anglo-Japanese alliance. Thus, Japan could achieve her victory in the war. Great Britain not only supported positively the enhancement of the Japanese naval forces which was a critical element in defeating Russian Baltic Fleets in the battle of Tsushima, but also stood strongly by the side of Japan through the war. In diplomatic field, Great Britain did not allow the Russian Baltic Fleets passing through Suez Canal

for Asia, and did not supply the required war materials as well as coals. Without the Anglo-Japanese alliance, Japan could not have had battleships nor have financial support for the war, without which Japan might not have thought of the war and surprise attack to Russian navy at Incheon Korea as well as Port Arthur.

The best of the best diplomatic policy is to have and keep an alliance with super ultra power while the worst of the worst diplomatic policy is to impair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super ultra power. Korea is in a military alliance with USA, which is the only ultra super power. The ROK-US alliance is thought to be the prop of war restraint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only means to prevent military intervention from our neighbor countries. In this context, keeping a stable ROK-US alliance is assumed to be the utmost strategy favorable to Korea. The alliance is desirable in order not to give North Korea and our neighboring countries any misperception, which might be the result of the weakening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U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러일전쟁은 20세기 최대의 비극인 양차 세계대전의 서막과도 같은 전쟁으로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었으며, 19세기식 마지막 제한전쟁이었고,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펼쳐진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전쟁을 시작할 당시 일본의 병력은 30만이었으나 1905년에는 90만으로 증원되었으며 러시아는 처음 10만명의 병력으로 시작하였으나 1905년에는 1백 30만명의 병력을 투입했다<sup>1)</sup>. 그 결과 일본은 장기간의 뒤편 포위공격에서 승리는 했지만 5만 8천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러시아는 3만 1천명의 병력을 잃었다. 이후 지상전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대규모 전투였던 묵덴전투에서는 러시아가 8만 5천명, 일본이 7만명의 병력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적으로 본다면 승자없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군사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전쟁승패의 결과에 대한 시각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일본의 승리로 끝난 러일전쟁은 해전으로 시작하여 해전으로 종결된 전쟁이었다. 즉 해군력에 의한 선제공격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으며, 해군의 공세적인 전략인 함대결전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였고,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발틱함대를 결전을 통해 격파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인자는 해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

---

1) Ian Nish,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Longman), 1985, p. 2.

상전 중에서도 특히 뤼순의 203고지 탈환과 육·해 합동작전을 통한 뤼순전투 승리, 묵텐(Mukden)<sup>2)</sup> 전투가 보여준 극동지역 지상전에서의 승리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일본군은 뤼순전투에 이어 묵텐 전투에서도 승리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군사력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치루기 어려웠다. 러시아도 군사력을 극동지역에 증원하려고 하였지만 유럽전선, 철도의 수송능력, 국내적 혼란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군사력을 증원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여 일본의 대륙보급로를 차단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 아울러 러시아 전쟁지도부는 뤼순항을 기지로 삼고, 일본 연합함대와 치열한 접전을 구사하던 뤼순함대와 발틱해에서 증원된 해군력을 이용하여 우세한 해군력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연합함대를 제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미리 간파한 일본은 발틱함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뤼순함대를 격파했다. 나아가 일본은 당시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발틱함대를 쓰시마 근해에서 전멸시킴으로써 러일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반면 러시아로서는 발틱함대의 전멸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사기를 꺾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면 러일전쟁은 지상전과 해전으로 구성되었고 지상전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해전에서의 승리 특히 쓰시마 해전의 승패가 러일전쟁의 흐름을 결정지은 중요한 국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전으로 시작하여 해전으로 종결된 러일전쟁사의 분석을 통해 해군력이 러일전쟁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전략경영학적 측면에서 밝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해군력은 전쟁수행의 핵심요소로서, 단순히 해전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러

---

2) 묵텐은 지금의 선양(沈陽)을 말한다. 동일한 지명에 대한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바,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전에는 펑티엔(奉天)으로, 영어자료에서는 묵텐(Mukden)으로 표기된다.

일전쟁에서도 해전은 전쟁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일본이 정치적, 군사적, 전쟁사적 의미의 다극적 국제체제에서 하나의 극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탄생을 가져왔다. 둘째 러일전쟁은 동양과 서양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대륙국가와 해양국가간의 전쟁이었다. 셋째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이를 발판으로 러시아와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넷째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100년 전 러일전쟁 당시와 유사하다. 다섯째 이외에도 러일전쟁은 전쟁현상 자체만으로도 많은 연구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대결, 일본의 선제공격과 예방전쟁, 해전에서 적용된 각종 해양전략<sup>3)</sup> 등인데 이는 해전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양한 해양전략의 종합적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러일전쟁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체 연구목적 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전쟁사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던 기존의 방법들은 주로 전쟁발 생 원인에 관한 이론이며 전쟁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은 전쟁의 경과 또는 몇 가지 전쟁 요소를 이용한 분석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전쟁을 전략경영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둘째, 러일전쟁에서 해군력은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 인가?

셋째, 체계적인 러일전쟁의 분석을 위해 왈츠(Waltz)<sup>4)</sup>의 3 이미지(Images)

---

3) 해상통상과괴전, 함대결전, 해상봉쇄, 현존함대전략, 요새함대전략, 제해권 등을 의미한다.

4)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9.

를 분석의 틀로 이용하여 해군(인간), 해군력(국가), 해군외교(국제) 수준에서 분석했을 때, 그 각각의 요소가 전쟁의 승패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전쟁의 승패요인으로서의 해군력이 전쟁의 발생원인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넷째, 러일전쟁이 동북아 지역체제와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과거와 현재에 있어 해군력과 해군전략의 유용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 배경과 원인, 전쟁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상전투나 다른 전쟁요소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러일전쟁은 대륙국가 대 해양국가의 전쟁이었지만, 다른 전쟁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해전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해전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러일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군력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해군력이 러일전쟁 승패에 미친 영향이다. 연구주제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전쟁의 발생 배경과 원인, 해전의 전개과정 및 승패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해군력의 역할과 해군력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직접적인 대결구도로 진입하게 된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간섭에서부터 전쟁이 종료되는 시기인 1905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이 기간은 양국의 갈등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련의 외교적 협상노력이 지속되고 있었고,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쓰시마에서 발틱함대가 괴멸되고 난 이후 미국이 중재에 나섰던 그런 기간이다.

## 2. 연구의 범위

전쟁을 연구하는 목적은 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기존 연구는 전쟁발생 원인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전쟁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국제정치 체제의 특징인 무정부상태, 정치지도자들의 오인(misperception)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또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 등에서 전쟁의 발생 원인을 찾기도 한다<sup>5)</sup>.

전쟁발생 원인 분석에 못지않게 전쟁 승패의 원인에 관한 분석도 중요하다. 러일전쟁의 승패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가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이론도-그것이 일반전쟁이든 특수전쟁이든- 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다<sup>6)</sup>. 따라서 러일전쟁도 보다 다양한 시각과 포괄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석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왈츠(Kenneth N. Waltz)의 3 이미지(Image)를 이용하여 러일전쟁을 3가지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나, 연구 분석의 대상을 해군력으로 한정하여 전쟁승리의 근본적 원인으로서는 해군력이 전쟁의 승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이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러일전쟁과 관련된 전문서적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그리고 세미나 자료 등이 동원되었다. 아울러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와 일본

---

5)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사무라이』(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 570.

6) Bernard Brodie, *War an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1973), p. 339.

양국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의 해군력과 해군전략, 그리고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외교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역사적, 서술적, 비교연구방법도 적용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일전쟁에서 해전과 해군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제3장에서는 러일전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해전의 주도권 확보, 제해권 확보, 결정적 승리라는 전략적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해전경과를 바탕으로 러일전쟁에 있어서 해군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도출된 교훈을 제5장에서 다루면서, 제6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체제를 고려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방향을 제시하고, 러일전쟁시 사용된 해양전략들이 현대해전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고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는다.



## 제2장 전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 전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

전쟁원인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이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전쟁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화된 이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에 대한 기존연구의 경향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전쟁이 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원인론(戰爭原因論), 전쟁이 무엇이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대담으로서의 전쟁수행론(戰爭遂行論),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전쟁을 제3자가 개입하여 어떻게 평화적으로 종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쟁관리론(戰爭管理論)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그동안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연구되었는데, 전쟁원인론과 관리론은 주로 국제정치학자의 영역이었으며 전쟁수행론은 군인 및 군사전략가들의 영역이었다. 여기서는 국제정치학자의 영역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연구함에 있어 주로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은, 희망에서 기인하였지만, 전쟁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전쟁의 진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그 해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

7) 김열수, “전쟁원인론: 연구동향과 평가,” 『교수논총』, 제38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4), p. 93.

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은 전쟁현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복잡다기한 측면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완전하지 못했다. 전쟁원인에 관한 수많은 이론이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단일변수로는 전쟁발생 원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8)</sup>. 즉 역사적으로 너무도 다양한 전쟁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 현상으로서의 전쟁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일의 인과관계 이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원인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sup>9)</sup>.

전통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밝혀 사전에 전쟁발발 가능성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국제정치학자의 영역이라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영역은 주로 군인이나 군사전략가들의 몫이었다. 전쟁원인에 관한 연구 업적은 이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전략·작전·전술적 분석을 주로 다루는 전쟁승패에 대한 연구분석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주로 전쟁수행과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는 전쟁 자체에 내재한 요소이기도 하다. 전쟁결과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논리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어렵다는 점이 과학적 분석으로서의 전쟁 연구의 한계성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결과물들을 볼 때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다양한 시각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

---

8)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e,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85): 김철범 역, 『서울: 법문사, 1989), p. 472.

9) K. J. Holsti, *The Diving Discipline* (Winchester, Mass: Allen and Unwin, 1985), p. 10.

쟁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지닌 다양한 전쟁들은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 현상에 대해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2. 러일전쟁에 대한 선행 연구

동북아 지역의 체제를 변화시켰던 러일전쟁은 당사국인 일본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중국과 한국은 전쟁의 주무대를 제공하였지만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특히 2004년도에는 러일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sup>10)</sup>. 하지만 다른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 역시 전쟁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분석하는 분야, 즉 국제정치적 측면의 전쟁원인론 분야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와는 별개의 분야로서 전쟁에서의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전쟁수행론 분야도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러일전쟁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러일전쟁시 영일동맹은 전쟁원인론 측면과 전쟁수행론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영일동맹은 러일전쟁의 개전과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외교사적으로 동맹결성의 필요성과 동맹결성의 논의 과정만

---

10) 러일전쟁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에 상당수가 있지만 주로 외교사적 관점, 전쟁원인론 및 전쟁결과론에 한정되어있다. 러일전쟁 100주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근 개최된 학술회의와 연구내용은 현대일본학회 등이 주최한 “러일전쟁 100주년 회고와 21세기 일본,”(2004. 5.2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등이 주최한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역사적 성격과 현대적 의미,”(2004. 11. 19-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軍史』 제51호(2004. 4) 등이 있다. 김태준,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軍史』. 제54호. 2005, p. 336.

을 다루고 있다. 영일동맹이 러일전쟁 이전에 어떻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시키고, 전쟁수행 과정과 전쟁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전사적인 관점의 연구는 아주 미비하다<sup>11)</sup>. 이처럼 전쟁원인론과 전쟁수행론의 종합적 분석과 상호 연관성, 즉 전쟁의 원인이 전쟁의 승패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전쟁원인론 분야와 전쟁수행론 분야 이외에도 어느 하나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러일전쟁을 바라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특히, 최근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러일전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저서로는 최문형 교수의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sup>12)</sup>이 있다. 또한 국제정치 및 군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러일전쟁을 분석하려는 시도로는 강성학 교수의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가 있다. 그는 2,500년 전의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집필할 때 사용한 분석의 틀을 근간으로 러일전쟁의 원인을 재조명하였으며, 전쟁의 원칙과 클라우제비츠의 전략사상을 바탕으로 전쟁승패에 대한 심층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태준 교수는 국제정치와 동맹관계는 물론 군사적 측면도 고려하여 러일전쟁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해군장교들은 전쟁승패를 주로 전쟁원칙, 마한의 전략사상,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이제는 보다 다양한 이론과 학문적 시각에서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일전쟁을 해군력의 관점에서 전쟁원인론 측면과 전쟁수행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

11) 김태준, 상계서, p. 335.

12) 최문형.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서울: 지식산업사, 2004)

13) 김태준 교수는 전쟁사 중에서 특히 해전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의 해전사 연구 논문 중 러일전쟁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보면, “해전사를 통해 본 고급리더십(2001),” “쓰시마해전승리에 대한 분석(2004),” “러일전쟁의 성격과 전쟁수행방식(2005),” “러일전쟁시 합동작전의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2005),”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2005),” “세력전이 관점에서 본 러일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2005),” 등이 있다.

한다.

## 제2절 전쟁분석 이론 검토

### 1. 전쟁분석 이론과 3 Images

전쟁을 분석하는 방법은 발생했던 전쟁의 수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쟁이란 관찰하고 분석하는 수준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전쟁을 분석하는 수준도 다양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모든 전쟁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화된 하나의 이론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거대담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전쟁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세 가지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및 국제적 수준-이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다<sup>14)</sup>.

심층적 분석을 위해 이 세 가지의 수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적 수준이란 인간이 최종적으로 전쟁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전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에서 찾으려는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격은 본능이므로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이론; 둘째,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자극된 반응, 즉 좌절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공격적으로 된다는 이론; 셋째, 공격은 습득된다는 이론; 넷째, 인간의 이미지나 오관에 의해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 등이 있다.

국가적 수준은 전쟁의 원인을 사회적 현상과 특정국가의 국내적 요인 및 국가의 제도에서 찾는 것이다. 먼저 전쟁은 사회적 공격이며, 집단현상이라고 보

---

14) 소상섭, “걸프전쟁에 관한 연구: 발발원인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p. 8-21에서도 이 분석을 채택하고 있다.

는 것으로 인류학자인 레오나르드 베르코비츠(Leonard Berkowitz)는 전쟁을 생물학적 유기체 현상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sup>15)</sup>. 둘째 특정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요인, 즉,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 전쟁을 택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① 국가의 체계 자체에 가져오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 ② 국가 체계통합에 실패한 것을 은닉하고 그 대안으로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보상적 행동 등의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셋째 국가의 제도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써 ①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②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 정치제도가 없으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이론 등이 있다.

국제적 수준의 이론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가 전쟁을 발생시킨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이론들은 안정되고 통합된 국제체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국가의 경우 국내체제적으로 정부가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되기 어려우나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어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전쟁원인을 국제적 구조에서 찾는 이론의 선구자로 루소를 들 수가 있는데, 그는 개인이 이성적이고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가 자국의 준거기준에서만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체간에 발생하는 충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이며<sup>16)</sup>, 전쟁을 없애는 방법은 국가들을 연방정부와 같은 통치하에 묶어 두어 법의 권위하에 개별국가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sup>17)</sup>.

---

15) Leonard Berkowitz,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 Hill, 1962), p. 29.

16) Arend Lijphar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great debates and lesser deb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XXVI, No. 1, 1974, pp. 11-21.

17) *Ibid.*, p. 185.

한편 전쟁의 원인을 국제정치체제에서 권력의 집중과 분산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 있는데 칼 도이취와 데이비드 싱어는 “다극체제하에서보다 양극체제하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케네스 왈츠와 오르간스키는 “양극체제하에서보다 다극체제하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리차드슨은 군비경쟁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쟁은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불안정하게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각각의 수준별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이미 많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어느 특정한 전쟁을 분석하는 데에는 용이할 수도 있으나 전쟁현상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는 이상의 세 가지 관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왈츠도 국제체제적인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제체제의 구조만 가지고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인간, 국가에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여 이를 국제체제적인 요인과 연결시켜 설명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왈츠는 그의 저서 『Man, the State and War』를 통해 전쟁의 이론적 분석의 수준을 세 가지의 이미지(Image)로 구분하였다<sup>18)</sup>.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이미지는 “인간의 행위와 국제적 갈등”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과 전쟁의 관계를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두 번째 이미지는 “국가의 구조와 국제

---

18) 그가 제시한 Image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전쟁을 분석하는 하나의 시각 또는 분석의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왈츠는 전쟁의 원인들을 분류함에 있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제반 분석과 이론들을 첫 번째 이미지, 국가의 구조로부터 전쟁의 원인을 도출해내는 분석을 두 번째 이미지, 국가간의 관계를 분석단위로 채택하는 이론을 세 번째 이미지로 분류하고 있다.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59), p. 121.

적 갈등”에 관한 것으로 자유주의자들의 국내·국제 정치관과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사회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를 평가하였다. 세 번째 이미지는 “국제적 갈등과 국제적 무정부상태”에 관한 것으로 정치·경제·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이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왈츠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어느 하나의 단일 이미지에 의해 전쟁을 분석할 때 발생하게 되는 오류이다. 그는 “어떤 한 이미지의 인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단일의 이미지만으로 만족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sup>19)</sup>. 우리가 전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기 위해 왈츠가 말한 세 가지의 이미지가 분석의 틀로써 채택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왈츠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수준의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그가 분류한 이미지들이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전쟁현상 전체를 바라보는 분석의 틀로서도 가치와 효용성이 높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 시대 이전과는 달리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국외적인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식 전쟁과 20세기식 전쟁의 흐름을 바꾼 러일전쟁은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왈츠가 세력균형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서 ‘최소한으로는 자신의 보존을, 최대한으로는 세계지배를’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내부적 및 외부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가정한다. 경제발전, 군비증강, 전략개발 등이 전자의 예라면 동맹전략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국내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대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영일동맹은 그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 결

---

19)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op. cit., p. 225.



과 국력이 증강되면서 극동의 러시아 군사력과 대등한 위치로 세력이 격상되었고, 이에 전쟁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개전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소가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전쟁의 종결단계에서 일본이 보여준 외교적 노력과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개입은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전쟁사례에 대한 원인규명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분석틀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츠의 3 Image는 전쟁에 대한 종합적 시각-전쟁원인뿐 아니라 전쟁과정과 승패의 원인분석을 포함하여-을 갖게 해주는 매우 좋은 분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단일전쟁(러일전쟁)에 관한 연구로서의 본 논문은 그의 3 Image를 분석의 틀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전쟁에 대한 분석의 수준을 근간으로 하되 이를 본 논문의 사정에 맞게 약간 수정하여 러일전쟁시의 해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 2. 해군력에 관한 이론적 검토

일반적으로 해군력과 해군전략은 해양력과 해양전략의 하위 개념으로써 보다 협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해군력과 해군전략의 광의적 개념이 해양력과 해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해군력과 해군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력과 해양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절에서는 해양력과 해양전략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협의의 개념인 해군력과 해군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군력의 전시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군전략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전시 해군력의 사용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함으로써 대륙국가인 러시아와 해양국가인 일본이 어떠한 해군전략으로

해전을 수행했는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 가. 일반적 개념

### (1) 해양력과 해양전략

우선 해양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해양력이란 영어로 Maritime Power 또는 Sea Power<sup>20)</sup>로 사용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바다를 이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때의 힘이란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한(A. T. Mahan)은 해양력을 “해군력과 통상, 해운을 포함하여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국민을 위대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한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정의했다<sup>21)</sup>.

미 해전교에서는 “국가 이익, 국가목표 및 국가정책의 추구에 필요한 것으로 해양사용을 가능케 하는 국가총력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2)</sup>.

한편 한국해군의 해군기본교리에서는 “해양력은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해양력은 해군력 이상의 것으로 해운, 자원, 기지 및 기관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국가의 정치력, 경제력 및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국력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한다<sup>23)</sup>.

이러한 해양력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결국 해양력이란 국가목표 달성과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해양을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으로서 군사적인 요소(해군력)와 비군사적인 요소(통상, 자원, 기지 등)를 포함하

---

20) Sea Power는 Maritime Power과 같은 뜻으로써 마한이 그의 저서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를 지으면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Maritime Power라는 용어 대신 처음 사용하였다.

21)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 Hill and Wang, 1957), p. 22.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p. 76.

22)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 해설집』(대전: 해군본부, 2004), pp. 100-101.

23)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대전: 해군본부, 2002), p. 부록-11.

는 해양 사용능력의 총합임과 동시에 국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력 개념에 바탕을 둔 해양전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틸(Geoffrey Till)은 해양전략을 “국가가 그들의 해양력을 유지 또는 증강시키려는, 그리고 전·평시를 막론하고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sup>24)</sup>.

영국의 콜벳(Julian S. Corbett)은 “해양전략이란 실제적 요소인 해양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해양전략의 주요 관심사는 전쟁계획에서 육군과 해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sup>25)</sup>.

한편 한국해군의 해군기본교리에 따르면 해양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6)</sup>.

종합컨대, 해양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평시에 국가의 해군력 및 해운력 등을 운용하여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에게 해양사용을 불허하는 것”이다<sup>27)</sup>. 즉 “해양력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보다 엄격한 군사전략의 의미를 갖는 해군전략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리고 해양전략의 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사용 능력을 계속 보장하는데 있다.

협의의 해양전략 개념은 해군전략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전략은 전·평시 실제적인 수단인 해군력을 사용하여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sup>28)</sup>.

---

24)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해군본부 역, 『해양전략과 핵시대』, (대전: 해군대학, 1984), p. 23.

25)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8), pp. 15-16.

26)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대전: 해군본부, 2002), p. 부록-11.

27) 해군대학, 『해군력』 (대전: 해군대학, 1988), p. 18.

28)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 31.

본 논문에서는 러일전쟁의 해전에서 전시 해군력의 사용이 주 연구의 대상이므로 협의의 해양전략을 해군전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해군력과 해군전략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해군력과 해군전략

### (가) 개념

해양력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력의 운용은 해양세력을 이용하는 군사적 운용과 해운력을 이용하는 비군사적 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군력이 바로 군사적 운용을 위한 해양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해군력(Naval Power)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해양에서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다<sup>29)</sup>.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군력은 바다에서의 전투력을 의미하는 군사적인 것으로서, 여기에는 단지 군함뿐만 아니라 기지, 건조, 수리 및 지원설비, 함운용과 지휘능력, 장병 훈련, 사기 등의 유·무형 요소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해군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해군교범인 미 해전교에서는 해군력의 정의를 “해양력의 구성요소로서 전투함정, 항공기, 무기,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지원 시설을 포함한다.”라고 한다<sup>30)</sup>.

구소련의 해군총사령관이었던 세르게이 고르시코프(Sergei G. Gorshkov)는 해군력을 “국가 해양력 구성요소의 기본으로 함정과 항공기 및 기타 부대, 지

---

29) L. Martin, *The Sea in the Modern Strategy* (London : Chatto and Winds, 1967), p. 165, Ebler. Sir James, "the Role of Maritime Power," *Naval Forces*, Vol. IV, No. IV (1983), p. 16. 박남태, “탈냉전기 미 해군 전략: 전략의 본질과 쟁점,” (국방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9), pp. 18-19.

30) Department of the Navy, *NWP10(A) Naval Warfare*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the Navy, 1961), p. 59.

휘·통제 및 통신조직, 예비물자 공급체계와 기지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했다<sup>31)</sup>.

한국해군의 해군기본교리에 의하면 해군력이란 “국가목표의 달성과 국가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전·평시 해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력으로서 해군에 소속 및 통제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를 의미하며, 함정, 항공기와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기지 및 이들의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양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해군전략은 사실상 해양전략과 구분하기에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을 최초로 비교 설명한 콜벳은 해군전략을 “해양전략의 일부로서 해양전략에서 지상군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함대의 역할을 결정하였을 때 그에 따라 함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32)</sup>.

한국해군의 해군기본교리에서는 해군전략(Naval Strategy)을 “국가전략에 의해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해보면,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하위개념으로써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평시에 실제 해군력을 운용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해양전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해양통제를 확보, 유지 및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

틸(Geoffrey Till)은 해군의 임무를 전통적 임무(Old Task)와 신규 임무

---

31) Sergei 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 (Annapolis: Naval Institute, 1979), p. 59.

32)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0), p. 11.

(New Task)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전통적 임무란 해군의 전시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제해권의 확보와 해양통제, 해상교통로방어, 해군력의 투사”라고 했으며, 신규 임무란 해군의 평시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신규 임무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두된 것으로 해양자원의 보호와 해군외교, 그리고 전략적 억제”라고 하였다<sup>33)</sup>.

고르시코프(Sergei G. Gorshkov)는 해군의 임무를 보다 명확하게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sup>34)</sup>. 그가 말한 전시임무는 해군력 투사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서 전략적 타격능력의 확보, 전략적 방어, 해상교통로 차단, 서방측의 전력투입능력 타파, 상륙부대 지원, 잠수함 보호, 외국에서의 무력 투사 등이며, 평시임무는 정치적 외교력을 강조한 것으로서 전투준비 증대를 통한 국익의 보호와 정치도구로서의 해군력의 역할 등이었다.

부쓰(Ken Booth)는 해군력의 역할을 군사적 역할, 외교적 역할, 그리고 경찰적 역할로 구분하였다<sup>35)</sup>. 그는 군사적 역할을 다시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였는데, 평시역할은 힘의 균형 기능으로서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 억제와 대내외적 국익도모로 보았고, 전시역할은 세력의 투사 기능으로서 해양통제권의 확보, 군사력의 투사,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통한 전승의 보장으로 보았다. 외교적 역할로는 군사력에 의한 협상, 외교적 조작, 국위 선양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경찰적 역할에는 해안방어와 국내안정 기여 등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해군의 본질이 군사적인 것이므로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은 모두 군사적 역할이 그 기반을 이룬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 해군의 기본교리에서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해군목표 및 국제

---

33)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pp. 181-198을 요약함.

34)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 302-312.

35)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rane Russack & Co. Inc., 1977), pp. 15-25.

법 등을 고려하여 해군의 구체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쟁억제, 해양통제, 군사력 투사, 해상교통로 보호, 국가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그리고 해양주권 및 권익보호 등이 있다.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를 종합해보면, 전·평시에 있어 외교적 분야와 군사적 분야로 축약될 수 있다. 즉 평시에는 해군력 관리를 통하여 외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군력에 의한 힘의 균형과 전쟁억제, 그리고 해군협력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시에는 해군력 투사를 통해 해전에서의 승리가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전략적 전환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통제권의 확보와 행사, 그리고 해상교통로 보호가 여기에 속한다.

#### (다) 해군전략의 구성요소

전략의 일반적인 개념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략은 목적(목표), 방법(전략), 수단(자원)의 합이라는 등식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와 수단과 방법이 곧 전략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전략이란 개념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에 따라 전략의 의미나 내용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sup>37)</sup>. 테일러 장군은 전략을 목표, 방법 및 수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begin{aligned} \text{전략} &= \text{목적(지향하는 목표)} + \text{방법(행동방안)} \\ &+ \text{수단(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end{aligned}$$

이러한 개념을 해양전략에 적용시켜 보면, 해양전략이란 해양력이 지향하는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의 합으

36) 박경현 편, 『현대 군사전략 개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5), p. 124.

37) 윤형호, 『전략론』 (서울: 도서출판 한원, 1994), p. 36.

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아더 라이케(Arthur F. Lykke)는 군사전략을 “전쟁의 정치목적에 부합되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자원(무엇을)을 가지고 군사전략개념(어떻게)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sup>38)</sup>. 즉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그리고 군사자원으로 보았다<sup>39)</sup>. 그의 광범위한 군사전략 개념을 협의의 해양전략에 적용시키면, 군사목표를 해전목표로, 군사전략개념을 해전수행방법으로, 군사자원을 수단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해양전략적 측면에서 전략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해군전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해군전략은 목표(해군목표), 방법(해군전략) 및 수단(해군력)으로 구성된다.

#### 나. 전·평시 해군력의 사용 개념

여기서는 앞에서 전·평시로 구분하여 살펴본 해군의 역할을 근거로 러일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해군력의 사용은 해군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sup>40)</sup>. 전시 해군력의 사용은 해전

---

38) Steward, John P. & Lykke, Arthur F.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dge, 1982). pp. 1- 5.

39) ① 군사전략 목표는 군사목표라고 부르며, 국가전략에서 설정한 전략목표에 부합되도록 군사부분의 중점 노력 대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지향점이다. 이는 군사력 운용 개념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군사능력 및 자원을 투입해야 할 특정 임무 혹은 과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략 억제, 병참선 보호, 적 주력 격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군사전략 개념은 전략상황 평가의 결과로 채택된 군사행동 방향을 말한다. 따라서 군사전략 개념은 광범위한 선택을 포함한다. 이는 범 국가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 및 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국이 공세적인 전략 개념을 채택하게 되면 전력구조와 전력의 형태, 규모 등이 기동적이고 공격무기체계를 구비하게 되며, 반대로 수세적인 전략 개념을 채택하게 되면 그와 반대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③ 군사자원은 군사능력의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재래식 전력, 현역 및 예비역 부대, 인력, 전시 물자 및 무기체계 등이 포함된다.



에서의 승리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군력 투사와 같은 해군력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평시 해군력의 사용은 힘의 균형과 전쟁억제, 해군외교(해군협력과 해군원조), 해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를 위한 사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1)</sup>.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해군전략의 구성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 (1) 평시 해군력의 사용

앞서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평시 해군력은 외교적 역할과 군사적 역할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 (가) 군사적 역할

평시 군사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억제로써 이는 군사력의 균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결과는 다를 수 있더라도 러일전쟁시 영일동맹과 같이 해군력은 힘의 균형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전쟁억제를 위한 방법은 크게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보복적 억제는 적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단념케 하는 것이다. 거부적 억제는 적의 침략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침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억제하는 것이다. 러일전쟁 당시 억제라는 개념이 통용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는 전쟁발발 직전에 영국의 대일본 해군력 지원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시 해군력에 의한 억지력이 어느 정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0) 자세한 내용은 박호섭, 전게서, pp. 1-41을 참조.

41) 해군력의 전시 사용은 전쟁승리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지만, 평시 사용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박호섭은 이를 전쟁억제, 해군외교, 해양주권 및 관할권 수호, 해양질서 유지라고 보았고, 이외에 킬, 고르시코프, 부쓰 등은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에서 제시한 평시의 역할들을 주장했다.

해군력에 의한 전쟁억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이용하여 거부 또는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도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러일전쟁 당시에는 해군력이 거의 유일무이한 전쟁억제수단이였다.

#### (나) 외교적 역할

해군외교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정치적 목적과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원, 설득, 억제 혹은 강압을 위한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세력을 사용하는 것”<sup>42)</sup>으로 정의된다.

해군외교는 자국의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상대를 억제하고 강압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서는 지원과 공약의 이행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도 사용된다<sup>43)</sup>. 따라서 동맹, 특히 영일동맹과 같은 해양국가간 또는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륙국가와 해군력이 강한 국가간의 동맹에 있어서 해군외교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해군외교의 방법에는 ①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사용목적에 따라 포함외교, 해군력 현시, 국위선양 등과 ② 동맹이나 해군협력에 의한 해군력 원조 또는 해군력 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4)</sup>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군외교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은 바로 수상함이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수상함만이 존재했었고 그 이외의 해군력 원조는 불가능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항공기와 잠수함도 있을 수 있지만 수상함에 비해 상징

---

42)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British Maritime Doctrine*, pp. 55, 223.

43) 박호섭, 『해양전략의 이론과 실제』 (대전: 해군대학, 2002), pp. 1-40 을 참고함.

44) 일반적으로 해군외교의 종류와 방법을 설명할 때에는 ①항의 내용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되는 해군외교는 이러한 현시적인 해군외교의 일반적 정의에 부가하여 ②항과 같이 실질적 군사력 교류와 군비에 관한 내용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성, 융통성, 작전지속능력, 의사전달능력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없다.

## (2) 전시 해군력의 사용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러일전쟁이 발생한 시기에는 전략개념이 제해권에서 해양통제권으로 변화되던 과도기적 시기였다. 러일전쟁의 해전 특성을 보면 이미 함포위주의 무기체계로 변화되어 있었고 선체의 재질도 철로 변화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에 “해양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sup>45)</sup>.

### (가) 해군전략의 목표 : 해양통제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은 “수많은 전쟁상태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기의 발달과 함께 변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항상 일정한 것과 같이 만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sup>46)</sup>.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평시에는 부를 조장하고 전시에는 승리를 가져오는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이었다<sup>47)</sup>. 이후 해양의 광대함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제해권 개념에 시·공간적 제한이 가미된 해양통제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해양통제권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우세라는 개념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전이란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해 우리의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

45) 제해권, 해양통제권, 해양우세의 개념들은 같은 맥락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과 더불어 전쟁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시대에 알맞은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46)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Hilland Wang, 1957), pp. 108-110.

47) *Ibid.*, p. 9.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군에 의해 실시되는 전투 또는 작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전의 목표는 지상전의 목표인 적 영토의 점령과는 달리 해양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을 통제하는데 있다<sup>48)</sup>.

즉, 전시 해군전략의 목적은 적을 통제하기 위해 해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적의 사용을 거부하는 ‘해양통제’<sup>49)</sup>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제해권 개념의 변천

구분		주요 내용
제해권	등장배경	「마한」은 1660-1783년간의 유럽의 역사를 연구하여 그 중에서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가의 해계모니 쟁탈전에서 해양력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통상이 국가발전의 주요 원동력임을 밝혀 1890년에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저술하여 해양력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그 후 1913년까지 18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제해권 사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해전양상	「마한」의 연구내용은 17-18세기 범선시대였으며, 저작연대인 19세기 말에 목조 기선시대가 지나가고 프로펠러 철선시대가 도래했던 때이다. 이 때의 해전은 3차례의 英蘭전쟁과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전쟁, 스페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미국독립전쟁 등이며, 수상함대세력이 상호 포격전으로 승패를 결정지었다.
	무기체계	함포가 주무기였으며 아직도 전선은 범선이 주축이었던 시대였다.
해양통제	등장배경	20세기 초 현대 강선시대의 도래와 함께 조선술의 급격한 발전과 특히 잠수함과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리하여 해양지배의 의미를 갖는 제해권 대신에 한정된 장소, 시간 등 한정된 의미를 갖는 해양통제가 통용하게 되었다.
	해전양상	20세기 초 해전은 거함거포주의의 영향으로 중무장한 전함이 주력함의 자리를 굳혔으며, 잠수함, 항공기의 발달이 해양지배개념의 변화를 초래케 했다. 그러나 제1차

48) 육지는 소유의 개념이 적용되지만 해양은 그 특성상 이와 달리 인류의 공동물로서 사용하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양도 관할권을 통해 보유의 개념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해양의 대부분은 공해이며, 영해마저도 자유통항권이 인정된다. 또한 육지와는 달리 영구히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군사력 주둔도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49) 해양통제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해역에서 특정기간 동안 해양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필요시 적에게 해양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op. cit.*, p. 34.

		세계대전시까지도 항공기는 지상전에 더 유용했으며, 잠수함도 전략세력이라기 보다 통상과괴전 위주의 제한적인 사용에 그쳤다.
	무기 체계	함포의 대구경화와 어뢰, 기뢰 등이 등장했고, 전함을 주축으로 순양함과 구축함, 어뢰정 등이 발달했으며, 잠수함과 항공기 자체가 주요 무기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해양 우세	등장 배경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양의 사용에 대한 안전확보 문제는 전쟁의 승패에 직결되며, 수단의 질적 변화로 인하여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도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제해권 개념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유도무기와 항공기, 잠수함의 경이적인 발전이 그것이며, 특히 핵무기의 급격한 증가로 핵전의 현실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재래식 제한전쟁에서의 양질적 우세개념으로 변화되었다.
	해전 양상	현대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의 상호 조우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함정·항공기·잠수함을 막론하고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하여 고도의 전자장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며, 정치목적 달성 여부는 전투의 승패보다 국제정치상의 외교적 노력과 세계여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기 체계	과학기술의 발달이 무기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급증시켰으며, 유도무기가 주축을 이룬 가운데 핵무기가 전략무기로 남게 되었다.

출처: 임인수, 『해양우세가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국방대학원, 1987), p. 16.

### (나) 해군 전략의 방법

해양통제의 방법으로 해양통제권 확보와 해양통제권 행사가 있다. 콜벳과 킬이 제시한 바 해양통제권의 확보방법에는 함대결전, 함대봉쇄, 현존함대가 있고, 해양통제권의 행사방법에는 해양군사력 투사, 적 침공에 대한 방어, 해상교통로 보호와 공격이 있다<sup>50)</sup>.

#### 1) 해양통제권 확보 방안

해양통제권의 확보방안은 적과의 상대적인 통제능력에 따라 절대적 해양통제권과 제한적 해양통제권으로 구분된다<sup>51)</sup>. 절대적 해양통제권이란 적의 해양

50) 해양통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호섭, 전계서, pp. 1-38.

51) 에콜스 제독은 해양통제(권)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완전통제 또는 제해권(Absolute Control 또는 Command of Sea) :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작전하며 적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 ② 실질적 통제(Working Control) : 상당히 자유롭게 작

사용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아군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에콜스 제독이 말한 완전통제 또는 제해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함대결전과 해상봉쇄가 있다. “제한적 해양통제권”이란 완전한 해양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된 해양사용이 가능하고, 적에 대해서는 큰 위협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해양거부의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현존함대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수행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가) 절대적 해양통제권 확보방안

함대결전이란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위협이 되므로 가용한 해군세력을 집중하여 적 해군세력을 격멸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써 적대관계에 있는 두 국가의 주력함대간 결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2)</sup>. 따라서 결전의 결과는 해전에서의 승패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해양통제권 확보를 향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적극적 해양통제전략을 추구하던 영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해양강대국들의 전쟁수행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마한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마한은 해군의 전략목표인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대결전을 주장했고,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함대봉쇄를 논하였다. 그가 말한 함대결전은 적 함대를 찾아 결전하는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병들

---

전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며 적은 큰 위협을 안고 작전할 수 있는 것, ③ 분쟁적 통제(Control in Dispute) : 양측은 어느 정도 위협을 안고 작전한다. 이것을 일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부분에 제한된 시간동안 실질적인 통제를 설정할 요구를 포함시킨다. ④ 적의 실질적인 통제(Enemy Working Control) : ②항의 반대, ⑤ 적의 완전통제 또는 제해권 : ①항의 반대. 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해설집』, 전게서, p. 118.

52) 해군본부, 『해양전략개론』, pp. 46-47.

의 사기와 자신감을 고취시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봉쇄란 “적국의 해안의 일정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선박도 그 해안에 접근하거나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전투행위”로 정의된다<sup>53)</sup>. 해상봉쇄는 평시에 전쟁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전시에는 전승을 위해 적의 항만과 해안을 차단하고 해상기동을 방해하여 적의 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서 특히 열세한 해군이 결전을 회피하고 현존 함대전략을 취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콜벳은 그 목적에 따라 해군봉쇄와 상업봉쇄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군봉쇄’의 목적은 적의 전투함을 항내에 가두어 못 나오게 하거나 적이 바다로 나가 다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상업봉쇄’의 목적은 적의 해상교통로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통상의 왕래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상업봉쇄는 비군사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통제의 확보 방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양통제의 행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한적 해양통제권 확보방안

현존함대란 “적이 함대를 사용함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도록 자신의 함대를 지속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얻어지는 선택권의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54)</sup>. 이 전략개념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가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함으로써 존재 자체가 적 함대를 견제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유용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세한 적 세력이 결전전략에서 후퇴하여 봉쇄나 억압과 같은 임무로 전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적이 요구하는 해양통제 수준을 억제하는 역할

---

53)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op. cit.*, p. 54.

54)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op. cit.*, pp. 35-37.

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통제전략이라기보다는 해양거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그렇다고 해서 현존함대 전략이 수동적인 방어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해상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하기 때문에 결전을 회피하고 우회적인 방안을 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자신의 주 세력은 보존하면서 적의 통상 또는 연안에 대한 공격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이익을 취하며 적의 주력으로부터 분리된 소부대를 각개 격파함으로써 누진적으로 적의 전력을 약화시켜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56)</sup>.

해양통제권 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세한 해군이 추구하는 전략이 함대결전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열세한 해군이 추구하는 전략이 현존함대이다.

## 2) 해양통제권 행사 방안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방안에는 군사력 투사, 적 침공에 대한 방어, 그리고 해상교통로 확보 등이 있다<sup>57)</sup>.

먼저 군사력 투사는 “육상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른 국가의 영토에 군사력 즉, 병력이나 화력을 투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58)</sup>. 터너(Stanfield Turner) 제독은 이 개념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군사력 투사는 “적 지상군에 대해 충격을 주는 것으로 상륙돌격, 해군포격 및 전술항공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 침공에 대한 방어는 해상을 통한 적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해군과 육군 간 역할논쟁을 일으켰다. 즉 해군은 바다로부터

---

55)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대전: 해군본부, 2002), pp. 4-5.

56)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해설집』(대전: 해군본부, 2004), p.12.

57)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전개서, pp. 1-37.

58)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op. cit.*, p. 228.



오는 적은 당연히 바다로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육군은 바다에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군의 연안방어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전자는 적극적 해양통제전략을 추구하던 영국 중심의 해양국가 전략사상이며, 후자는 19세기 요새함대전략을 추구하던 러시아 중심의 대륙국가 전략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영국은 유럽대륙의 수많은 침공을 격퇴하여 승자가 된 반면 러시아는 쓰시마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으로부터 침공하는 적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이 침공한다면, 역사적으로 러일전쟁시 블라디보스톡 함대와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 U-Boat에 의한 통상파괴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함대전략을 취함으로써 해양거부를 통해 적의 침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교통로는, 콜벳이 말한 바와 같이, 제해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생명선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교통로는 전쟁지속능력을 결정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상교통로의 보장은 결전에서 승리하고 해상봉쇄에 의한 해양통제권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 (다) 해군전략의 수단

수단이란 다른 표현으로 해군력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해군력의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유·무형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유형의 요소는 크게 수상세력, 수중세력, 항공세력, 그리고 해군기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핵심요소는 수상세력이다<sup>59)</sup>.

---

59) 본 논문의 목적상 유형요소의 분석에 중점을 두되, 러일전쟁 당시에는 수중세력과 항공세력이 사용되지 않았고 해군기지는 주로 지상군과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상세력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 해양전략의 수단은 해양통제를 위해 함대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함대의 구성은 적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우리의 해양통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sup>60)</sup>. 일반적으로 많은 전략가들은 균형함대<sup>61)</sup>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장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함대가 효용성이 있지만 열세한 함대의 경우 현존함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비대칭 수단에 의한 통상파괴전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일 수도 있고 우세한 함대의 경우 현존함대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해 상선침몰 또는 기뢰 부설도 효과적일 수 있다.

#### 다. 국가특성별 해군전략

국가의 특성은 크게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 해군 전략이 달라진다. 여기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군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는 러일전쟁에서 해전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해전에서의 승패는 각 국가의 해군전략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 해군전략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군전략이 러일전쟁의 해전 승패, 나아가 전쟁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sup>62)</sup>.

60) 박호섭, 전게서, pp. 1-38.

61) 균형함대란 전·평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독립적으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상, 해중, 공중의 각종 무기체계간 균형을 이룬 해군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호섭, 『해양전략의 이론과 실제』(대전: 해군대학, 2004), p. 117. : 이 개념은 수상함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잠수함이 출현한 이후에 정립된 현대적 해군전략개념으로써, 동 개념을 수상함만이 존재하던 러일전쟁 시기로 적용한다면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그리고 각종 무기체계(함포, 기뢰 등) 등의 다양한 해군 전투세력으로 구성된 함대”라는 의미로 정의 할 수 있다.

62) 일반적으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논의에 대해서는 해양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지만, 본 논문은 해전의 승패와 이것이 러일전쟁 전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해양전략보다는 해군전략에 초점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내용들이 해양전략의 개념 위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근거로 설명하되 앞서 말한 협의의 해양전략개념을 적용하면서 즉, 해군전략적 차원에서 논하고자 한다.

해양전략은 해군력의 사용 측면에 따라 수세적인 사용과 공세적 사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수세적 사용은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해양거부사상에 해당하며 공세적 사용은 자국의 해양사용을 추구하는 해양통제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63)</sup>. 해양거부사상은 주로 대륙국가가 약소한 세력으로 강대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이며, 해양통제는 주로 바다를 무대로 활약하는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으로 수용되어 왔다<sup>64)</sup>. 사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를 구분하는데 모호한 점도 많으나 기존에 연구된 일반적 개념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각 국가의 특성별로 살펴본다.

#### (1)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대륙국가란 해양국가로서의 유형적인 요소가 적은 반면 육지국경선, 국경무역, 국토의 비옥함과 같은 대륙국가의 물리적 요소가 강한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 독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의 전략사상은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sup>65)</sup>이나 프랑스의 오브제독을 비롯한 해군신학과(Jeune Ecole)<sup>66)</sup>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대륙중심의 전략사상을 추구하고 있다.

지상전 우위의 사상적 배경을 지닌 대륙국가들은 대륙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기 때문에 해군력은 부차적이며, 단순히 적 해군력의 대륙접근을 막으려는 ‘해양거부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발전해왔다<sup>67)</sup>.

63)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pp. 16, 50, 188-192.

64) *Ibid.*, p. 115.

65) 그에 따르면, 심장지역에는 대하천 유역의 광대하고도 비옥한 토지가 있고 유용한 자원도 많아서 이곳을 지배하는 대륙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심장부 이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 Island: Who rules the World Island commands the World” 임적순, 『정치학 원리』, p. 112.

66) 이들은 큰 파괴력을 지닌 어뢰정으로 전환에 대응하며, 주로 연안방어를 실시하고 순양함으로 통상과괴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해군본부, 1995), p. 25.

대륙국가들의 해양전략은 전략기조, 전투수행, 그리고 함대구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륙국가의 해양전략 기조는 함대보존과 적의 해양사용 거부이다. 이는 대륙국가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적 육군을 격멸하여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군은 공세적으로 운용한 반면 해군은 수세적으로 운용하여 적 함대의 대륙접근을 거부하고 적 상선의 해상교통로 사용을 교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전투수행 측면에서는 연안방어(Coastal Defense)와 해상교통로 파괴(SLOC Destruction) 등의 수세적 또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대륙국가들은 막강한 해양국가와의 직접대결인 함대결전 보다는 비대칭적 방법을 통한 해상교통로 파괴나 함대를 요새의 일부로 인식하는 요새방어 또는 해안방어를 선호하였다<sup>68)</sup>.

셋째, 함대구조적으로는 고속정, 어뢰정 등의 함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거부전략에 따라 통상파괴전 수행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안방어를 위한 기뢰를 사용하기도 한다.

## (2)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해양국가란 해양국가로서 필요한 유·무형적인 요건을 유기적으로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일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해양전략사상은 마한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해양중심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양국가들의 해양전략은 해양에서 사활을 결정짓는 ‘해양통제’<sup>69)</sup>에 중점을

67) 스탠스필드 터너에 의하면, 해상거부전략이란 아축 해양에 대한 적의 사용 및 자국에 대한 적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소극적 방어전략이라고 정의 했다.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사』 p. 45.

68) 그 이유는 적의 해양력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강영오, 『해양전략론』, p. 28.

둔 전략이다. 이러한 해양전략사상은 단순히 해양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활동무대 혹은 지렛대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적보다 압도적인 해군력 우세를 추구하였다.

해양국가들의 해양전략은 전략기조, 전투수행, 그리고 함대구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국가의 해양전략기조는 해양의 사용(Use)과 통제(Control)가 중심이 되어 해양통제를 달성한 다음 전력투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전투수행에서는 함대결전(Fleet Decisive Battle)사상과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 등 적극적 해양통제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sup>70)</sup>.

셋째, 함대구조적으로는 해상통제형 해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항모, 전함, 순양함, 잠수함 등 대형 전투함을 주축으로 함대를 구성한다<sup>71)</sup>.

러일전쟁은 국가적 수준에서 본다면 대륙국가인 러시아와 해양국가인 일본의 대결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해양국가가 대륙국가보다 해양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해양력 역시 국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륙국가인 러시아의 해군력 수준은 일본의 해군력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력 수준이 낮았으며, 국내의 각종 내전과 대륙 침략 등으로 인해 오히려 육군이 우세했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을

---

69) 스탠스필드 터너에 의하면, 해양통제란 제한된 해역에서 제한된 기간에 보다 실질적인 통제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육지에 군사력을 투사하거나 해외부대에 재보급하기 위한 위치로 함선을 이동시키는 동안 그 해역에서 일시적으로 해상·해중·공중에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p. 118.

70) 함대결전이란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위협이 되므로 가용한 해군세력을 집중하여 적 해군세력을 격멸한다는 개념이다. 해상봉쇄란 적국 해안의 일정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어떠한 선박도 그 해안에 접근하거나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전투행위를 말한다.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 해설집』(대전: 해군본부, 2004), pp. 123-129.

71)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사』, p. 46.

극동지역으로 한정하여 유럽지역으로부터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이 있기 전 군사적으로 조기에 승리하고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일본은 극동지역에서의 지상전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해군력을 건설하여 바다로부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결국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의 도움에 힘입어 러일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해군력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 제3절 분석의 틀

해군력이 러일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해군력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틀로써 왈츠의 ‘세 가지 이미지(Image)’를 이용하고자 한다. 왈츠가 세 가지의 이미지로 구분한 준거를 구체적 분석 대상인 해군력에 적용하면, 러일전쟁에서의 해군력을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해군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석수준에 대한 구체적 분석 내용을 해군지휘관, 해군력, 해군외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2> 분석의 틀

분석대상		분석 이론의 구조	해군력수준의 적용
러일 전쟁	해군력의 역할	<u>왈츠의 3 Image</u>	
		1. 첫번째 이미지: 인간의 행위와 국제적 갈등 2. 두번째 이미지: 국가의 구조와	1. 개인적 수준: 인간 (정부, 군대, 국민) 2. 국가적 수준: 해군력

	전쟁의 승패	국제적 갈등 3. 세번째 이미지: 국제적 갈등과 국제적 무정부상태 ⇒ 군사력(해군력) 차원의 재조명	3. 국제적 수준: 해군외교
--	--------	---	-----------------

## 1. 개인적 수준에서 본 해군 지휘관

지휘관은 부대의 관리와 경영으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휘관의 품성이나 능력, 태도는 조직원들의 사기나 군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 등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더라도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것은 지휘관의 리더십 때문이다. 따라서 지휘관이 평소 교육훈련 등에 의해 전기 연마와 전비태세를 얼마나 연마하느냐, 그리고 사기 및 군기의 무형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추느냐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러일전쟁시 양국 해군 지휘관들의 지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 2. 국가적 수준에서 본 해군력

해군력은 무형의 전력과 유형적 전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 전력이라면 강한 교육훈련의 결과로 연마되는 전투기량,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의 개발 및 사용, 그리고 멸사봉공과 백전 불굴의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무장

되는 정신 전력 등을 들 수 있다. 또 유형 전력은 러일 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서 함정, 탑재된 무기체계, 연료, 정비·수리·보수 능력, 기지 등이다.

해군력은 단기간 내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전장 환경이나 가상적국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추진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일 양국의 해군력이 전쟁 승패에 미친 영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3. 국제적 수준에서의 해군외교

해군외교는 국가 및 군사외교의 한 분야로서 국제적 수준의 해군 협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이 때 수준이란 동맹국 수준, 준동맹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전적 수준의 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간은 형식적 동맹관계였던 반면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 세력전을 달성하는 실질적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제3장 전쟁의 원인과 경과

### 제1절 전쟁의 배경과 원인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국력성장을 이루던 일본은 국익의 시선을 대륙으로 돌리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쟁탈전에 돌입했다. 동북아의 지역체제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사실상 중국 중심의 ‘화이사상’(華夷思想)에 의해 이끌어져 왔었다. 그러나 중국은 아편전쟁을 비롯한 외세의 큰 물결에 빠져들게 되면서 국내적으로도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4년에 발생한 청일전쟁으로 인해 동북아의 힘의 축은 서서히 전승국인 일본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었다. 또 당시의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추구하면서 중국을 분할하려는 경쟁에 돌입하면서 일본도 여기에 하나의 열강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1895년 4월 17일에 하관조약을 체결하여 랴오둥 반도와 대만을 할양받고 한반도에서 청의 세력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야심은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부딪치게 되면서 1895년 4월 23일 러시아가 주도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에 의해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1898년에 이르자 청으로부터 뤄순과 따렌을 조차하고 부동항 블라디보스톡을 대체할 수 있는 뤄순을 군항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군사력을 파견한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이 진압된 후에도 그대로 주둔하자 일본은 미국, 영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철군할 것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1차 철군만 실시하고 계속 주둔하였다.

러일전쟁은 서구 열강들의 집중적 조명을 받으며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예방전쟁이었으며 지역패권의 자리를 두고 격전을 벌인 서양과 동양,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와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본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 전쟁들 중에서 임진왜란 및 태평양전쟁의 사례를 연계하여 생각하면 가장 근접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sup>72)</sup>.

삼국간섭에 의해 랴오둥 반도를 반환한 이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적대심을 품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일전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위협으로 인식하던 영국과 1902년 2월 1일에 영일동맹<sup>73)</sup>을 체결하였다. 영일동맹이 체결됨에 따라 러시아는 강경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일본과 만주 및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만주에서 철군하고 한반도에서의 일본 이익을 인정하며 일본의 상업상 진출을 허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만한교 환론’을 제시하면서 양보의 자세도 취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만주에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일본 이익 보장도 러시아의 만주 이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한반도의 39°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설정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1904년 2월 4일 일본 어전회의에서 대 러시아 전쟁이 결정되

---

72)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지상군 중심의 군사력을 편성하였으며 수군은 수송병참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지상전에서는 많은 승리를 하였으나 해전에서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에게 연전연패하였다. 러일전쟁 이전 일본은 강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군력이 열세하여 영일동맹이라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비를 갖추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은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듯하였으나, 결국 해군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수행한 전쟁에서 공통점은 ① 국내적 상황과 연계된 대외 팽창, ② 선제공격 또는 예방전쟁 차원에서의 기습 공격, ③ 전쟁승패에서 해군력의 중요한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73) 이 동맹은 영일 양국이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에서 체결되었다.

면서 2월 5일 마침내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교단절을 통보하였다. 일본 해군은 2월 8~9일에 인천항과 뱃순항의 러시아 해군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한 후, 2월 10일에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나즐리 초클리((Nazli Choucri)와 로버트 노스(Robert North)는 “측면적 압력이 크면 클수록 국경선 밖으로 국가행동을 확장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74)</sup>.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히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한된 영토와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만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여기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를 위협인식과 국력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위협인식에 있어 대내적 위협이란 국내의 측면적 압력이 될 수 있고, 대외적 압력이란 러시아와의 대립이었다. 국력증대 측면에서는 국내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급속한 성장이었으며, 국외적으로는 동맹결성을 통한 신속한 국가 위상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에서 비롯된 강한 측면적 압력과 점증하는 국력에서 비롯된 일본 지도자들의 자신감이 어우러져 일본인들의 삶의 공간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시 대두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근간이 되었고 히틀러 치하 독일식 삶의 공간(Lebensraum) 투쟁과도 같은 것이었다<sup>75)</sup>.

어떠한 싸움이든지 싸워야하는 이유와 싸우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 즉 동맹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고 선제공격·예방전쟁을 위한 기습공격 등을 모색할 수도 있다. 싸워야할 이유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어 승산이 없다면 전쟁을 할 수가

---

74) Nazli Choucri and Robert North,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 205.에서 재인용

75) 강성학, 전제서, pp. 206-207.

없다.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군사적 능력과 외교적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개전에 앞서 일본은 지상군의 능력은 갖추었으나 해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군사적 능력을 키웠다. 주로 영일동맹에 의해 성장한 일본해군은 러일전쟁 초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지상군이 안전하게 상륙하여 연전연승토록 하였으며, 말기에는 전쟁의 대미를 장식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해군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개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맥락에서 해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해전경과

### 1. 주도권 확보 : 기습공격

일본은 1904년 2월 4일,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하였다. 러시아와의 일전을 앞둔 일본의 전쟁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인천항에 지상군을 상륙시키는 것, 뤼순항에서 러시아 선박에 대해 어뢰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뤼순항 앞바다에서 러시아의 함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sup>76)</sup>. 이에 따라 러일전쟁은 인천항에 대한 지상군 상륙과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었다.

#### 가. 인천항 기습공격

인천작전을 명령받은 제4전대(장갑순양함 1척, 순양함 5척, 2개 어뢰정 전대)는 육군병력 2,200명을 실은 수송선 3척을 호송하여 2월 8일 오후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일본 제4전대 사령관 우리오는 인천항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

76) George Gond, *Admiral Dogo*, trans. by Edward Hyams, New York: Macmillan, 1960, p. 160.

함정 2척(순양함 Variag와 포함 Korietz)을 외해에서 격파하기 위해 2월 9일 정오까지 인천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2월 9일 12시 20분에 Variag가 출항하자 외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 순양함들이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 함정들은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일 오후에 각각 자침하였다.

인천항 기습공격은 규모 면에서는 매우 작았지만, 전략적으로는 해양통제권의 장악과 지상군의 안전한 상륙을 보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나. 뤼순항 기습공격

일본의 연합함대는 2월 8일 저녁에 뤼순항 외해에 도착했다. 연합함대사령관은 뤼순 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전함 7척과 순양함 9척을 발견하였고 9일 자정이 지나자 3개 구축함분대를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전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태세로 일관하던 러시아의 뤼순함대는 별다른 반격 없이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일본이 발사한 총 18발의 어뢰가 러시아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에 2개월 정도의 수리를 요하는 경미한 손상만 입혔다.

비록 일본은 구축함분대의 전투력 미흡으로 인해 확실한 전과를 올리지 못함으로써 기습공격 작전에서 전술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략적 성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77)</sup>. 그 이유는 이 기습공격으로 말미암아 뤼순함대가 항구 밖의 외해로 출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본해군이 황해의 해양통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육군의 주력이 조기에 한반도에 상륙하고 러시아 육군보다 먼저 남만주에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

---

77) 김태준, “해전사를 통해 본 고급리더십,” 제정관 외, 『고급리더십』,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6호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p. 211.

## 2. 제해권 확보

여기서의 제해권이란 제한된 제해권을 말하는 것으로 함대결전에 의한 완전한 제해권의 확보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개념이다. 이러한 제한된 제해권이 함대봉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본 해전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일본이 함대결전사상을 가지고 탈출을 시도하는 러시아를 격파하였으나, 전략적 평가에 있어서 기본 개념은 함대봉쇄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 가. 뤼순항 봉쇄와 공격

일본 연합함대는 뤼순함대와 함대결전을 원했으나 뤼순함대는 요새함대전략을 고집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일본의 연합함대는 항내에 고립된 뤼순함대를 격멸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함포사격에 이어 상선침몰과 기뢰에 의한 함대봉쇄로 이어졌다<sup>78)</sup>.

2월 9일 주간부터 실시된 일본 연합함대의 함포사격은 러시아의 해안포대와 뤼순함대의 반격으로 인해 근거리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함포의 사거리가 제한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은 뤼순함대를 항내에 일시적으로 묶어둠으로써 제한적 해양통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해상에서의 절대적 해상통제권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일본은 뤼순함대를 항내에 완전히 고립시켜 격멸시키기 위해 함대봉쇄전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함대봉쇄는 상선에 의한 항만폐색작전과 기뢰에 의한 항만봉쇄작전으로 이어졌다. 먼저 3차에 걸쳐 실시된 항만폐색작전은 항만입구에 상선을 침몰시켜 러시아 함정의 출입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지만 해안포대의 공격, 악천후, 도중 좌초 또는 자침 위치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

78) 김태준, “쓰시마 해전 승패에 대한 분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軍事史研究叢書』. 제4권(2004). pp. 156-157.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sup>79)</sup>. 이에 일본은 기뢰에 의한 항만봉쇄작전으로 전환하여 4월 12일 야간에 기뢰를 부설하였다. 다음날 뤼순함대의 기함인 Petropavlosk가 기뢰접촉으로 침몰하여 사령관 마카로프(Stepan O. Makarov) 제독과 600여명의 장병들이 전사함으로써 전과를 거두는 듯하였으나, 러시아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해 일본의 전함 하츠세와 야시마도 침몰하고 말았다. 일본의 연합함대는 적극적 해양통제전략을 구사하였지만 제한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일본은 전함 6척 가운데 2척을 상실하여 극동 해역에서의 전함의 수는 러시아가 일본에 비하여 6 : 4로 우세하게 되었다.

마카로프 제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비트게프트 소장은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함대결전을 추구하지 않고 수세적인 요새함대전략으로(즉, 방어태세로) 일관하였다. 그는 발틱함대가 7월경에 뤼순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항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세력을 유지한다면 우세한 세력으로 일본의 연합함대를 격멸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일본해군은 발틱함대가 도착하기전에 뤼순함대를 격멸시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뤼순함대를 빨리 격멸시켜야만 충분한 전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발틱함대와 결전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나. 황해해전

1904년 8월 10일 산둥반도 북방해역에서 전개된 황해해전은 뤼순항을 탈출하려는 러시아의 뤼순함대와 이를 격멸하려는 일본의 연합함대 사이에 벌어진 해전이였다.

비트게프트 소장은 8월 7일 니콜라이(Nicholas II) 황제로부터 “전 함대를

---

79) 1차 폐색작전은 1904년 2월 23일에서 24일까지 2일간 폐색선 5척에 의해 실시되었고, 2차 폐색작전은 3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간 폐색선 3척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마지막 제3차 폐색작전은 5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간 폐색선 12척에 의해 실시되었다.

인솔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고 8월 10일 오전에 뤼순함대를 지휘하여 출항하였다. 순양함 1척과 구축함 8척이 먼저 출항하였고 이어서 전함 6척과 순양함 3척이 출항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연합함대사령관 도고 제독은 전함 4척과 장갑순양함 2척, 순양함 8척과 구축함 18척, 그리고 어뢰정 30척을 집결시켰다<sup>80)</sup>.

연합함대의 주력은 뤼순함대의 항로에 차단기동하여 13시에 첫 원거리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비트게프트의 뛰어난 회피전술에 의해 일본은 4시간 동안 제대로 기동을 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 뤼순함대의 전함 Retvizan이 수면하 손상<sup>81)</sup>을 입었고 비트게프트는 15시경 함대 속력을 14노트에서 12.5노트로 감속하였다<sup>82)</sup>.

속력이 우세한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여 포격을 재개하였으며 러시아의 기함인 Czarevitch의 함교가 명중되어 사령관 이하 전원이 사망하면서 뤼순함대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뤼순함대는 분산하여 도주하였으며 뤼순항에 입항한 것은 전함 5척과 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3척이었다. 기함인 Czarevitch는 순양함 1척 및 구축함 3척과 함께 교삼만(膠州灣)에서, 순양함 1척과 구축함 1척은 상해에서, 순양함 1척은 사이공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반면 일본은 기함 미카사에 10여발이 명중되어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었다<sup>83)</sup>.

뤼순항에 입항한 러시아 함정들은 그곳에서 수리되었으나 다시는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잔여 함정들이 뤼순항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뤼순

---

80) 김태준, “쓰시마 해전 승패에 대한 분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軍事史研究叢書』. 제4판(2004). p. 160.

81) 2월 9일의 기습공격, 4월의 좌초, 8월 9일의 유탄으로 인한 침수

82) 상계서, p. 161.

83) 상계서, p. 162.



항의 함락과 발틱함대의 도착 중 무엇이 선행하느냐 하는 것이 전략상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은 육해 합동작전<sup>84)</sup>을 실시하였는데, 1904년 12월 5일 육군의 뤼순항 배후공격으로 203고지를 점령한 다음 항내의 러시아 함정에 포격을 가하여 12월 9일에 모든 함정을 격침시키거나 자침시킴으로써 1905년 1월 2일에 뤼순항을 함락하는데 성공하였다.

#### 다. 울산해전

황해해전에 이어 1904년 8월 14일에 전개된 울산해전은 뤼순함대의 탈출을 지원하려는 블라디보스톡 함대와 이를 차단하여 격멸하려는 일본의 제3함대가 교전한 해전이었다.

블라디보스톡에 기지를 둔 러시아의 장갑순양함 3척은 일본군의 교통신을 위협하고 동시에 일본함대를 견제하였다. 뤼순함대의 탈출과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남하에 대비하여 대한해협을 경비하고 있던 장갑순양함 이즈모, 아주미, 토기와 및 이와테 4척은 8월 14일 05시 09분 울산 근해에서 남하하는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장갑순양함 3척(Russia, Gromoboi, Rurik)을 발견하고 교전을 벌였다. 그 결과 러시아 함정 3척은 모두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이중 Rurik은 타기고장으로 진형을 이탈하면서 자침하였고, 나머지 2척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도주했다<sup>85)</sup>.

이로써 뤼순항에 입항한 함정들은 수리후에도 탈출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블라디보스톡 함대 역시 그후 종전시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

84) 이 작전의 최초 목적은 일본 육군이 요동반도에 상륙하여 뤼순항을 압박하면 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뤼순함대가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으며, 뤼순함대가 출항하면 일본 해군이 해상에서 이를 격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발틱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뤼순항을 함락해야 한다고 인식한 일본 해군이 육군에게 요청하면서 전개된 작전이었다.

85) 김태준, “쓰시마 해전 승패에 대한 분석.” 『軍事史 研究叢書』. 제4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218.

반도 주변해역의 제해권은 일본해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 3. 결정적 승리

#### 가. 발틱함대의 이동

연전연패를 거듭한 러시아는 제 2태평양함대로 편성된 발틱함대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함대사령관으로 임명된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1904년 10월 15일 리바우항을 출항하여 18,000마일의 원정항해를 시작하였다. 발틱함대는 연료공급 문제, 영국의 간섭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양항해를 하였다<sup>86)</sup>. 5월 23일 상해 근해에서 마지막 석탄보급을 받은 로제스트벤스키는 항해경로를 대한해협으로 결정<sup>87)</sup>하고, 야간 어뢰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일본 전투함대의 집중적인 차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쓰시마를 통과하기 위하여 순항속력을 8노트로 감속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일본함대와의 교전, 발틱함대의 블라디보스톡 입항,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차단과 블라디보스톡의 제한된 시설을 감안한 보조함선의 동행 등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전투계획은 전함전대가 전열을 형성하여 교전하고 순양함으로써 전함을 지원하거나 선단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연합함대는 발틱함대 격멸이라는 단일목표만을 가지고 철저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다<sup>88)</sup>.

86) 연료문제에 있어서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수리소와 석탄기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독일 선박회사의 석탄보급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영일동맹하에 일본을 적극 지지 하던 영국은 발틱함대가 도거뱅크 근해에서 영국어선을 일본 어뢰정으로 오인하여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격분하여 스페인 근해에서의 시위기동, 탕헤르 입항시의 봉쇄 위협, 일본에게 발틱함대의 이동정보 제공 등의 방해를 하였다.

87)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항로 가운데 쓰가루해협과 쓰야해협은 협수로, 안개 및 기뢰부설 가능성 등의 항해장애가 많았고, 1,000~1,500마일 이상의 항해가 요구되었고, 대한해협은 일본 함대가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으나 최단항로하였다.

88) 황해해전과 울산해전 이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일본 연합함대는 함정 정비, 구축함 및 어뢰정에 의한 야간공격 중심의 집중적인 기동 및 사격훈련, 작전참모 아끼야마가 구상한

## 나. 쓰시마 해전

일본의 주력 전투함대는 각각 6척으로 구성된 2개의 전대로 편성되었고, 발틱함대의 주력 전투함대는 각각 4척으로 구성된 3개의 전대로 편성됐다. 주요 전력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 비교

구 분	세력 구성	주력함 주요무장
일본 연합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전대: 전함 4척, 장갑순양함 2척</li> <li>· 제 2전대: 장갑순양함 6척</li> <li>· 보조전대: 순양함 12척(3개전대 각4척)</li> <li>· 기타세력: 구축함 21척, 어뢰정 44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척 : 127문</li> <li>(16×305mm, 1×254mm, 30×203mm, 80×152mm)</li> <li>* 시모세 화약 사용</li> </ul>
러시아 발틱함대 (제2태평양 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전대: 신형 전함 4척</li> <li>· 제 2전대: 전함 3척, 장갑순양함 1척</li> <li>· 제 3전대: 전함 1척, 장갑해방함 3척</li> <li>· 기타세력: 순양함 8척, 구축함 9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척 : 92문</li> <li>(26×305mm, 15×254mm, 8×203mm, 43×152mm)</li> </ul>

출처: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대전: 해군본부, 1999), pp. 153-155.

일본의 정찰선인 시나노마루가 5월 27일 4시 45분에 발틱함대를 발견하고 무전으로 도고 제독에게 긴급 보고하였다. 6시 30분에 진해만을 출항한 일본의 연합함대는 발틱함대와의 일전을 위해 쓰시마 동쪽으로 향했다. 27일 오전에 일본 순양함 전대가 발틱함대를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13시 30분경 종렬진을 형성한 일본 주력 전투함대가 북서 침로로 발틱함대의 7마일 전방을 횡단하였다. 이때 발틱함대의 주력 전투함대는 북종렬진을 형성하여 북북동 침

7단수비전법(발틱함대를 따라 북상하면서 4회의 주간전투와 3회의 야간 공격 감행) 마련 등의 전비태세를 갖추어 발틱함대를 격멸하고자 하였다.

로로 향해하는 가운데, 그 후방에는 순양함 전대가 뒤따랐고, 우측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전대가 위치하여 후방의 선단을 방호하고 있었다. 일본 함대가 출현하자 로제스트벤스키는 주력 전투함대에게 종렬진 형성을 지시하였다.

13시 55분 쓰시마 해전의 제1단계 교전이 시작되었다. 발틱함대의 좌현 함수방향에서 발틱함대의 역침로(남서 침로)로 향하던 도고제독은 14시 05분 발틱함대에 대해 'T'자 모양으로 선두를 압박하기 위해 갑자기 좌현으로 변침(敵前 大回轉, 일명 Togo Turn)하여 북동동 침로로 향하였다. 일본함대가 변침으로 인해 속력이 느려지자 호기를 잡은 Suvorov가 14시 8분에 7,000야드 거리에서 포격을 개시했지만, 그때까지 완전한 종렬진을 이루지 못한 발틱함대는 혼란스러운 진형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 발틱함대의 포격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일본 함대는 14시 10분부터 14노트로 향진하며 발틱함대의 선두함인 Suvorov와 Oslabya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Oslabya는 심한 손상을 받아 1시간 후에 침몰하였고, Suvorov도 전투력을 상실하면서 전열에서 이탈하였고,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는 중상을 입고 구축함으로 이송되었다.

제2단계 교전은 15시경부터 시작되었다. Alexander III를 선두로 한 발틱함대는 북북동으로 침로를 유지하고 계속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속력이 우세한 일본 전투함대에 의해 'T'자 기동으로 차단당했다. 그러나 발틱함대는 두 번의 시계방향 회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제3단계 교전은 17시 55분부터 도고가 직접 지휘하는 제1전대가 발틱함대를 좌현함수에 두고 양측이 북서진하면서 진행되었다. 먼저 공격을 개시한 도고의 제1전대는 발틱함대의 선두함을 집중적으로 포격했다. 집중포격을 받은 Alexander III는 19시경에 침몰하였고, 새로운 선두함 Borodino 역시 20분 후 침몰하였다. 그 결과 발틱함대의 주력이었던 신형 전함 5척 가운데 4척이 격침되었다.

제4단계 교전은 네보가토프가 3차 교전의 생존자를 구하고 혼란에 빠진 발틱함대를 지휘하여 북상으로 패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20시 30분경 일본 구축함 분대와 어뢰정 전대가 야간 어뢰공격을 개시하여 전함 Navarin과 Veliki, 그리고 장갑순양함 Nakhimov을 격침시켰다.

다음날인 28일 오전에 재개된 제5단계 교전은 울릉도 동남해역에서 실시되었다. 일본의 연합함대가 도주하는 잔여 발틱함대 세력을 포착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자 네보가토프는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이로써 쓰시마 해전이 종료되었다.

해전의 결과, 러시아는 발틱함대의 53척 가운데 주력함 7척이 격침되었고 그 외의 함정도 격침, 침몰, 나포, 좌초, 항복 또는 중립국에 억류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것은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 그리고 보조함 1척뿐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피해는 도고의 기함인 미카사를 포함하여 10척만 손상을 입고, 격침된 것은 어뢰정 3척뿐이었다.

쓰시마 해전은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 동수로에서 시작하여 28일 울릉도 근해에서 발틱함대가 항복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해전은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발틱함대가 궤멸됨으로써 사실상 러일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해전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개입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sup>89)</sup> 러시아는 발틱함대가 패전하자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였으며 결국 1905년 9월 5일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

89) 강성학, 전게서, p. 296.

## 제4장 해군력이 러일전쟁 승패에 미친 영향

### 제1절 개인적 수준

개인적 수준에서 전쟁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하며 종료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전쟁을 결정·수행하는 지휘관의 심리적·성격적 측면에서 전쟁을 규명하는 것이다<sup>90)</sup>. 그렇다고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개인적 수준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쟁수행시의 전쟁지도부와 해전지휘관들의 개인적 성향과 인품 등 내면적 모습을 포함하여 탁월한 전략·전술적 역량과 고차적 리더쉽 등 개인의 외면적 능력까지 개인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가와 군사가들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저변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들의 의지와 지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전쟁지도부

전쟁 당시에 이미 세실 스프링-라이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러일전쟁은 예방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sup>91)</sup>. 그리고 전쟁에서 일본의 승산은 거의 없어 보였다.

---

90) 정치적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성격적 특성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직구조, 결정자의 인식,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잘못된 정보와 오관으로 인해 일본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전쟁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였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국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외적 여건과 군사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다.

손자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강조하였는데, 전쟁은 승산이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휘부가 개전을 결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 가. 일본 지휘부의 전략적 논쟁

### (1) 정치적 논쟁

일본은 삼국간섭에 의해 러시아에게 랴오둥을 반환한 이후 국내적으로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의 대립 또는 타협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러시아와 타협을 모색하려는 러·일협상론과 영국과 제휴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일동맹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논쟁 초기에는 1896년 5월 4일의 웨베르·고무라(Weber·Komura) 협약과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Lobanov·Yamagata) 협약<sup>92)</sup> 등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고 조선에서 각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일본은 1898년 로젠-니시(Rosen-Nish) 협의안<sup>93)</sup>을 성사시키는 등 러시아와 협상을

91) 강성학, 전계서, p. 579.

92) 야마가타는 이 협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내 세력권을 양분하되, 그 구분선은 북위 39도 선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Hilary Conroy,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pp. 323-325.

93) 이 협정은 러시아가 반대하는 만주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권리의 균형을 재확인했다.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러시아는 일본을 과소평가하며 국익에 저해될 수 있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러일협상과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정부는 1899년에 니시(西) 외상으로 하여금 만한교환론을 러시아에 제안했다<sup>94</sup>). 그러나 러시아의 군부는 조선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일본 권익을 보호하면 일본에게 대륙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청의 의화단 사건(1900년 6월)을 계기로 러시아가 병력철수를 거부하자 일본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주전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95</sup>). 이 후 러일협상과와 영일동맹과간의 논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러일협상과는 소수였지만 야마가타 아리모토(山懸有朋),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수상 등 유력한 원로의 지지를 받아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노선을 주도하고 있었다<sup>96</sup>). 그들은 영일동맹을 실현시키기 보다는 러일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먼저, 영국은 아직 ‘화려한 고립’(splendid isolation)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과 동맹을 체결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 둘째, 동맹을 체결하더라도 극동에서 일본이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점; 셋째, 일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형편에서 영일동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sup>97</sup>).

94) 이토는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으므로 러시아와 우호를 맺어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조선점령을 인정토록 하고 영국과의 경제경쟁에서 승리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강성학, 전계서, pp. 172-174.

95) 청나라에서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가 만주의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만주에 병력을 진입시켰으며 사건진압 이후에 병력을 철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병력철수를 거부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던 일본의 국내 여론을 자극시켰으며, 러시아와의 개전을 해야한다는 대러시아 주전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96) 김태준, 전계서, p. 341.

97)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 (東京: 鹿島研究, 1957), pp. 234-236.



한편 다수 강경파였던 영일동맹파는 니시(西) 외상,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주리공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영국과 제휴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는 주장을 하였다<sup>98)</sup>.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원로들과 실권세력에 밀려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1년 6월 이토 히로부미가 물러나고 강력한 영일동맹론자인 가쓰라(桂太郎) 수상이 취임하게 되었다<sup>99)</sup>. 그는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반대하며 전쟁도 불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교노선도 영일동맹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902년 1월 31일 영일동맹<sup>100)</sup>이 체결되었다. 영일동맹으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보다 강경한 외교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이후 1903년 러시아의 3단계 만주 주둔군 철수 문제를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의 협상은 급진전되었다. 결국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일본은 1903년 1월 13일 최후통첩을 러시아에 보냈고, 답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2월 4일의 어전회의에서 개전을 결정하였다.

98) W. G. Beasley, *The Modern History of Japan*,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62), pp. 166-170.

99) 가쓰라는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면 조선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통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에 호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를 만주에서 몰아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학, 상계서, pp. 172-174.

100) 1차 영일동맹은 일종의 방어동맹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국의 침략행위나 중국, 한국에서 야기된 소요사태로 계약국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간섭이나 양국의 이익이 위태롭게 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계약국의 일방이 전쟁을 하는 경우 타방은 중립을 지키고 다른 국가들이 일방의 적국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한다. (3) (2)의 경우 제3국이 참전하는 경우 계약국의 타방은 참전하여 그 일방을 원조하고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상호 합의하여 평화를 체결한다. (4) 계약국은 상호 협의 없이 위의 이익들을 해치는 합의를 다른 국가와 체결하지 않는다. (5) 상기의 이익들이 위태로울 때 양국은 서로 통보한다. (6) 5년간 유효하며, 폐기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1년전에 통보한다. 김용구 저, 『세계외교사』, pp. 341- 342. 즉 “일방이 하나의 적국과 교전할 경우 타방은 중립을 지키고 제3국이 적국에 가세할 경우에는 동맹국으로써 참전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일본은 총 3차에 걸쳐 동맹을 체결하였는데, 러일전쟁 이전에 맺어진 1차 영일동맹을 시발로 공수동맹인 2차 영일동맹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8월, 3차 영일동맹은 1911년 7월에 체결됨으로써 약 20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 (2) 군사적 논쟁

메이지 유신 이전 페리제독의 문호개방과 영국 해군전대의 가고시마 포격을 계기로 일본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까지 해군력을 국가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신생정부가 해양압력보다 심각한 국내적 반란상황에 부딪히면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육군을 강화하여 육군이 해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또한 당시 일본은 사활적 이익을 본토의 방어로 보고 해안선을 방어하였는데 방어임무는 주로 지상군에게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방어체계는 리쿠슈 카이주(rikushu kaiju: 육군이 주(主)가 되고 해군이 종(從)이 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육군이 일본 국가방위의 지휘권을 행사함을 의미했다<sup>101)</sup>.

이에 해군은 야마모토 곤베에를 중심으로 해군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해군은 일본의 국가안보가 육군과 해군의 균형된 발전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개혁(실력자 등용)과 조직개편(해군 총참모부 설립), 그리고 66함대<sup>102)</sup> 건설을 통해 위신을 갖추게 되었다. 해군의 급진적 도약은 영국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으며, 영일동맹이 체결된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처럼 청일전쟁 이전까지 육군에 주도권을 내 주었던 일본 해군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육군과 거의 동등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전략적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는 육군과 해군이 비교적 조화롭게 전쟁을 수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논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전쟁초기 군사력 운용에 관한 것이었고,

101) 데이비드 에반스 & 마크 패티, 『KAIGUN』, 김태준 역,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 22.

102) 해군력의 열세를 강조한 야마모토는 26만톤 해군력 건설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 계획은 2단계(1단계: 1896~1902년, 2단계: 1897~1905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66함대'가 탄생하였는데, 6척의 전함과 6척의 순양함을 갖게 됨으로써 10년 만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개전시기에 관한 것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준비된 시기가 청일전쟁 직후의 삼국간섭부 터라면 전쟁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준비는 영일동맹이 체결된 이후부터 였다. 영일 군사력 운용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에 걸쳐 영일 군사 협의가 일본의 요코스카(1902년 5월 20일)와 영국의 런던(1902년 7월 7일)에서 행해졌다<sup>103</sup>). 요코스카 진수부에서의 ‘영일연합작전방침’에서 결정된 사항 중 문제가 된 것은 ‘제해권의 획득’과 ‘육군의 운송’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에 관 한 것이었다. ‘제해권’에 중점을 두었던 영국과 일본의 해군은 확실한 제해권 의 확보 없이는 육군의 대륙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지상전’에 중 점을 두었던 육군은 제해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육군을 대륙으로 운송해야한 다는 주장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해상 야마모토 곤베에와 육상 테라우치 마사타케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지만, 테라우치가 결정을 회피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런던회의에서 그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런던에서 열린 ‘영일육해군연합합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의 목적은 적의 함대와 야전군을 격파하는 것이다.

둘째, 영일 해군의 강력한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하여 적 함대의 주력에 대응하고, 순양함을 이용하여 해상교통로를 통제한다.

셋째, 제해권을 획득할 때까지 육군은 공세작전을 행하지 않는다. 육군이 공 세작전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작전 목적은 전황에 의해 결정된다. 육군의 행동에 대한 공동 방안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기에서 합의된 연합작전 방침은 ‘주력함대를 집중하여 적 주력함대를 격 파한다’는 것과 ‘제해권을 획득할 때까지 육군의 공세작전을 대기시킨다’는 것 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해군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러시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육군은 군사협약에서 성립된 것

---

103) 黒野 耐, 『大日本帝國の生存戰略』(東京: 講談社, 2004), pp. 85-92.

에 추가하여 '적에 앞서 3개 사단을 가지고 한국을 점령한다.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 1개 사단을 가지고 한국의 한성을 점령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쟁개시의 시기를 두고도 논란은 있었다<sup>104)</sup>. 일본 육군은 조기에 해상 통제를 달성하기 바라면서 해군이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군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왜냐하면, 육군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된다면 유럽에 있는 러시아 지상군이 극동으로 옮겨 전력증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철도가 완성되기 이전인 1903년 1월 초에 전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해군 총참모부는 해군이 공격을 준비하고 유럽으로부터 이송되는 두 척의 순양함(가수가와, 니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연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군사준비 상황을 고려한다면, 육군이 주장한 가급적 빠른 개전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게도 유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해군의 입장에서는 만약 러시아의 해군력에 패배하여 제해권을 상실한다면 지상군의 대륙 상륙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 나. 러시아 지휘부의 전략적 논쟁

### (1) 정치적 논쟁

1894년 러시아의 황제로 등극한 니콜라이 2세는 열성적이긴 하였지만 자신감이 결여되어 단호함이 없었고 논쟁과 대립을 싫어했다. 1891년 황태자로서 일본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후 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상황을 확인한 그는 러시아의 국력만 믿고 자신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

---

104)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티, 『KAIGUN』, 김태준 역,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 122.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무장관 비테는 일본과의 무력충돌은 러시아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과 흑시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반대했었다<sup>105)</sup>. 그러나 비테를 견제하기 위해 니콜라스가 등용한 플레베(Plehve) 내무장관은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혁명의 물결을 막는 짧고 승리하는 전쟁”<sup>106)</sup>이라고 말하면서 극동을 국내의 정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정치적 대상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하던 베조브라조프(Bezobrazov)는 독일과 동맹을 맺어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하도록 함으로써 동양에서 영국에 대적하고 또 일본을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러시아는 극동 지방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107)</sup>. 이에 따라 영일동맹체결로 강경파가 후퇴하고 비테를 위시한 온건파가 대두하여 청국정부와 1902년 4월 ‘만주환부에 관한 러청조약’을 통해 3단계 철수를 약속하고 먼저 1단계 철수를 했었지만, 베조브라조프의 주장으로 인해 1903년 3월의 만주철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sup>108)</sup>.

결국 1903년 8월에 극동지역 총독청을 설치하고 다음달 9월 비테가 사임함으로써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팽창주의적 강경노선에 돌입하게 되었다.

베조브라조프의 ‘전진정책’(前進政策)으로 러시아는 1903년 8월부터 재개된 일본과의 교섭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sup>109)</sup>. 그러나 일본의 교섭자세도 점차 강경하게 변했고, 조선에 관한 한 어떠한 양보도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

105) David Walder, *The Short Victorious War*, (London: Hutchins and company, 1973), p. 43. 강성학, 전게서, p. 248에서 재인용.

106) *Ibid.*, p. 56.

107) 강성학, 전게서, p. 249.

108) 강경파인 베조브라조프 국무비서, 플레베 내상 등이 니콜라스 2세의 신임을 얻고 다시 실권을 장악하자 2단계철병을 반대하고 평텐성 남부와 지린 성 전역을 계속 점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만주와 조선을 계속 점령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모험주의가 러·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김용구, 전게서, pp. 432-433.

109) 베조브라조프는 독일과 협력하여 영국의 일본지원을 봉쇄하면 일본을 조선의 남쪽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歷史學會 編,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서울: 일조각, 1986), pp. 57-58.

으로써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04년 1월 12일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 (2) 군사적 논쟁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만주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극동의 군사전략이 대륙국가 군사전략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양국가의 군사전략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던 것이다<sup>110)</sup>. 해군력 증강론자들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의 군사전략을 지니고 있지만 극동에서 영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대립은 2회에 걸쳐서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sup>111)</sup>.

첫 번째 논쟁은 해군증강론자인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영국의 연해주 침입기도 차단과 러시아의 대양진출을 위해 해군력을 증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1896년 6월 “태평양에서 러시아 함대의 증강 필요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육군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 재무상 비테는 대륙국가 지향의 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보았다<sup>112)</sup>. 그는 대륙국가인 러시아가 해양국가인 일본의 정책을 모방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보다는 유사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

110) 자세한 내용은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 학보』, 한국시베리아학회, 창간호, 1999, pp. 117-122. 참조.

111) 자세한 내용은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관계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49-258 참조.

112) 비테의 생각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해군력 증강 정책의 입안에 대해 “첫째, 태평양상에는 일본 이외의 유럽의 다른 열강들이 적대국으로서 위협할 수도 있으며 그들이 연합함대를 형성하여 공격할 경우 러시아 해군은 이를 방어할 수 없다. 아울러 능력상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은 불가능하다. 둘째, 러시아의 적대국 위협은 태평양 외에도 발트해, 흑해 등에도 존재하므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방어 체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평양만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군력 증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심현용, 상계서, pp. 250-251.

하여 신속하게 군대를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러청 비밀동맹과 유럽국가(러·프·독)를 잇는 대륙동맹을 성립시키고자 하였다<sup>113)</sup>. 그러나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은 1897년 4월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지위에 관하여’라는 정책건의서에서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러일 대립시 청은 유럽국가들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으며, 프랑스와 독일로부터도 적극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태평양에서 영국의 우세한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동맹을 맺을 것을 역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논쟁은 연해주를 관할하고 있던 연아무르 군관구(병력 약 8만 명)와 휘순항이 있는 랴오똥 반도 조차지의 관동 군관구(병력 약 10만 명) 사이에서 동청철도와 그 주변 만주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쪽이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외무성과 육군성은 요동반도의 조차지역에 대한 경영방침을 해군력 확장정책과 분리하여 세우자고 한 반면, 해군성은 조차지에 대한 지휘체계를 자신들의 예하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황제 니콜라이 2세는 1898년 11월 ‘요동반도의 지휘체계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여기서 두바소프 제독<sup>114)</sup>은 극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때는 일본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므로 강력한 함대 보유와 요새화된 기지 건설, 그리고 태평양사령관 지휘하의 2개 항구에 대한 단일 지휘체계 구성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연아무르 군관구는 휘순이 군사지리적으로 너무 남쪽에 위치해 있어 러시아가 방어하는데 전략적으로 곤란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하여 내륙으

113) 이러한 주장은 영일동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공 이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114) 그는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전쟁은 “일본의 육군력 증강계획과 해군력 확장 사업이 완료되는, 늦어도 3~4년 이내에 일본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로부터의 물자수송이 어려우며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를 보호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비테는 프랑스 자본가와 러시아 이주민, 그리고 뤼순의 중요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관할권을 요동반도의 관동군 군관구에 두고 전직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 제독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 2. 전장지휘관

### 가. 일본 해군지휘관

일본 참모진들은 보불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탁월한 수준의 전술적 능력은 주로 프러시아의 육군과 영국의 해군제도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 (1) 도고 제독의 리더십

도고 제독의 개인적 성향을 살펴보면<sup>115)</sup>, 몸집이 장대하지도 않았으나 무서울 정도로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영국 상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영국의 국제적 위상과 저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청일전쟁 때 국제법을 위반한 영국 상선을 격침시킬 정도로 대담한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예하의 지휘관들에게 지휘권에 상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재량을 존중했지만 훈련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함포의 사격 기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작전은 천재가 해야 하는 것이지 계급이 높다고 해서 얕은 지혜를 가진 자가 작전을 계획하도록 해서는

---

115) 김태준, “해전사를 통해 본 고급리더십,” 『고급리더십』, 안보문제연구시리즈 제2집 6호,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p. 221-222.



안된다”고 하면서 사네유키에게 작전에 관한 전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T자 전술과 7단계 전법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합리적인 상황판단과 철저한 작전계획수립을 통해 독창적인 작전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도고제독이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발탁되는 과정과 이후에 벌어진 해전에서 그의 연전연승은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묵묵한 성품과 그가 행운을 지닌 지휘관이라는 것이 연합함대사령관으로 발탁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후의 해전에서 기습공격 작전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제해권을 확보하여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적 요소 이외에도 유형적인 리더십을 절묘하게 발휘했다. 도고제독이 발휘한 많은 리더십<sup>116)</sup> 중에서도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작전수행 능력이 주목을 받는다. 그는 제해권의 확보가 러일전쟁의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해권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1904년 2월 4일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개시가 결정되자 도고는 러시아 함대를 각개 격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과 뱃순항에 정박해있는 러시아 함정에 대해 기습공격을 개시함으로써 황해에서의 초기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도고제독이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일본해군은 조기에 일본 육군을 한반도에 상륙시킬 수 있었고 지상전이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둘째, 평시의 수준 높은 훈련을 통해 습득한 탁월한 전술적 능력이다. 그는 발틱함대의 격멸이라는 확고한 목표아래 진해만에서 장기간 동안 사격, 기동 및 야간공격 훈련 등 일체화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함대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부하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피나는 훈련

---

116) 김태준, “해전사를 통해 본 고급리더십,” 『고급리더십』, 안보문제연구시리즈 제2집 6호,(서울: 국방대학교, 2001), pp. 222-223.

을 거듭한 결과 나라의 존망이 걸린 해전에서 적전 대회전(일명 Togo turn)이라 불리는 T자 전법을 구사함으로써 유리한 전술기동을 펼치면서 발틱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 함대의 기동능력과 함포사격에서의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며, 러시아 발틱 함대의 취약점<sup>117)</sup>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연합함대의 뛰어난 기동력은 황해해전 시 뤼순함대에 대한 접촉을 상실했던 경험과 전술구사시에 대두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훈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하를 통솔 및 관리하는 지휘역량이다. 부하 장교들에게는 신뢰와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부하 병사들에게는 두려움을 떨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우선 장교들에 대해서는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부하장교를 신임하고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켰다. 그 결과 도고 자신은 황해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함대에 대해 위임 받은 카미무라 중장은 동해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으며, 쓰시마 해전의 작전을 전적으로 맡았던 사네유키는 완벽한 7단계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발틱함대를 궤멸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부하 장병들에게는 일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전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휘역량을 발휘했다. 이는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맞이하여 “황국의 흥망이 이 전투에 달려 있다. 각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적이 접근하고 있는 최고도의 긴장상황에서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신호기를 게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부하들에게 전투에 대한 자신감과 필승의 신념을 고취시켜 주었다.

끝으로 도고제독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일본이 뤼순항을

---

117) 발틱함대는 장거리 항해를 했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하였고, 전투준비가 미비하였으며, 전쟁의지 또한 많이 꺾여 있었다.

공격할 당시 러시아의 기뢰에 의해 일본 전함 2척이 침몰하자 부하들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를 도고제독에게 울면서 보고하자 그는 얼 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탁자 위의 과자를 권했다고 한다. 도고는 가슴속의 비탄을 억누름으로서 함대 전체에 퍼지고 있던 패배심리를 훌륭히 막아냈다. 반면 로제스트벤스키는 발틱항 출항 후 도그뱅크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들을 일본의 어뢰정으로 오판하여 함포를 발사하는 전투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도고 제독과는 달리 개인적 공포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로 보였으며, 부하들에게는 물론 세계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 나. 러시아 해군지휘관의 리더십

### (1) 뤼순함대 지휘관

러일전쟁의 해전에서 파악된 러시아 해군 지휘관들의 가장 큰 결함은 바로 러시아 해군전략과 전쟁준비태세의 미흡에 있었다. 우선 러시아의 해군지휘관들은 전통적인 대륙국가로서 당시 세계 2위의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학파의 해양전략 사상이었던 수세적인 해양전략을 도모하였다. 이는 일본 연합함대와 러시아 뤼순함대가 처음 조우했을 때 바로 발현되었다. 일본이 뤼순함대를 공격할 당시 러시아는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 기뢰를 부설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전함 2척이 기뢰에 의해 침몰되면서 러시아 전함의 수는 일본보다 수적 우위를 확보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공세적인 해군전략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수세적인 요새함대전략을 취함으로써 유리하게 조성된 전략적 여건을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둘째는 러시아 해군지휘관들의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일본 해군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경계세력을 제외하고 함상 무도회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장에서의 경

계심 부족은 평소의 훈련에서도 잘 나타났다. 러시아 해군들은 훈련 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자신감과 사기는 전쟁에서의 승패와 직결되는 것이다. 러시아가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거나 혹은 함상에서의 무도회를 기만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면 러시아는 제해권 확보를 위한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 (2)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리더십

발틱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sup>118)</sup>, 6척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참모형이었다. 그는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면서 집착한 나머지 큰 일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지휘관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주요 참모들에게 알리고 토의를 해야했으나 혼자만 생각하며 고민하였다. 그는 러시아 황제의 시종무관 출신답게 잔소리가 많았고 사물의 정돈에 민감하여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을 좋아했다. 그래서 포대에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병사를 구타했고 병사들이 규율을 어기는 것을 발견하고 싫어하는 충동이 비정상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보아 일군의 지휘관이라기 보다는 천성적인 헌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무관이면서도 문관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전투지휘관으로서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면 뤼순함대의 패배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발틱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할 것을 결심하고 지휘관을 선정할 때, 어느 누구도 자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원하였던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용기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함대를 이끌고 7개월 이상 18,000마일을 항해한 로제스트벤스키의 용기와 인내력은 인정받을만하다. 또한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관료적이었으며 실전적 전투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전장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지휘관

---

118) 김태준, 전계서, pp. 247-248.

이라면 그에 상응한 전략·전술적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낱 요행만을 바라는 무능한 지휘관일 뿐이었다. 한 마디로 그는 리더십이 결여된 지휘관이었다<sup>119)</sup>.

둘째, 전투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지휘관이었다. 전투경험이 없었던 그는 장기간의 항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함께 뒤편항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톡을 통과할 3가지의 항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이전에 일본 해군과의 조우와 결전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고 적절한 전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방 초계세력과 외교 통신망을 통해 일본 해군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해야했으나 그러한 노력도 없었다. 따라서 결전을 펼쳐야 할 쓰시마 해전에서조차 지휘관으로서의 전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본 전투함대를 보고서야 함대의 전투진형 형성을 지시하는 등 전술적으로 무능함을 노정하였다.

셋째, 그는 목표가 불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는 일본함대와의 교전, 블라디보스톡 도착, 그리고 선단의 방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마한이 설파한 ‘단일화된 목표’를 갖지 못하였고, 이는 전략적 혼선을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항로를 선택하는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도 착오를 보였다. 3가지의 항로 중에 최단거리의 대마도 동방 항로를 대낮에 통과하려는 것은 결정적 실수였다.

또한 그의 계획은 일본의 연합함대를 조우하면 전투를 하고 조우하지 않으면 무사히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지만, 러시아의 국운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국면을 안일하게도 운명에만 맡긴 것은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책이었다. 오히려 최단항로 또는 최장항로로 기동성이 우수한 기만세

---

119) 김태준, 전게서, p. 226.

력 2-3척을 보내어 일본해군을 유인하고 나머지 주력부대는 다른 항로를 택했다면 그의 계획은 아주 쉽게 달성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우수한 기동성을 지닌 기만세력들은 다수의 함정으로 구성된 연합함대를 따돌린 후 블라디보스톡 근해에서 합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일본의 해군지휘관들과는 달리 부하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했다. 예상보다도 더 길었던 항해에 지쳐 이동 중의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즉 목적항해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였던 것이다.

### 3. 국민 의지

수많은 희생을 통해 확보한 요동반도를 3국간섭으로 환부한 이후 일본인들은 거국적으로 1904년까지 줄곧 대러시아 전쟁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여러 애국단체들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개전을 촉구했으며 다수의 언론도 참여하여 침략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일본이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떠맡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의 전비는 18억 2,629억 엔에 달했는데, 국민들에게 부과된 증세(地租, 營業, 所得稅)와 국채를 통해서 조달되었다.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가하였는가 하면 전쟁기간 동안에는 축첩회<sup>120)</sup>를 통해 전쟁에서의 필승의 자신감을 배양시켰다.

---

120) 일본의 전승보가 전해질 때마다 시내 곳곳에서는 제등행렬, 깃발행렬, 불꽃놀이 검술시합 등을 포함하는 축첩회가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에게는 음식물이 제공되었다. 일본인들은 축첩회와 구경거리에 끼어들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참여의식을 공유하고 필승을 다졌다. 加藤陽子, 전계서, pp. 156-157.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인 대부분은 정부의 극동정책과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장병들도 필승에 대한 신념이 부족했다. 1904년 2월 뤼순에 대한 일본의 기습공격은 러시아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극동진출에 대한 정당성을 이해시키지 못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 제2절 국가적 수준

국가적 수준에서 전쟁을 분석하는 것은 전쟁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는 것이다. 즉, 국가수준에서 전쟁을 고찰할 때는 국가의 속성을 다루게 된다<sup>121)</sup>. 국가의 속성은 포괄적인 조직체, 개인의 욕구와 목표의 실현, 국민 전체의 복지 추구 등으로 대표된다. 국가는 통상 합리적인 행위자로 간주되는데 이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국가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의미한다. 국가 간에는 상충되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여 이것이 국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 갈등은 전쟁으로 귀결되기 쉽다. 결국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의 행동은 그 국가적 특성 즉 정치체제, 경제체제, 지도체제, 구성원의 성향 및 국민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1. 해양전략의 목표

한 국가의 거시적 전략은 그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러시아는 대규모의 지상군뿐 아니라 해군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대륙국가 중심의 전략사상이 지배하였고,

---

121) 윤종욱, “전쟁원인론으로 본 이라크전(‘03),” (서울: 국방참모대학, 2004), pp. 7-8.

이는 그들의 해양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에 비해 열세였으나 내전으로 강하게 육성된 지상군과 전통적인 해양국가로서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간에 발생하는 전쟁은 바다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제해권의 확보가 필수적인 관건이다. 왜냐하면 해양국가의 입장에서 대륙국가를 침공하고자 한다면 해전에서의 승리로 제해권을 확보한 다음 지상으로의 군사력 투자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륙국가의 경우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양국가에 대한 침공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가. 일본

1904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전체 군사력을 비교하면 러시아가 크게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다만 일본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영일동맹에 힘입어 막강한 해군력을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러시아와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에 비해 열세한 상태에서 일본이 전쟁에 돌입한 것은 치밀한 판단에 의한 계산된 모험이었다<sup>122)</sup>.

개전에 앞선 일본의 전략적 판단은 첫째 러시아군의 극동집중이 곤란하다는 것, 둘째 러시아군의 전쟁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것, 셋째 시베리아 철도의 미완성, 넷째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만주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 다섯째 일본의 함대가 러시아의 극동함대보다 우세하며 발틱함대의 이동이 곤란하다는 것, 여섯째 러시아군의 군수물자 부족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 일곱째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 등이었다<sup>123)</sup>.

---

122)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al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李允熙, 金得柱 공역, 『해군전략론』 (서울: 동원사, 1974), p. 324. ; 參謀本部, 『明治三十年八年 日露 戰事』 (東京: 亞南堂書店, 1977), pp. 91-92.



1903년 일본 참모본부의 대 러시아 작전계획에 따르면, 만주에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러시아의 유럽전선 방어, 시베리아철도의 수송능력, 만주의 현지 급양능력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파병할 수 있는 육군병력은 25-30만 정도로 예상하고 일본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전투할 수 있으며, 해군은 극동에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러시아 함대보다 우세하지만 러시아의 증원함대가 도착하면 러시아가 우세할 것이라 판단했다<sup>124)</sup>.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본은 전쟁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였는바, 일본의 전쟁목적은 첫째로 조선에 대한 위협배제에 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군사적 승산을 노리며, 둘째로 만일 육상에서 전세가 불리해진다면 최소한 일본 본토침공을 저지하는 것이었다<sup>125)</sup>. 일본은 국가차원의 대전략을 설정한 다음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구체적인 방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군사분야의 해군전략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작성되었다.

- 첫째, 개전과 동시에 육군 수송을 가능하게 하고 그 선제 전개를 지원한다.
- 둘째, 육군작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군은 반드시 결정적 승리로 전쟁종결의 계기를 만든다.
- 셋째, 적 섬멸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적이 잔존하는 한 우리도 견제하다는 것 등이었다<sup>126)</sup>.

123)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事』(東京: 原書房, 1974), p. 324. 임인수, “해양우세가 전쟁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1991)p. 23에서 재인용

124) 藤原彰, 상계서, p. 126.

125) 外山三郎, 전계서, p. 284. ; 參謀本部, 전계서, pp. 91-114.

126) 外山三郎, 전계서, p. 284-285. ;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일본의 해군전략 개념 중 세번째 개념을 통해 일본의 해군전략개념이 현존함대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일본은 극동에서는 해군력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전체적인 해군력에서는 매우 열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개념적인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러일전쟁 중 일본은 지속적인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전략은 함대결전과 해상봉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현존함대전략 개념은 오히려 러시아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일본의 당면 전략목표는 제해권을 획득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에 대한 기습공격 등 공세작전을 실시하여 조선과 청나라에 있는 경비함정들을 격파하는 것이었다<sup>127)</sup>.

삼국간섭에 의한 라오똥 반도 반환 이후 대러전쟁을 준비해온 일본은 전력상의 열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전쟁에서의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한반도 근해의 제해권 장악)를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함대결전과 함대봉쇄 전략)을 설정하였고 최적의 수단(영일동맹을 통해 건설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거의 완벽하게 전장에 적용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뤼순과 블라디보스톡에 각각 분리되어 있었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내선을 활용한 작전 시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 나. 러시아

만주와 조선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가운데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철군을 거부하자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일본과의 일전 가능성에 대비해 전쟁 방침을 수립하였다. 1901년 8월에 수립된 이 방침은 “일본이 러시아 영토 및 만주에 진격하지 않는 이상 공세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 육·해군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한다. 다만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때까지 가급적 결전을 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28)</sup>.

이러한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극동의 전력이 약하다는 스스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는 자만하고

---

127) 參謀本部, 『明治三十八年 日露 戰事』 (東京: 儼南堂書店, 1977), pp. 114-118.

128) 外山三郎, 전계서, p. 157.

일본을 너무 무시하여 단점을 보완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숨기려 함으로써 전쟁에서 패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본다. 일본이 러시아의 취약점을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할 때,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너무 기대를 하던 러시아는 철도의 완공 전에 전쟁을 개시하여 종료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일본에게 예방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은,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일본 육군은 한반도 남부에 상륙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을 경유하여 남만주까지 진격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러시아의 병력집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러시아 지상군은 일본 지상군이 라오둥 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반도로 들어오는 일본 지상군만을 고려하였다.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중의 하나는 러시아 해군의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제해권 확보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해양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였으며 또 일본이 제해권을 획득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러시아 해군은 다음과 같은 태평양함대의 극동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함대임무로써 발해, 황해, 한반도 남부 일대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한다.

둘째, 한국의 인천 및 압록강에 일본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러시아 육군의 묵텐, 요양 집결을 지원한다.

셋째,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러시아 함대를 양분하여 배치하며, 주력을 뤼순에 대기시켜 일본군의 황해 이동과 조선 상륙을 저지하고, 잔여세력을 블라디보스톡에 배치시켜 일본군의 후방교통로를 차단하고 일본 연안을 위협한다<sup>129)</sup>.

---

129) 外山三郎, 전계서, p. 158.

이와 같이 러시아 해군은 긴장이 고조되는 초기에는 매우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휘부의 안일한 생각과 오만함이 노정되었다. 육군과 해군의 핵심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보에 가장 능통해야 할 일본주재공사조차도 일본의 의도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sup>130)</sup>. 당연히 전쟁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쟁 수행의 기본은 전략이며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전략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그러나 제해권을 장악하겠다는 러시아 해군은 일본의 기습공격 당시 결전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요새함대전략을 취하였다. 수세적 전략을 선택한 러시아는 제해권을 상실함으로써 일본 해군의 황해 이동과 조선에 대한 상륙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어 전장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확대되었다.

## 2. 해양통제의 방법 : 해군전략

### 가. 일본의 해군전략

야마모토 곤베에는 1896-1897년의 확장계획의 목적이 일본 주변 해양국에 대한 해양 통제권 확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장갑순양함으로 구성된 주력 전투함들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해군은 당시의 마한이 주장한 것처럼 제해권의 확보와 주력 전투함을 이용한 결전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던 것이다<sup>131)</sup>.

---

130) 이러한 예로 러시아 육상(陸相) 쿠로바트킨의 일본방문시 일본이 개전한다면 러시아의 300만 상비군으로 일본본토를 공격하여 동경을 점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주일공사관에 근무하던 러시아 무관 완노수우키 대령도 일본육군이 서구국가의 가장 약한 군대수준까지 발전하는 데도 약 1세기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外山三郎, 전계서, p. 136; 태평양 함대사령관 스탈드 제독도 휘순함대가 전멸하지 않는 한 일본의 한국북부나 랴오둥 반도 상륙은 불가능하며, 휘순함대가 일본함대에 격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장담했다. William Oliver Stevens & Allan Westcott, *A History of Sea Power*,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서울: 연경문화사, 1979), p. 290.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에 앞서 해상통제권의 확보라는 명확한 해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쟁 기간동안 일본해군의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끌어주었다. 이는 일본이 선택하였던 함대결전 전략과 함대봉쇄전략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sup>132)</sup>.

일본의 해군전략은 러시아 극동함대의 전략적·지리적 결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함대결전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전쟁발발 후에는 뒤통수 함대에 대해 해상봉쇄전략<sup>133)</sup>을 취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의 불리해진 전세와 더불어 당시 러시아 해군의 요새함대전략 때문에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 (가) 함대결전전략

앞서 살펴본 일본의 해군전략 3가지 중 세 번째인 “적 섬멸작전을 기본으로 하여 적이 잔존하는 한 우리도 건재하다는 것”은 현존함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공세적 해양통제권 확보방안인 함대결전 전략과 함대봉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34)</sup>. 일본은 적

---

131) 이러한 일본의 인식은 당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을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894-1895년에 육군의 수송 방편으로 주로 함대를 이용하였다. 프랑스는 습격세력으로서 함대를 인식하였고, 러시아는 지방으로 분산된 해군 지휘부라는 측면에서 해군력을 간주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sutsui, *Nihon kaigunshi*, pp. 59-59.

132) 함대결전, 현존함대, 해상봉쇄는 해상통제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방법이다.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집』(대전: 해군본부, 2004), p. 128.

133) 해상봉쇄란 해군력을 운용하여 전쟁 발발 전에는 적성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과 교통선의 차단 등으로 싸우지 않고 약화시킴으로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며, 전쟁 발발 후에는 전승을 위해 적의 항만, 해안 등을 차단하고 해상기동을 방해하여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134)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하나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전략을 근간으로 세력을 운용하는 전략은 전쟁상황의 전개와 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러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지두, 임인수 등 일부의 선행연구자들은 러일전쟁시 일본의 해군전략이 현존함대(Fleet-in-being)전략이라고 보고 있으나, 본 논

의 섬멸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고 육상으로 지상군의 전투력을 투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택했기 때문이다.

마한 역시 일본 해군의 승리요인을 해군전략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의 해군전략이 정확한 판단과 목적의 집중, 확고한 기동 등을 바탕으로 한 공세 작전과 ‘해군의 유일한 목적은 제해권에 있다’는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일본해군이 ‘해군의 목표는 적의 해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35)</sup>. 즉, 제해권 확보라는 해군의 목표 아래에서 함대결전을 통한 러시아 함대의 격멸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개전 초기에는 뤼순함대를 격멸하여 황해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은 물론 지상군의 상륙작전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종결 직전에는 일본 연합함대가 발틱함대를 격멸함으로써 러일전쟁을 종결짓는 협상에서 일본이 승리에 대한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만일 뤼순함대가 일본연합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결전전략을 추구했다면, 당시의 상호전력비는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일본함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로제스트벤스키의 발틱함대를 그렇게 무참하게 괴멸시키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함대결전전략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은 뤼순함대를 요새방어의 수단으로 전략시킴으로써 제해권을 일본에게 내주고 끝내는 항내에서 괴멸되고 말았다. 만약 일본과 필사적인 일전을 치루다가 뤼순함대가 전멸했다면, 그 결과 러시아의 만주지배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일본함대도 제해권을 확보하기

---

문은 오히려 러시아가 현존함대전략을 채택했다고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열세한 세력이 현존함대전략을 추구하지만 당시 일본은 열세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결전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하려고 한 반면, 러시아는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발틱함대가 증원되면 일본해군력보다 약 2배이상 되는 절대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공격하겠다는 의도에서 수세적으로 요새화된 기지에 대기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지연전략을 사용했다.

135)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Hilland Wang, 1957), pp. 340-342.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이며,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그렇게 처참하게 수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해군이 패배한 원인은 마한이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 해군이 열세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해군력의 운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136)</sup>. 즉 세력집중의 원칙을 무시하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과 뤼순으로 함대를 분리하여 운용했던 것과 시간을 벌겠다는 지연전략을 통해 함대를 수세적으로 운용한 점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비록 러시아는 일본 해군력을 양분시킬 목적으로 극동함대를 뤼순함대와 블라디보스톡 전대로 양분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해군에게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하고 말았다. 즉, 일본함대는 중앙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상호지원 하에 러시아 함대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전략적 판단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나) 함대봉쇄전략

해양봉쇄전략은 함대결전 전략과 함께 우세하거나 대등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개념이다. 이러한 전략의 구사에 따라 일본해군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함대봉쇄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지도 못했다. 러시아의 해안포대와 기뢰에 의해 항내 정박함의 사정권내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방향을 바꾸어 세차레에 걸쳐 상선을 이용한 폐색전을 실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기뢰에 의한 항만봉쇄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러시아가 부설한 기뢰에 일본 연합함대의 전함 2척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함

---

136) Alfred T. Mahan, *Ibid.*, p. 363.

의 수에서 '6 : 4'로 우세를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하지는 못했다.

일본에게 있어 함대봉쇄는 해양통제권 장악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으나, 적 함대 격멸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는 러일전쟁 당시의 무기체계와 전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함대봉쇄전략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뤼순함대를 항내에 고립시킴으로써 제한된 해양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육군운송 및 군수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 나. 러시아의 해군전략

러시아는 대륙국가로서 강력한 지상군을 유지하는 것이 군사적 전통이었다. 지상군 중심의 군사전략사상을 추구하다 보니 대륙학파의 해양전략사상이 주류를 이루었고, 따라서 해양거부의 전략기조를 가지게 되었다. 해양거부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하위의 전략은 지상으로부터 해상작전구역까지 거리대 별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최내측 방어는 함대가 요새의 일부로써 지상군을 지원하는 전략인 요새함대전략이고, 2단계인 연안까지의 방어는 지상군에 의한 육상방어에 중점을 두고 부가적으로 해군력이 연안을 방어하는 연안방어전략, 그리고 3단계인 근해이상의 해역에 대해서는 함대를 보존하여 적의 제해권 확보를 거부한다는 현존함대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통상과괴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러일전쟁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러시아의 해양전략은 현존함대전략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 함대 중에서 뤼순함대는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함대의 이동을 거부하고 한반도 상륙을 저지하려던 최초의 목표와는 달리 결전을 회피하고 항내에서 세력을 보존하여 발틱함대와의 함류를 통해 증강된 세력으로 일본 연합함대를 격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현존함대전략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해군 세력을 보존하면서 기지를 방어하려는 요새함대전략을 취하게 된다. 또한 블라디보스톡 함대는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통상



파괴전을 실시하여 일본의 군수선단과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펼쳤다.

<표 4-1> 러일전쟁시 러시아가 적용한 해군전략의 변화<sup>137)</sup>

구분	해전의 종류	해군 전략
전쟁이전	-	현존함대
전쟁초기 및 중기	뤼순봉쇄전, 황해해전	요새함대
전쟁말기	쓰시마 해전	현존함대

출처: 이정수, 『대해전』 (서울: 정음사, 1986), pp. 160-161.

#### (가) 현존함대전략과 요새함대전략

러시아 해군의 함대운용 개념은 전쟁 이전에는 제해권 확보를 위한 현존함대 개념을 지녔었다. 극동함대가 일본의 함대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일본을 과소평가한 러시아는 뤼순함대가 존재하는 한 일본 해군력은 제대로 운용될 수 없으며, 뤼순함대만으로 일본 함대의 이동과 지상군 상륙작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 연합함대가 뤼순함대에 기습공격을 가한 이후 실전에서는 요새함대(Fortress Fleet)전략<sup>138)</sup>으로 바뀌었다. 러시아 해군은 요새함대 전략사상

137) 러시아의 해군전략에서 함대결전은 전장상황에 따른 사고의 변화였을 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러시아의 전략사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요새함대전략사상은 당시 러시아의 주류 해군전략이었을 뿐 러시아 해군전략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38) 요새함대전략이란 함대가 해상결전을 회피하고 해안기지의 보호 하에 있다가 유리한 시기, 즉 함대가 접근해오면 해안포와 협동하여 격파한다는 해군력 운용개념으로써 해양통제권의 획득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수세전략개념이다. 즉 함대는 지상전의 보조수단이자 요새의 일부로서 인식되어 적 함대로부터 요새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의 우세를 만회하고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결전을 피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현존함대전략과는 개념상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해설집』 (대전: 해군본부, 2004), p. 126.

에 져서 오직 요새를 지상(至上)의 것으로 생각했으며, 함대도 요새에 의존하여 해상방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39)</sup>. 그 예로 뤼순외항에 정박중이던 러시아의 뤼순함대가 일본의 기습공격을 받고도 즉각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전쟁지도부가 함대에 내린 명령은 일본함대와의 결전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뤼순항내로 피항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러시아 해군은 해군함정을 요새방어의 한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패배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는 제해권을 위한 함대결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당시의 해군전략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러시아 해군이 전쟁 초기에 전략개념을 바꾼 것은 전쟁지도부의 영향이 매우 컸다. 비록 러시아의 해군력이 세계 3위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군부는 전통적으로 육군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육군중심의 전략사상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해군전략 역시 육군중심의 방어전략인 요새함대전략을 취했던 것이다<sup>140)</sup>.

요새함대 사상은 근본적으로 방어를 위주로 하는 수세적 사상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더욱 중요시되었고, 함대의 존재는 무시되다시피 했으며, 함대의 기본특성인 기동성을 살려 공세적으로 목표를 침공하는 공세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sup>141)</sup>.

러시아는 수세적인 요새함대전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함대전략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sup>142)</sup>. 요새함대전략을 취하긴 했으나 발틱

---

139)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New York: Hilland Wang, 1957), 이윤화·김득주 공역 p. 312.

140) 수많은 외침에 시달려온 러시아 육군은 방어 위주의 전략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군사전략사상이 해군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군력은 요새를 방어하는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141) Alfred T. Mahan, *Ibid.*, p. 318.

142) 현존함대전략과 요새함대전략은 모두가 해군력(함대) 운용개념으로서 상호 상반되는 개념만은 아니다. 오히려 수세적이면서도 공세적인 개념을 갖춘 현존함대전략은 요새함대전략과 함대결전 및 해상봉쇄 전략개념의 중간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함대를 보존시킴으로써 두 함대가 합류한 후의 증강된 해군력으로 일본 함대를 격파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비록 일본이 해양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뤼순함대의 존재는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일본의 해상봉쇄전략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뤼순함대의 항내 고립으로 해상통제의 주도권을 잡은 일본이 지상군의 상륙을 쉽게 이루어 낸 후 뤼순의 203고지를 점령한 일본 지상군과 항만을 봉쇄하고 있던 일본 해군이 합동공격을 개시하였고, 뤼순함대는 요새는 물론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궤멸되고 말았다. 요새함대전략은 실로 패배의 크나큰 원인이었다.

#### (나) 현존함대전략으로서의 통상파괴전

러시아 해군은 19세기 중엽 콘스탄틴 대공이 해군총감에 취임하여 조직의 개혁과 증기군함의 증강, 장교의 양성, 급양의 개선 등으로 근대해군을 건설하였는데, 전략목표는 주로 연안방어형의 군함정비와 통상파괴전이라는 2개의 전략으로 구상되어 있었다<sup>143)</sup>.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타르크 중장은 개전에 앞서 주력부대를 뤼순에 배치하고, 잔여세력(장갑순양함 2척, 순양함 3척, 수뢰정 27척)으로 함대를 만들어 블라디보스톡에 전개시켰다. 이 세력의 주요 임무는 일본의 후방을 교란하는 통상파괴전이었으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원거리 항해가 가능한 고속함정들을 중심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

#### <표 4-2> 블라디보스톡 전대 세력의 제원

러나 현존함대전략에 대한 학계에 통용되는 것은 함대결전 및 해상봉쇄와 더불어 제해권 또는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143) Kazutoshi Hando, "Russian Vladivostok Fleet in the Russo-Japanese War," 世界の艦船, 349호, (東京: 海人社, 1985), pp. 84-85.

구 분	장갑순양함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평균속력(노트)	20.9	23.5	26.9	18.5
톤수(척당)	6,500-13,900	3,200	240-350	17-120

출처: 世界 の 艦船, 349號, (東京: 海人社, 1985), p. 87.

블라디보스톡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은 베즈브라조프 중장이었다. 이 함대는 일본 군수보급선단의 대륙수송을 저지하는 수송차단작전과 일본 연안을 위협하는 후방교란작전 외에도 일본함대를 양분시키면서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러시아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통상과괴전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해군전략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전략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여 러시아의 작전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대비책도 강구하지 못했다.

개전과 동시에 작전을 개시한 블라디보스톡함대는 총 6회의 출동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일본함대가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톡 함대에 의해 작전에 제한을 받으며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들의 전장은 주로 대한해협과 동해의 원산근해였으며, 쓰가루 해협과 일본 남부해역까지 원거리 작전임무도 수행했다. 그중에서도 3차, 4차 및 6차 출동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3차 출동에서는 일본 병참선 금주환호를 원산 근해에서 일본 육군 100명과 함께 바다속에 잠재운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한척에는 공성포와 병기부속품을 적재하고 있었다. 뤼순항 공격을 위해 수송되던 각종 무기장비를 상실한 일본은 공격계획을 연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기에 뤼순항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뤼순함대와 발틱함대간의 협동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일본은 발틱함대의 조기 도착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강안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sup>144)</sup>. 4차 출동시에는 어뢰를 이용하여 일본함정 3척을 격침시켰고, 마지막 6차 출동 때에는 총

144) Alfred T. Mahan, *op.cit.*, p. 325.

9척을 격침 또는 나포하였다.

전쟁초기 일본은 대마도 기지에 제3함대를 배치하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전쟁이 경과되면서 블라디보스톡함대가 통상파괴전을 수행하자 일본은 제3함대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후된 소형함정 위주의 일본 제3함대는 기동성을 갖춘 대형함을 보유한 블라디보스톡함대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톡함대의 활약이 점점 더 활발해지자 1904년 3월 일본은 장갑순양함 4척을 보유한 우에무라 제2함대사령관에게 블라디보스톡함대를 전담하여 격멸케 하였다. 우에무라는 블라디보스톡함대를 탐색 및 격멸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통상파괴전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환능력의 부족으로 번번히 실패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블라디보스톡함대의 작전은 계속 성공하였고 그 전과도 컸다. 일본은 통상파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선단호송작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8월 10일에 이르러 일본 제2함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일본과의 제해권 다툼에서 양과 질의 양 면에서 열세하다는 것을 깨달은 러시아는 뤼순함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회항시켜 세력을 재집결시키고자 하였다. 뤼순함대의 지원세력으로서 항로안내의 명령을 받은 블라디보스톡함대 순양함 3척은 울산 근해에서 뤼순함대를 상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예측한 우에무라에 의해 울산해전에서 패배하였다. 뤼순함대 역시 도고제독의 연합함대에 의해 황해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동서해의 제해권은 모두 일본이 획득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를 블라디보스톡 전대와 뤼순함대로 양분하여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하였고, 일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주력함대를 뤼순에 배치한 후, 잔여세력은 전대를 구성하여 블라디보스톡에 배치함으로써 일본군의 군수수송과 후방을 교란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집중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양분된 뤼순함대와 블라디보스톡 전대가 일본 함대에 의해 쉽게 각개 격파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울산해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의 블라디보스톡 함대는 일본 해양력을 상대로 통상파괴전을 실시하여 일본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일본에게 상당한 물적,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sup>145)</sup>. 그러나 전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 러시아는 현존함대전략개념을 바탕으로 세력 보존 지향의 수세적인 작전을 구사했다.

<표 4-3>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출동상황 및 전과

구분	출항	입항	작전해역	전과
1차 출동	2월 9일	2월 14일	쓰가루 해협	상선 고내환 격침
2차 출동	2월 24일	2월 29일	원산 근해	정찰
3차 출동	4월 23일	4월 26일	원산 근해	소형상선 오양환외 1척 격침 수송선 금주환 격침
4차 출동	6월 12일	6월 20일	쓰시마 해협	수송선 화선환 격침 수송선 상육환 격침 수송선 좌도환 대파 영국선 1척 나포
5차 출동	6월 28일	7월 3일	쓰시마 해협	영국선 1척 나포
6차 출동	7월 17일	8월 1일	일본남부(태평양)	상선 고도환 격침 범선 선실환 격침 범선 제2복생환 격침 범선 자재환 격침 범선 복취환 격침 영국선 2척 격침 및 나포 독일선 2척 격침 및 나포

출처: 世界 の 艦船, 349號, (東京: 海人社, 1985), p. 87.

145)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보여준 통상과괴전은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진가를 보여주었다. 영국에 비해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독일은 해양거부전략의 일환으로 U-boat를 이용한 통상과괴전을 실시함으로써 영국이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데 매우 어렵게 하였다.

### 3. 해양통제의 수단 : 해군력

#### 가. 일본의 해군력

일본의 야마모토가 제안한 26만 톤 해군 건설계획은 두 단계에 걸쳐 완료되었다. 첫 단계는 1896년에 시작되어 1902년에 완료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1897년에서 1905년 사이에 실행되었다. 건함계획 수립이후부터 약 10년간 세계수준의 전함 6척과 장갑순양함 6척으로 구성된 66함대를 건설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세계 4위의 해군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해군력 건설에는 영일동맹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는바, 영국 조선소로부터 최신예 함정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해군 전력 규모면에서 일본은 러일전쟁 직전에 이미 가공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일본의 해군력은 6척의 전함, 8척의 장갑순양함, 16척의 방호순양함과 비방호순양함, 20척의 구축함, 그리고 58척의 어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균형을 이룬 해군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sup>14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략적 문제 중 하나는 극동에서의 러시아 해군력의 증강에 대한 것이었다. 1902년까지 해군력 건설을 가속화한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1903년 말에 이르러 전함의 수 면에서 일본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 우수성에 주력했다.

함정 선체를 비롯한 포, 탄약 등의 무기체계 면에서 일본의 전투함들은 매우 우수하였다<sup>147)</sup>. 특히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미카사는 바다에 떠 있는 함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함 중의 하나였다. 이 함정은 함수, 함미 두 개의 회

146)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티, 『KAIGUN』, 김태준 역,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 90.

147)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티, 『KAIGUN』, pp. 86-87; 일본전함의 전술 및 기술적 자료에 대해서는 로스뽀노프 외 러시아전사연구소편, 『러일전쟁사』, 김종현 역, (서울: 건국대학교, 2004), p. 98. 참조.

전포탑에 12인치 주포를 탑재하고 14개의 6인치 엘스윅(Elswick) 속사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수압과 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주포는 어떤 고각이나 위치에 서도 장전이 가능했고, 매 2분 간격으로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다. 또한 함정의 방호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지만 별로 손상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일본은 대구경 AP탄을 제외한 모든 포탄에 견딜 수 있는 하비(Harvy)와 KC 장갑판으로 외장된 장갑 순양함들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함정들은 신장갑으로 방호되고 더 경량화되면서도 강력한 엘스윅 속사포(8인치와 6인치)를 장착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흘수선 아래위가 충분히 방호되어 적의 어뢰공격에도 덜 치명적이었다. 아울러, 일본의 군수산업에서 가장 큰 진보를 보인 분야가 폭탄과 탄약분야였는데, 시모세(Shimose) 화약, 이쥬인(Ijuine) 신관, 후로시키(Furoshiki) 탄은 러일전쟁의 해전에서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전쟁지속능력 측면에서도 일본은 뛰어났다. 일본 해군력의 우수한 군수지원 능력 때문에 일본군은 하루 14개 열차분량 및 선박 30~40만 톤을 동원할 수 있어 신속한 병력집중이 가능하였다. 반면, 러시아군은 모스크바로부터 5,500 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유일한 보급로인 시베리아 철도와 동청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평균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가용 수송능력은 1일 6개 열차분으로 매월 4만 명 정도까지만 증원이 가능하였다<sup>148)</sup>.

일본해군이 임박해 오는 전쟁에서 용감한 인재들에 의해 영도되기는 하였지만 1904-1905년간의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군함의 질적 우수성이었다<sup>149)</sup>.

---

148) 정도웅, 전게서, p. 33.

149)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티, 『KAIGUN』, p. 91.



<표 4-4> 1904년 1월의 일본과 러시아 함대의 상대전력 비교

구 분	일본 해군	러시아 해군		
		러시아 함대 (전체)	극동함대	
			뤼순함대	블라디보스톡 전대
주력함	10 * 전함 : 6척(선령 10년 미만), 노후함 4척	33	7 * 모두 전함 (선령 10년)	
장갑순양함	7 (선령 10년 미만) * 2척 건조 중	10 *3척 추가진수(1905)	7 (선령 10년 미만)	3 (선령 10년미만)
방호순양함	13 (선령 7년 미만 7척) * 3척 건조 중(1904)	12 * 5척 추가건조중	5 (선령 5년 미만)	1 (선령 5년 미만)
비방호순양함 과 유사함정	13 (선령 10년 미만 3척)	-		
슬루프형/방호 순양함	-	9 (선령 20년 이상)	4 (선령 20년 이상)	
포함	6 * 1척 건조 중	35	8(?)	
구축함	20 (선령 6년 미만) * 3척 건조 중(1905)	49 *11척 추가건조	25 (선령 6년 미만)	
어뢰정	90 * 3척 건조중(1904)	90		11

출처: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티, 『KAIGUN』, 김태준 역,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p. 127-128.

## 나. 러시아의 해군력

청일전쟁 발발직전까지의 러시아 해군력은 미미하였다고 평가된다<sup>150)</sup>. 하지만 일본과의 대립이 심화되자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1898~1905년까지 극동지역만을 고려한 7개년 군함 건조 계획<sup>151)</sup>을 수립하면서 대규모로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발트해의 전투함들을 극동으로 이동시켰으며<sup>152)</sup>, 블라디보스톡과 뤼순을 해군기지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행동으로 영국은 극동에서의 해군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개전 시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수적으로 충분한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영일동맹을 통해 최신예 신형함정들을 보유한 일본 함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sup>153)</sup>.

우선 각각의 전함은 상이한 건조계획에 따라 국내외에 있는 여러 조선소에서

---

150) 1895년 1월 13일 기준 뤼순함대는 순양함 7척, 포함 4척, 기뢰부설함 2척, 어뢰정 3척으로 구성되었고, 블라디보스톡 전대는 경순양함 1척, 포함 4척, 어뢰정 4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로스뽀노프 외 전게서, pp. 82-83.

151) 1895년 11월의 전문회의에서 “일본의 군함건조계획이 완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러시아 함대가 일본함대를 현저히 능가하도록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의 군함건조계획을 작성해야만 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2년 후 1898년에 니콜라이 2세가 승인한 극동계획에 의하면, 함대장갑함 5척, 순양함 16척, 어뢰정 30척, 어뢰운반선 4척 등이 건조될 계획이었다. 로스뽀노프 외 전사연구소편, 상게서, p. 83.

152) 러일전쟁 개전 시 발틱, 흑해 및 극동에 주력함대를 가진 러시아는 크림전쟁을 비롯하여 유럽 열강들과 수시로 대결해야했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을 유럽전선에 배치하였다. 이 중에서 흑해함대는 크림전쟁-1853~1856년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이를 저지하는 서구열강들(오스만투르크·영국·프랑스·프로이센·사르데냐 연합군)과의 전쟁으로서 러시아는 흑해에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고, 군함의 통과는 일체 금지됨-이후 해협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는 세력들은 유럽을 담당하고 있던 발틱함대와 극동에서 태평양을 담당하고 있던 태평양함대였다. 또한 발틱함대는 극동지역과 7,000마일의 원거리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 초기에 운용하는 데는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항할 수 있었던 세력은 사실상 태평양함대뿐이었다.

153) 자세한 내용은 로스뽀노프 외 러시아전사연구소편, 『러일전쟁사』, pp. 84-88. 참조.

제작된 다른 유형들이었다. 휘순함대의 전함 7척은 4가지의 상이한 유형이었으며 7척의 경순양함 중에서 2척만이 동일유형이었다. 또한 구형함정들과 신형함정들은 장갑능력과 운항속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함대에 배치되었다. 러시아 장갑함의 장갑 선현면적은 일본의 1/2 수준(33% : 66%)에 불과했다. 구형군함의 낮은 속도는 함대의 기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기계적 결함을 지니고 있던 전함 세바스토폴은 단현 기관만 사용할 수 있어 최대 속력이 14노트였으며, 순양함 류리크 역시 잦은 기관고장으로 최고속력을 15노트 밖에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주력 전투함들은 전술적 능력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전투능력에서 통일성이 없는 함정들로 구성된 휘순함대가 한 진형을 형성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무장면에서도 일본의 함포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다. 포탄의 파괴력도 일본의 전함보다 20% 정도 낮았으며 관통력도 떨어졌다. 설치된 함포는 17도 이상의 양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대사정거리는 짧았다. 또한 원거리 사격을 위한 광학장비조차 없었다.

이렇게 군함의 수준이 낮은 것 외에도 러시아 해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 소위 ‘군비절약’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4개월 정도의 항해만 하다 보니 기동전술이 되지 않았다. 장교들은 항해경험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전장에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지휘관을 포함한 부대원들을 자주 교체한 것은 전투력 저하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제3절 국제적 수준

군사력의 주 목적은 가능한 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발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있으나 평시에는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대외 정치도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군사력은 국력을 과시하고 제한적인 힘도 사용하여 상대방

을 위협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sup>154)</sup>.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보면 해군외교란 한 국가가 정치적 목적과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세력을 사용하는 것이다<sup>155)</sup>라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적으로 정부와 군대, 그리고 국민의 총화적인 힘의 결합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국외적으로는 영일동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쟁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동맹이라는 외교적 노력의 뒷받침을 통해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일동맹은 해군력 전이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강압과 일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였으며 동맹의 이행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하였다.

영일동맹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발생한 러일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교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군외교란 군사외교의 한 분야로서의 포괄적 개념을 뜻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국제적 수준에서의 해군협력이 어떻게 러일전쟁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 1. 영일동맹과 세력전이

### 가. 영일동맹의 원인: 대러 견제

러일전쟁의 불씨는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변화되면서 나타났다. 청일전쟁 전후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가져온 근대화의 영향으로 국익추구의 대상을 국내적 성장에서 국외로 확장시키면서 서구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에 동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나라에서 국익을

154)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해군력의 전시 사용』, 제1회 해양전략 심포지움(대전: 해군대학, 2004), pp. 1-39.

155) 해군외교란 국가가 지원, 설득, 억제 또는 강압을 위한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세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British Maritime Doctrine, 2nd Edition*,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1999), p. 55, p. 223.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부딪치면서 대립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이 대륙진출을 시도하자 극동에서 이익을 추구하던 러시아는 일본의 행위가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강경한 대일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동북아 지역체제에 큰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청일전쟁 이후 3국간섭에 의한 랴오뎡 반도의 반환을 주도하고, 1901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청국에 12개조 요구를 제시하고 만주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sup>156)</sup>. 러시아군이 청나라에 파견된 후 철수하지 않으면서 일본과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동북아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아편전쟁 이후부터 불평등조약으로 청나라에서 많은 이권을 행사하고 있던 영국은 청나라의 거대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이해관계만을 생각하였던 영국은 전쟁 이후 일본의 저력을 확인하고 일본을 이용하여 동북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 (1) 영국의 동맹 필요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패권을 장악한 영국은 해외 식민지 개척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개척은 유럽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충돌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대륙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국제상황을 인식한 영국수상 솔즈베리(Salisbury)는 영국과 무관한 전쟁에 말려드는 것보다는 고립이 훨씬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sup>157)</sup>. 이

---

156) 유오성, 전계서, p. 62.

157) C. H. D. Howard, "The Policy of Isolation," *Historical Journal*, Vol. 10. No. 1, 1967, p. 67.

에 영국은 타국과의 전쟁개입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우방도 특별한 적도 가지 않는 ‘화려한 고립정책(splendid isolation)’<sup>158)</sup>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정책은 유럽대륙과 해외 식민지에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1899년 보어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영국은 유럽에서 독일해군의 급속한 성장과 위협으로 인해 “두 국가기준(Two Power Standard)”<sup>159)</sup> 해군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영국의 식민상 챔벌린(Chamberlain)은 고립정책을 고수해서는 영국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0)</sup>.

<표 4-5> 영일동맹 이전의 각국 국력 비교

구 분	일 본		영 국		미 국		러시아	
	1890	1900	1890	1900	1890	1900	1890	1900
전체 인구	39.9	43.8	37.4	41.1	62.6	75.9	116.8	135.8
산업잠재력	7.6(*)	13	73.3(*)	100	46.9(*)	127.8	24.5(*)	47.5
병력(육·해군)	84	234	420	624	39	96	677	1,162
군함(톤수)	41	187	679	1,065	240	333	180	383

- (\*): 1880년 기준

- 단위: 전체인구(백만), 산업잠재력(1990년 영국=백), 육해군병력(천), 군함(천)

출처: 폴 케네디, 전남석 외 역,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9), pp. 241-245를 재구성.

한편 아시아에서는 인도제국 보존 및 중국과의 무역이 영국의 주요한 두 가

158) Bernard Porter, *The Lion's Share*, (London: Longman, 1975), pp. 72-73.

159) 두 국가기준이란, 영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해군을 합친 만큼의 함대를 보유한다는 영국 해군력 보유의 원칙을 의미한다.

160) George Monger, *The End of Isolation*,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3), pp. 20-21.

지 국가이익이었는데, 그 중 중국에서의 이권이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sup>161)</sup>. 이에 영국은 양쯔강을 문호개방하기 위해 독일과 맺은 영독협정(1900. 10)을 만주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독일은 만주가 협정범위 밖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양국간에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독일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려던 영국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일본에게 편승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sup>162)</sup>.

영국은 비록 쇠퇴기에 있었으나 여전히 세계 지배국의 위치에 있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종주국으로서 총체적 국력이나 해군력 면에서는 러시아에 비해 우세했지만, 육군의 전력에 있어서는 전통적 대륙국가인 러시아에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대륙(청나라)에서의 국익 쟁탈전은 결국 강한 육군의 보유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던 영국의 국내적 상황은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의 만주진출 저지에 대한 일본과 영국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에서 양국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영일동맹이었다. 영국은 육군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육군력을 빌어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으며, 일본은 대륙진출을 위한 해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국의 해군력 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sup>163)</sup>.

161)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 163.

162) 김태준,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군사』, 제54호, (서울: 신오성기확인회사, 2005), p. 338.

163) 영국과 일본의 시각이 일치하지만은 않았다. 영일동맹 체결 후 양국간의 해군협조 구상은 요코스카와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 일본은 영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러시아와 동등한 수의 전함과 순양함을 유지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영국은 특정 수준의 전력상정을 반대했다. 영국은 일본이 신장된 해군력으로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자국 해군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하여 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독일의 해양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했다.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터, 『KAIGUN』, 김태준 역,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 92.

일본의 육군력과 영국의 해군력이 결합한 제1차 영일동맹은 러시아와의 국력관계에서 커다란 힘의 변화, 즉 세력전이 현상을 가져왔다. 동맹이란 도전국들로서는 쇠퇴하는 패권국에 대한 위협을 가시화하기 위한 힘의 결합추구이고, 쇠퇴하는 패권국가로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국가와 맺는 힘의 결합이다<sup>164</sup>). 영국이 ‘화려한 고립’ 정책을 청산하면서 영일동맹을 맺은 것도 양국의 정치·군사적인 이해가 일치되면서 탄생한 것이다<sup>165</sup>).

영국은 동아시아 식민지 정책에 있어 러시아가 위협이라고 인식<sup>166</sup>)했으며, 일본을 자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맹국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은 19세기 말 유럽의 전통적인 균형자의 역할로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더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되는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2) 일본의 동맹 필요성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과 같이 대륙진출을 피하기 시작했다. 1890년 제1회 제국회의 개최식 연설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은 “일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주권선’인 국경을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필히 ‘이익선’, 즉 ‘주권의 안위에 깊은 관계가

164) 김기정,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의 역사구조적 접근,” pp. 190-193.

165) Paul M. Kennedy,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4-1914* (Boston: George Allen & Unwin, 1980), pp. 234-243;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 174. 유오성, 전게서, pp. 66-67에서 재인용.

166)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위협균형이론을 설명하면서 국가는 세력(힘)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Threat)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동맹을 형성한다고 했다. 즉 어느 쪽이 더 또는 덜 위협적이냐의 판단에 따라 동맹을 한다는 것이다.



있는 지역'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sup>167)</sup>. 당시 이익선의 의미는 일본에 인접한 조선을 말하며, 조선을 보호한다는 것은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였던 청국과 필요할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sup>168)</sup>. 이러한 이유로 1894년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일본은 주권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선의 확보 즉,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국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sup>169)</sup>.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전리품으로 랴오똥 반도를 획득하였으나 극동정책의 일환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가 주도한 3국간섭에 의해 랴오똥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러시아가 다시 차지하자 일본은 러시아를 북방의 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sup>170)</sup>.

만주와 한반도는 일본에게 국가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대단히 중요했기에 러시아의 이 지역진출은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다<sup>171)</sup>. 특히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이유는, 철도가 완공된다면 군사력

167) 上山春平, 『大東亞戰爭의 遺産』 (東京: 中央公論社, 1972), p. 62. ;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어 국제정치(國際政治)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을 지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서구 열강들과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일본의 이익선 확보를 인정받고자 했다. 박한규, “메이지(明治維新) 유신 이래 일본 외교이념의 흐름(1868-1945),”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p. 92.

168) 김태준, 전계서, p. 339.

169) 당시 야마가타는 만약 러시아가 시베리아철도를 완공할 경우 조선의 독립도 크게 위협받게 되어 일본의 주권선은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위협을 당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저, 이성환 역, 『일본의 외교』 (서울: 푸른산, 1993) p. 46.

170) 1902년의 고다마(兒玉) 보고서는 전 극동지역의 정복계획서이며, 이것은 1927년 다나카 청원서에서 세계정복계획으로 확대되었다. 고다마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George Ker, Kodama Report: "Plan for Conquest," *Far Eastern Survey*, Vol. 14, July 18, 1945, pp. 185-190.

171)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물리적 힘의 우위가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강대국들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균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상대적으로 열세한 일본이 러시아와의 국력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과 동맹을 모색했다.

은 물론 물자수송이 극동지역까지 연결될 것이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었다<sup>172)</sup>. 더구나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보호국으로 지배하려 하자, 일본은 오랫동안 열망해 온 대륙진출 자체가 무산될 것 같은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되었다.

앞의 <표 4-5>에서 본 바와 같이, 러일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국력은 산업,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었다. 러시아는 일본의 도전가능성을 일축하기에 충분했고, 일본은 도전을 위한 동맹의 필요성이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삼국간섭<sup>173)</sup>에 대해 일본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동맹없는 러시아와의 일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일본은 라오퐁 반도의 반환을 계기로 다시는 그와 같은 굴욕을 겪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삼고 군사확장계획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력의 성장과 현대화,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제 삼국의 간섭을 막아 줄 수 있는 국가와 동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sup>174)</sup>.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189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전함 4척과 다수의 보조함 건조를 영국에 주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일본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영일동맹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sup>175)</sup>.

그러나 영국과 일본은 동맹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 영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견제하여 세력균형 유지를 원했다. 반면에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 극동에서 러시아보다 해군력의 우세를 확보하고 나아가 러시

172) 김태준, 전계서, p. 340.

173) 청일전쟁 이후 양국간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요동반도 할양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곧 준공될 상태에서, 그리고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러시아에게 이는 러시아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3국간섭의 결과 일본은 1895년 5월 5일 일본정부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의 우의 있는 충고에 따라 요동반도의 점령을 영구히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전문을 3국주재 일본공사들에게 전달하였다. 김용구 저, 전계서, p. 379.

174) 김태준, 전계서, pp. 339-340.

175) 外交時報社, 『支那關係條約彙』 (東京: 外交時報社, 1930), pp. 645-646.

아를 고립시키고자 했다. 결국 국제적인 관점에서 러·일전쟁은 국제체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영국의 대리전쟁<sup>176)</sup>이 된 셈이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는 일본이 영일동맹을 이용하여 러시아 주도의 3국간섭 체제를 와해시키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한 영국의 외교적 힘과 해군력을 필요로 하였다.

## 나. 영일동맹의 결과

### (1) 일본의 국력성장

동북아 지역체제에 있어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구조적으로 동북아 역내의 일본과 서구 세계열강들 간의 동북아지역 패권추구기라고 할 수 있다. 1854년 개항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이던 청나라와의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동북아 지역내에서의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 이후 일본은 차후의 기회를 엿보면서 스스로의 국력 성장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이후 국내외적 군사력 건설을 모색하던 일본은 영일동맹을 바탕으로 한 세력우위에 힘입어 도전국<sup>177)</sup> 러시아를 상대로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고 동북아의 지역패권국은 물론 세계열강의

176) 독일은 영국의 앞잡이 노릇이 될 가능성 때문에 1901년 영국과의 동맹협상에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여 영독동맹 협상이 무산되자 영국은 대신 일본과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William Langer,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in Carl E. Schorske and Elizabeth Schorske, eds., *Explanations in Crisis*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 22.

177) 세계체제 속에서 영러간 대립구도가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에 적용될 때는 러시아를 지배국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국은 과거 중화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지배국이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의 지배국으로 위치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러일 전쟁을 세력전이 측면으로 설명할 때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확고히 지배국 위치에 놓여진 상태에서 강대국인 러시아가 도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유오성, 전계서, p. 62.

반열에 들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급격한 국력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근대화(산업화)를 이룬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동맹에 의한 외교력증대였다.

### (가) 내부 요인으로서의 근대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면서 국력성장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sup>178)</sup>. 1889년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체제를 이루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였고, 사회 및 문화적으로는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한편 군사적으로도 징병에 의해 근대적인 평민군대를 창설하면서 군사적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유신에 의한 내부적 변화는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근대화와 성장은 열강에 의해 분할된 청나라와는 달리 외세의 개입이 적어, 일부의 불평등조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체적인 개혁성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동아시아로 진출하던 서구 열강들의 관심이 청에 집중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압을 받았기 때문이다<sup>179)</sup>.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일본의 산업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18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에 성공하여 공업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sup>180)</sup>. 이에 따라 무역성장률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이 러시아에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면서 대러시아 전쟁준비를 시작하던 1890년대 후반기에는 더욱 증가하였음을 <표 4-6>에서 알 수 있

178) 일본은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사령관 페리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요구국서를 가지고 일본을 찾아가 문호개방을 요구하면서부터 메이지유신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179) Frances Moulder, *Japan and China and the Morden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p. 8-9.

180) 1880년에서 19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출입은 8배나 증가하였고, 연 7.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률은 같은 기간 세계 전체의 수출입성장률의 2배,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2배가 되는 높은 것이었다. 오유성, “동북아시아 지역국제체제 변동 연구: 역외·역내 세력간 세력전이를 중심으로, 1842~1992,”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53.

다.

<표 4-6> 일본의 무역현황

연평균	금액(1백만엔)			무역성장률	
	수입	수출	무역수지	수입	수출
1885-1889	47	55	+ 8	16	15
1890-1894	84	86	+ 2	25	21
1895-1899	206	163	- 43	46	31

출처: Willam W. Lockwoo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1868-1938*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4) p. 313.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성장이 시작된 1885년부터 1894년까지의 초반기에는 무역수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삼국간섭 이후의 일본의 무역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무역수지가 오히려 (-)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초반기의 국력성장은 내적성장을 바탕으로 수출에 의한 무역흑자 성장이었지만, 동북아 이권을 위한 러시아와의 대결이 불가피해지자 서구 강대국의 지원하의 빠른 국력성장을 위해 대외의존도를 대폭 늘린 것이다.

#### (나) 외부 요인으로서의 영일 동맹과 일미 준동맹

1902년 1월 31일에 일본과 영국이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러시아와의 국력 차이를 많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열세를 많이 극복했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과는 문호개방정책 유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에 대항하는 준동맹관계를 형성했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은 국제적인 외교적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었다<sup>181)</sup>. 이로써 러일전쟁 이전 일본과 영국의 열세는 영일동맹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적 지원이 있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

다.

동북아에서의 국익을 추구하던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제 대륙진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고, 영국은 동북아를 미래가 밝고 자원이 풍부한 개척시장으로 보았으며, 미국은 필리핀 점령 이후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다. 러시아의 남진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러시아의 커다란 국력에 단독으로 대결할 국가는 없었다. 결국, 이러한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해가 일치하여 영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형성될 수 있었고 외교적 지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sup>182)</sup>.

이러한 동맹관계는 외교적 수준에만 머물지 않았고 전쟁비용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삼국간섭에 의해 청일전쟁 직후 1주일 만에 전리품인 랴오둥 반도를 러시아에 반환하게 되자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일전쟁 배상금 대부분을 군사비에 투입했다. 당시 배상금 3억 4,405만 엔의 23%를 임시군사비, 16%를 육군확장비, 36%를 해군확장비, 14.5%를 차기 전비로 할당하였다<sup>183)</sup>.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쟁이 소모전으로 될 경우, 전비확충이 어려워질 것을 인식한 일본은 ‘러시아와 1년간의 전쟁’을 계획했는데, 이때 필요한 전쟁비용은 4억 5천만 엔이었

181) 미국은 청나라의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였지만, 만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남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목표실현에 위협을 받자 이를 경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청을 점령하고 만주에서의 이익을 차지할 경우 미국의 청나라 문호개방정책은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일본을 지원하게 되었다.

182) 러일전쟁 준비 기간의 전비확충은 1896-1903까지 육군성 세출 경상비가 청일전쟁 직전의 연평균 1,138만 엔이던 것이 3,178만 엔으로 급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김기정, “20세기초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정과 구조변동: 만주위기와 영일동맹의 형성,” 『연세행정논총』, 제23집 (1998), p. 47.

183)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상계서, p. 175.

다<sup>184</sup>). 자생적 능력이 부족했던 일본으로서는 이 중에서 1/3인 1억 5천만 엔을 해외차입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다. 일본의 가용자금은 5천만 엔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엔은 외채에 의해 모집해야만 했다<sup>185</sup>). 이러한 문제는 영일동맹과 미일준동맹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러일전쟁은 최초의 계획보다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행됨으로써 일본은 더 많은 전비를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비는 18억 2,629만 엔에 달했는데, 주로 국민들에게 부과된 증세(地租, 營業, 所得稅)와 국채를 통해서 조달되었다. 국채는 총 14억 7,200만 엔(내국채 6억 7,200만 엔, 외국채 8억 엔)이었다<sup>186</sup>). 외국채 8억 엔은 4회에 걸쳐 주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모집되었다. 일본은 정치계·경제계·금융계의 실력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공채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영국정부가 일본의 전시공채에 미국의 자본가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sup>187</sup>). 당시 외국채 8억 엔은 국채의 절반을 넘을

184) 일본의 전쟁지도부는 전쟁기간(1년)과 참전국(러시아와 일본)을 국한시키고 하얼빈을 점령하여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 다음 평화교섭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이유는 소모전으로 이어질 경우, 유럽의 지상군과 해군력이 증강될 가능성이 많았고, 후속 군수지원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비(戰費)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비는 순전히 러시아를 한국에서 일소(一掃)하는데 필요한 전비였고, 전쟁이 압록강 이북으로 확대된다면 전비의 추가가 불가피했다.

185) 김충암, 『영일 군사외교』, (서울: 계몽사, 1986), pp. 62-63.

186) 가토요코 저, 『근대일본의 전쟁논리』, 박영준 역, (서울: 태학사, 2003), p. 149. 러일기간 중 일본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차이가 있다.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 第7巻: 日露戦争』(鹿島研究所出版會, 1970), pp. 130-147에서는 “러일전쟁 기간 중 일본의 군사비는 육해군 군비충당비와 임시군사비를 합해 약 19억 8천 4백만엔에 이르렀다. 이는 증세수입 2억 1천 5백만엔, 특별회계자금 6천 7백만엔, 헌납비 150만엔, 잡수입 50만엔, 기타 1억 4천만엔으로 일부 충당이였다. 그러나 나머지 17억 7천 2백만엔은 모두 공채로 충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187) 가쓰라 수상은 영국에 쓰에마쓰겐초(末松謙澄) 남작을 파견하여 일본 지원 여론을 확대함과 동시에 외채를 도입 운동을 펼치도록 했다. 일본이 외채를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일본은행 총재 다카하시(高橋是清)였다. 그는 런던에서 영국 은행과 교섭하여 퍼스은행과 홍콩은행을 중심으로 약 5백만 파운드의 공채발행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상인 수석대표 시프는 미국에서 5백만 파운드의 공채발행을 이끌어 냈다. 여기서 주

정도로 막중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영일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sup>188)</sup>.

반면 러시아는 1개월 예상전비를 6천 루블로 계산하였고, 가용자금이 3억 루블 이어서 일본보다 사정은 나았으나 이는 반년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내외 공채를 통한 자금 확보노력을 기울인 결과 5억 루블 이상을 획득하였다<sup>189)</sup>.

<표 4-7> 일본, 러시아의 외채 현황(실수령액 기준)

구분	일본(단위 : 백만 엔)	러시아(단위 : 백만 루블)	시가 비교(일:러)
1차	89.3(1904.5. 런던, 뉴욕)	282.0(1904.5. 파리)	89 : 70 (5월)
2차	101.6(1904.11. 런던, 뉴욕)	135.0(1905.1. 베를린, 암스테르담)	92 : 74(12월)
3차	252.6(1905.3. 런던, 뉴욕)	142.9(1905.5. 베를린)	87 : 84 (4월)
4차	250.4(1905.7. 런던, 뉴욕, 베를린)		87 : 87 (7월)
계	693.9	559.9	

출처: 김충암, 『영일 군사외교』, (서울: 계몽사, 1986) pp.236-238,

아울러 일본해군의 첫 연료위기시에도 영일동맹의 역할은 중요했다<sup>190)</sup>. 당시 해군의 연료는 석탄이었는데, 일본해군은 저질의 역청탄만 보유하고 있어 동력 감소가 우려되었다. 러일전쟁 직전까지 65만톤의 석탄을 비축했으나, 그때까지 국내용 석탄으로 품질좋은 조개탄 생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일본은 국내 석탄비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와 전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영국 석탄 50만톤을 추가로 수입함으로써 전쟁개시 직

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런던에서 획득한 공채는 대부분은 뉴욕에서 발행한 미국의 공채였다. 둘째,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독일이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제4차 공채모집에 참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에 기여하게 되었다.

188)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 第4巻』(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70), pp. 130-147.

189) 김충암, 『영일 군사외교』, (서울: 계몽사, 1986), pp. 63-64.

190) 데이비드 에반스마크 패티, 『KAIGUN』, 김태준 역,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서울: 국방대학교, 2001), pp. 93-94.



전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일전쟁은 양국간의 전쟁이 아니라 서구열강의 국익이 서로 얽혀있었던 복잡한 국제정치상황 아래서 치러진 ‘영·미·일 대 러시아’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91)</sup>. 일본은, 물론 국내적 능력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영일동맹이 있어 개전을 결심할 수 있었고, 영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승리로 종결지을 수 있었다<sup>192)</sup>.

## (2) 일본의 해군력 건설

일본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인 군사력 건설에 착수했는데, 특히 러일전쟁 이전의 전쟁준비 과정에서 영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군사력을 막강하게 증강할 수 있었다. 군사적 능력의 뒷받침은 일본의 개전 결정에 자신감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천황은 개전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나서서 궁정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았고, 이에 고무된 대신들과 의원들이 자신의 봉급을 털어 군함 건조비를 마련하는 등 해군력 증강을 위해 국가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해군은 청일전쟁 승리로 청국군함 11척을 수중에 넣고 청일전쟁 전비에 해당하는 2억 1,310만 엔을 투자하여 전함 4척, 일등순양함 3척, 2등 순양함 3척,

---

191)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하였으나, 러일전쟁시 프랑스는 영국의 개입을 두려워하여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돕지 못하고 중립적 위치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192) 보편적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고 하지만, 전쟁 직후 러시아는 전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군사적으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고, 러시아와 일본 모두가 국내외적 여건에 의해서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이 적극 중재자로 개입하여 전쟁을 종결시켰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삼국간섭의 치욕을 만회하였고, 세계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많았다.

삼등순양함 3척, 수뢰포함 1척, 구축함 23척 등 총 106척을 건조하였다. 이러한 군비증강의 결과로 1903년경 일본은 15만 명 이상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684문의 대포를 갖추었는데, 이는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전력증강을 달성하였음을 나타내준다<sup>193)</sup>.

또한,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한일 의정서’를 체결,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반도를 일본군의 안전한 병참기지로 구축하였으며 개전과 동시에 제 3함대가 한반도 남단의 진해를 불법으로 점령하여 진해만에서 일본 해군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군함 도입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일어났다. 영일동맹은 러·일간 대립구도에서 우세했던 러시아의 힘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세력전이를 야기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영국의 지원으로 1만 5천톤급 전함 6척을 영국에서, 9천9백 톤급 중순양함 6척은 영국·프랑스·독일에서, 쾌속 순양함 3척은 영국·미국에서 확보했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서 건조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7천8백톤급 장갑순양함 2척을 영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러시아보다 먼저 구입할 수 있었고, 영국에서 건조 중이던 칠레의 1만2천톤급 전함 2척을 러시아가 구입하려 하자 영국이 재빨리 매입하여 일본에게 되팔았다<sup>194)</sup>.

193) 藤原彰, 『日本軍事史』, 엄수현 옮김,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pp. 119-121에서는 10년 동안에 일본 군사력이 2배로 증강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러시아 자료는 일본이 10년 동안 2.5배로 증강되었다고 주장한다. (Левитский . 1938: 19). 심헌용, 전거서, p. 297에서 재인용.

194) 심헌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96-297. 특히 영국의 도움으로 구입한 칠레의 12,000톤급 전함 2척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다음 일본해군이 러시아 뤼순 압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뤼순항 해상봉쇄 작전시 일본과 러시아는 상대국이 부설한 기뢰에 의해 일본은 전함 2척, 러시아는 전함 1척을 잃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함 비율이 6:7에서 순식간에 4:6으로 변화되어 일본은 매우 불리하게 되었으나 영국의 도움으로 전함 2척을 확보하여 연합함대에 배속시킴으로써 일본전함의 공백을 적시에 보강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보다 6:5의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일본은 영국의 도움으로 이러한 함정들을 확보하여 극동에서 러시아보다 우세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러일전쟁 직전까지 일본은 순양함급 전투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기에 일본이 군함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준 영국의 지원과 러시아에게는 전함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영국의 방해공작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표 4-8> 1901년 이후 진수된 각국 함정의 수

단위: 척

구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전함	26	20	18	7	6	5
장갑순양함	33	13	8	12	4	6
합계	59	33	26	1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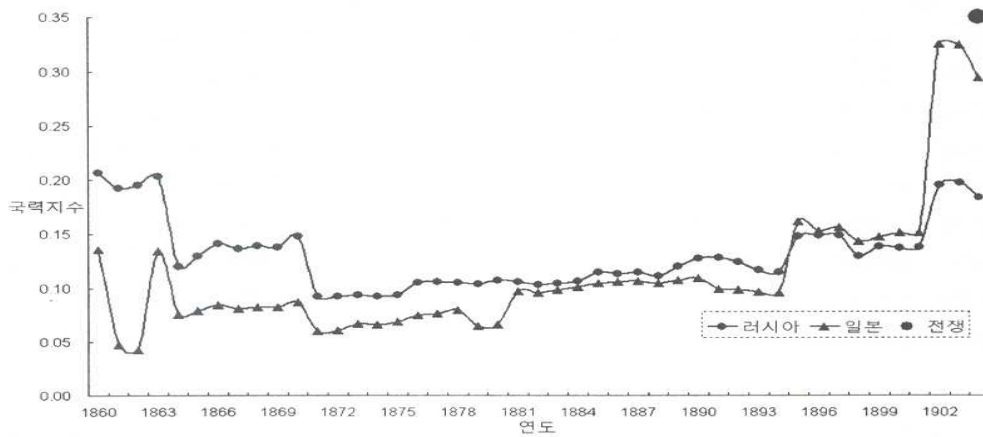
출처: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下)』, 東京: 原書房, 1979), pp. 226-227.

<표 4-8>은 영일동맹 체결 1년 전인 1901년 이후 진수된 각국들의 신형함정 수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은 러시아와 수적으로 거의 대등한 신형함정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후 1902년 일본은 세계 최강의 해양국인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영일동맹 측이 러프동맹 측보다 월등히 우세한 해군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맹의 효과는 <그림 4-1>에 잘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맹해군력 지수 변화에 있어 1895년에 일본과 러시아 해군력 간의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미세하던 국력지수 차이가 전쟁 직전에 급격하게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95)</sup>.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러일전쟁 개전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5) 김현일, 『해양력과 동북아시아의 전쟁발생: 1860~1993』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81-82. 이 논문에서는 동맹의 효과를 통해 일본이 러시아와의 국력지수 차이를 절반으로 감소시켰음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 동맹해군력 지수의 변화(러일전쟁)



출처: 김현일, 『해양력과 동북아시아의 전쟁발생: 1860~1993』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pp. 81-82.

## 2. 삼국간섭의 와해와 러프동맹의 한계

### 가. 러프동맹의 형성

영국이 나폴레옹전쟁 이후 유럽에서 패권을 장악하여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독일도 서서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와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독일은 프랑스가 러시아와 우호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실각 이후 ‘중재자’의 역할을 버리고 열강 이익의 각축장에 뛰어들면서 러시아 대신 영국과의 동맹을 시도하였다. 이

는 번번히 실패하였고 러시아는 여전히 독일과 이전처럼 밀접한 관계 유지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독일에게 감정적 앙금이 있었던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러시아의 태도는 여전히 독일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독일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쉽게 견제할 수 있었다.

엄하고 엄한 국가별 이해관계 속에서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면서 영국도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극동에서의 국익을 추구하던 러시아는 1891년 7월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건설 계획을 결정<sup>196)</sup>하면서 대규모의 외국차관을 필요로 했는데, 이 때 프랑스가 막강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1894년 1월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을 형성하게 되었다<sup>197)</sup>. 이로써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우려했던 프랑스-러시아 동맹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 나. 삼국간섭의 와해와 러프동맹의 한계

1902년 1월 31일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러시아는 지난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보여준 우호적 태도를 상기하면서 러·프·독 삼국이 공동으로 영일동맹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프랑스와 독일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과 위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양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

196) 일본이 대러시아 전쟁에서 10년간의 집중적인 군사력 건설을 통해 전쟁의 시기를 결정한 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군사적 위협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으며 서서히 예방전쟁을 위한 전쟁준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197) 프랑스와 러시아간의 동맹조약 내용은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독일 공격을 공약하는 군사협정에 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은 이 동맹을 ‘운명적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조지 케넌은 그의 저서 제목에서(George F. Kennan, *The Fateful Alli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84)도 이 동맹을 ‘운명적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외상 람스도르프는 프랑스 주재 러시아대사인 우르소프에게 ‘기존 러프동맹의 동아시아 확대’ 문제를 프랑스 정부와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02년 3월 16일 러시아와 프랑스는 ‘러프선언’을 발표하였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체제는 ‘영일동맹 대 러프동맹’의 대결구도로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프선언은 영일동맹에 비하면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였다.

영일동맹이 군사동맹적 수준의 결합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러프선언은 단지 “동아시아의 현상을 제3국이 훼손하려 할 때, 러시아와 프랑스 양국은 사전양해에 도달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는 정도의 형식적 선언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프동맹은 영일동맹과는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국제체제에서 현상적 질서를 변동시키는 힘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198)</sup>. 또한 프랑스는 러프동맹을 극동에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그 선언이 선전목적을 위한 것일 뿐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영국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sup>199)</sup>.

이러한 프랑스의 행동은 국제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손익 계산을 한 결과였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1894년 동맹을 맺고 삼국간섭에 동참했었지만 동맹체결의 배경은 많이 달랐다. 즉 러시아는 극동정책을 위한 자본유치를 위해 프랑스의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아울러 영국과의 대립에 대비하여 프랑스와 동맹이 필요하였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보불전쟁 이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독일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극동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유럽에서의 동맹체제는 차질을 빚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이 러시아로 하여금 극동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한 반면 독일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프랑스는 러시아가 극동진출로 영일동맹과

---

198)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p. 174.

199) Andre Tardieu, *France and the Alliances: The Struggle for the Balance of Power*, New York: Mcmillan, 1908, pp. 18-21. 강성학, 전계서, p. 31에서 재인용.

대립하는 것보다는 유럽에서의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약 프랑스가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에 휩싸이게 되면 영국과 직접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독일만 유리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모로코 문제해결을 위해 텔카세 외상이 1902년부터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기에 입장이 난처했다<sup>200)</sup>. 영국 역시 프랑스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양국은 화해를 모색했으며, 1904년에 우호협상(Entente Cordiale)을 체결하였다.

결국 프랑스는 영국과 대결할 수도 없으며 러일전쟁에 휘말리는 것도 바라지 않았기에 전쟁이 발발하자 중립을 선언했다.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와 상황만 달랐을 뿐 비슷한 입장에 처해있었다. 1894년 독일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식민지 문제로 인해 영국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1895년에는 극동에서 영국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청일전쟁의 종결과정에 개입하여 3국간섭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 극동에서 새로운 이득을 얻지 않을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sup>201)</sup>.

그러나 1902년 영일동맹 체제하에서의 상황은 7년 전 3국간섭 당시와는 매우 달랐다. 러시아로부터의 우호협력을 요청받은 독일은 영국의 해양력을 고려하여 3국 공조는 독일의 해상교통로를 더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영일동맹에 합류하도록 고무시킴으로써 위험한 국제적 상황을 초래

---

200) 모로코 문제에 대해 프랑스는 1900년 각서교환으로 이탈리아의 인정을 받았지만, 스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영국의 동의 없이는 스페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프랑스는 1902년 6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영국에 교섭을 제의하고 1903년 7월부터 교섭하여 1904년 4월에 영불협상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구, 『세계외교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357- 358 참조.

201) Erich Brandenburg, *From Bismarck o the World Power: A History of German Foreign Policy, 1870-1914*, trans by Annie Elizabeth Adams, Oxford: Oxford Univ. Press, 1933. 강성학, 전게서, p. 72에서 재인용.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영국과 러시아 간의 타협을 두려워하던 독일은 양쯔강을 문호개방하기 위해 영국과 협정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하여 영독협정(1900. 10), 소위 양쯔강 협정을 맺었다<sup>202)</sup>.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러·일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엄격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up>20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러시아로부터 양면전쟁의 가능성에 불안해하던 독일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동쪽으로 돌리기 위해 러시아에게 남진정책을 부추기면서 발틱함대의 극동파견을 적극 권유했다.

결국, 일본이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문호개방 정책 공유에 따른 준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러프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독일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시켰다. 이로써 3국간섭 체제는 와해되었고 러시아는 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여 전략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3국간섭 체제의 와해와 러프동맹의 무력화는 해군력 균형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삼국간섭은 동아시아에서 적대적인 서구열강의 전투함대가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어 3국간섭 체제가 유지된다면 일본은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해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일본이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일본이 세계 최강의 해양국가인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던 반면 러·프·독의 3국간섭체제는 와해되어 러시아의 해군력 증강이 어렵게 됨으로써 영일동맹 측이 러프동맹 측보다 월등히 우세한 해군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

202) 植田捷雄, 『東洋外交史(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9), p. 199.

203) John Albert White,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 93.



## 제5장 러일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

### 제1절 동북아 역학구도와 동맹의 중요성

왈츠에 의하면, 단극체제는 국력분포가 하나의 초강대국에 치우쳐 있어서 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새로운 강대국들이 도전세력으로 등장하여 체제 내 국력분포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불안정하다<sup>204</sup>). 따라서 세력균형이 필요하다. 세력균형은 역내 세력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역외 세력인 제3국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러일전쟁 당시와 현재의 동북아 역내 세력간의 역학구도에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며 러일전쟁 당시의 영국처럼 현재의 미국이 역외세력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일전쟁시의 동북아의 역학구도를 살펴보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화이체제(華夷體制)가 붕괴되고 일본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동적 변화 속에서 서구 강대국의 개입, 즉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의한 3국간섭으로 인해 일본은 지역패권국으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게 되었다. 3국간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체제가 역내 패권경쟁의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열강의 관심과 이익이 직결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역외세력이 패권경쟁에 개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역내의 지역패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역외세력인 영국은 동북아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을 러시아의 견제세력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영국의 군사·외교적 지원에 힘입어 러일전쟁에서

---

204) Kenneth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93, No. 3(Summer 1964), pp. 881-909.

승리함으로써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이 종료된 이후 이미 1세기가 지난 현재의 동북아 지역의 국제 상황은 그 때와 비슷하다. 다만 역외세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영일동맹 대신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역학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러일전쟁 전후의 동맹 관계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영국·미국의 해양세력과 러시아·프랑스·독일간 대립양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한국·미국·일본의 남방 삼각관계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북방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또 대립의 축이 한반도의 휴전선으로 보다 명확해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군사적인 측면과 경제·문화적 측면에서의 대립과 조화가 동시에 모색됨으로써 더욱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역내구조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경제적·군사적 강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꾀하는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구도이다. 역외 개입세력인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이권과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을 형성하여 일본을 견제세력으로 이용함으로써 19세기 팍스 브리타니카 국제질서에서 영국이 수행하던 균형자의 역할을 현재의 동북아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일전쟁 당시의 동북아 역학구도는 현재의 역학구도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당시와 현재의 역학구도를 비교함으로써 그 역학구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장에서는 대북억제 측면과 대주변국 관계 측면에서 동북아 역내세력간의 대립상황과 역외세력의 개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의 교훈이 무엇이며 현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동맹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북억제 능력 확보와 한미동맹

### 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비해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북한의 억제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균형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핵무기,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중심으로 비대칭적 전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이다<sup>205)</sup>.

남북한간의 군사력 비교에서 비대칭 전략무기는 그 특성상 제외되어왔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우선 고전적 이론인 ‘3 대 1’ 원리<sup>206)</sup>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남북한의 전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다른 축선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 축선에서 3대 1의 우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몇 개의 주공 축선에서 실질적인 3대 1의 전력비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2대 1의 전력우세와 기습공격<sup>207)</sup>을 개시한다면 승세의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 전력수준에서 북한이 남한 대비 1.25 대 1로 우세하더라도 한 축선에서는 3대 1의 우세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sup>208)</sup>.

205)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의 영문저널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에 기고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을 기습 공격할 때 생화학 무기, 핵폭탄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해 초반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이 보유한 화학물질 중에는 우리 군의 방독면으로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6) 이 논리는 “방어태세의 우세는 공자의 적어도 2/3 수준의 병력을 갖는다면 계획입안자나 지휘관은 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기초로 한다. 트레버 드퓨이, 『전쟁의 이론과 해석』, 주은식 역, (서울: 한원, 1994), pp. 63-66.

207) 일반적으로 기습공격의 효과를 전력비율로 환산한다면 1.5:1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208) 한용섭, “동태적 분석 모델을 활용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분석 및 대책,” 『한국의 군사력

또한 현대의 다양한 위협분석 기법을 적용한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의 논문<sup>209)</sup>,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sup>210)</sup>, 미국 랜드연구소에 있는 브루스 베넷 박사의 견해<sup>211)</sup>를 종합해보면, 남한은 총체적 전쟁수행능력(남북한의 상대적 국력)에서의 우위를 견지하면서도, 전력지수 비교에서는 전반적인 열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남한이 북한의 WMD 위협에는 여전히 무력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남한이 전쟁 초기에는 열세하다가 후반에 이르러 우세로 전환하여 승리를 한다는 일반적인 판단은 여전히 북한 대비 열세의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넷 박사가 말했듯이 피폐해진 전쟁에서의 승리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남한이 전쟁억제력의 부족과 전쟁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동맹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나. 동맹을 통한 대북억제능력 확보의 필요성

건설과 전략』(서울: 국방대학교, 2002), 안보연구 시리즈, 제3집 4호, pp. 35-36.

- 209) 단순 정태적 평가 결과(남한은 총병력에서 북한의 66%, 전차 57%, 야포 60%, 잠수함 73%, 전투함 39% 등으로 전투기 105%, 장갑차 109%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북한이 우세), 가중치를 활용한 정태적 평가(남한 지상군은 북한의 64.4%, 공군은 130%, 해군은 163%에 달하고 총체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77.7% 수준), COSMOKT를 활용한 동태적 평가(소모전 시 북한은 개전 30일만에 남한을 점령 수 없음. 단, 한미연합군의 조기경보 능력으로 북한의 기습공격을 사전 파악하여 소모전으로 신속히 전환시켜야함)를 통해 북한이 재래식 분야에서 우세함을 주장하였다. 한용섭, 상계서, pp. 38-39.
- 210) 전력지수에 의한 평가(북한 대비 전차전력 77%, 포병전력 52%, 장갑차전력 101%, 수상전력 107%, 수중전력 40%, 전투기전력 106.5%), 클라인 모델에 의한 평가(한국의 국력지수는 410.5 북한의 국력지수는 188.6), 상황적 전력지수방식에 의한 평가(북한 대비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에서 국력은 남한이 우세하지만 공군을 제외한 육·해군력은 열세하다고 보았다.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p. 502-513.
- 211) 2003년의 남한 군사력은 북한의 83% 수준이라고 보았다. [한국안보-자주국방의 현주소] “생화학무기에 속수무책”, 『www.donga.com』 p. 1. (검색일: 2007. 10. 5)

남북한이 대치한 상태에서 북한의 침략유혹을 억제시키며 나아가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억제력과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단독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부족한 부분을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이른바 다자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안보협력을 보장하는 동맹이 맺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와 같이 작전 중심이 짧은 전장환경에서는 대량살상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의 사용만으로도 전쟁 승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남북한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같은 이러한 전장 환경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억제를 위한 대북억제능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충분하지 못하다. 바로 이점이 동맹을 통해 충족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다.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력은 방위전력 정도의 수준이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연합전력은 전력지수 측면에서 북한군을 20~30% 능가하며,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될 미군전력까지 계산할 경우에는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도발을 예방 및 억제할 수 있다<sup>212)</sup>. 이러한 전력지수를 제외하고도 주한미군은 억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북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이며 한미동맹은 이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의 땅에 외세의 힘을 영구히 주둔시킬 수는 없다. 한반도에 타세력을 개입시키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 안보 정책결정을 흐리게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 과제인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정통성을 찾아 나가는데 있어 미국뿐

---

21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pp. 60-62.

만 아니라 다른 어떤 외세의 개입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남북 분단과 휴전선을 두고 막대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는 남북간 대치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환경 때문에 아무리 자주적인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능력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당분간은 상대적인 약소국의 지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취약점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이며,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정치·군사·외교력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러일전쟁 당시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일본병합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타국들도 자국의 이익추구에만 관심이 있어 조선의 병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었다. 당시 조선의 일부 관료들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막아줄 것이라고 선의의 기대를 걸기도 하였으나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국익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국제적 무정부 상대하에서 선의의 기대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가안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에게만 보장되는 것이기에 힘이 없었던 당시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국력면에서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일본은 자국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영일동맹을 통해 자국의 열세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키워왔다. 우리 스스로가 안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이른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응징

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최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미동맹이 그 대안인 것이다.

## 2. 대주변국 협력과 한미동맹

어느 국가든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국의 국력을 충분히 키우면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도 스스로만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비단 세계 패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동맹을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편승의 지혜이다. 러일전쟁 개시를 결정한 일본이 영일 동맹을 통해 국가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군사적으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5-1>는 2006년과 2020년경의 동북아 지역체제에 직접적 영향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6개국의 국력지수를 미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표는 국제체제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이라는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세기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영국은 영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해군을 합친 만큼의 함대를 보유한다는 “두 국가기준(Two Power Standard)” 해군정책을 추구했는데, 지금의 미국이 과거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력지수에서 미국 다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sup>213)</sup>의 단독 또는 이들의 합보다도 월등히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13) 현재 미국의 최대 경쟁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미국의 경쟁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수정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체제변화를 시도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자 또는 경쟁적 협력자 등의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국익이 상충하는 부분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협력은 미국과의 협력보다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 동북아 6개국 미국대비 국력 지수, 2006·2020

구 분	비교 분야	미 국	중 국	일 본	러시아	한 국	북 한	통일한국
2006년	정치/외교	20	13	14	13.3	11.5	9.9	
	군사	20	9.5	8.9	14	4.7	4.1	
	경제	20	10.5	7.9	1.9	3.3	0.12	
	과학기술	10	2	5	4	3	1	
	합 계	70	35.0	35.8	33.2	22.5	15.3	
	<b>미국대비국력지수 (국방비지수)</b>	<b>100 (100)</b>	<b>50 (27)</b>	<b>51 (13)</b>	<b>47 (14)</b>	<b>32 (4)</b>	<b>22 (2)</b>	
	<b>Cline 국력평가지수</b>	<b>100</b>	<b>28.6</b>	<b>30.5</b>	<b>25.8</b>	<b>12.7</b>	<b>5.3</b>	
2020년	정치/외교	20	13.5	13.8	14.2	12.5	10	11.7
	군사	20	13.1	10.8	12.9	6.6	5.3	7.9
	경제	20	17	6.6	2.8	3.8	0.09	4.3
	과학기술	10	6	5	5	5	2	5.5
	합 계	70	49.6	36.2	27.9	27.9	17.4	29.4
	<b>미국대비국력지수 (국방비지수)</b>	<b>100 (100)</b>	<b>71 (61.5)</b>	<b>52 (9.0)</b>	<b>40 (8.5)</b>	<b>40 (8.5)</b>	<b>25 (0.5)</b>	<b>42 (11.1)</b>
	<b>Cline 국력평가지수</b>	<b>100</b>	<b>48.7</b>	<b>30.9</b>	<b>19.3</b>	<b>19.3</b>	<b>7.4</b>	<b>20.6</b>

\* 표 작성방법

- ① 이 결과는 연구 참여자 8인이 국가별 및 분야별로 분석한 각국의 국력을 비교 및 대조한 후 ‘직관적으로’(intuitively) 배점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
- ② 평가기준은 각 분야별 미국의 국력을 10점으로 하고 각 국가의 분야별 국력 산정
- ③ 정치, 군사 및 경제력은 각 20점으로 하고 과학기술력은 10점으로 함
- ④ GDP는 PPP 기준임
- ⑤ Cline 국력평가지수는 국력=정치력×(군사력+경제력+과학기술력) 공식에 따른 것

출처: 황병무 외, 『2006~2020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pp. 261-262를 재구성.

세계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경에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국인 미국에게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일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한 국제질서를 바꾸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세계질서가 하나의 초강대국과 다수의 일류강대국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협조 없이는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처할 수 없다<sup>214)</sup>. 이러한 국제체제는 2020년 경에 이르면서 2초(미국, 중국) 2강(일본, 러시아)의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일전쟁에서 영일동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오늘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안보를 보장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동북아의 안보구도의 불안정 요인은 우세한 국력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독주와 이에 대항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활동에서 발생할 것이며<sup>215)</sup>, 한반도 안보의 안정과 불안정 요인도 이러한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바로 정치·경제적으로 이념을 같이 하고 훨씬 덜 위협적이며<sup>216)</sup> 당분간 패권국의 위치를 고수할 미국<sup>217)</sup>과의 동맹관계

---

214) Samuel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Mar/Apr 1999), pp. 35-49.

215) 황병무 외, 전제서, p. 12.

216)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힘이 아닌 위협(Threat)에 근거하여 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 공격 능력, 그리고 공격 의도와 더불어 위협의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총체적으로 독일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독일이 더 큰 위협이라고 판단한 국가들이 연합국측에 합류했다. 미소 냉전기에는 세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보다 힘은 약하나 보다 더 위협적인 소련에 대항하여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소련 진영을 훨씬 능가하는 연합을 형성했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217) 미국의 연성권력과 경성권력적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반길주, "미국패권의 지속가능성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도 최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경성권력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의 5개국과 동맹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만과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준동맹관계에 있다. 연성권력적으로 미국은 안정된 국내정치를 이끌고 있고 국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다원

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표 5-1>에서 살펴본 2020년경의 국력지수대로 국제구도가 2초(미국, 중국) 2강(일본, 러시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체제가 세력균형의 형태에 근접하게 된다. 이때에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제3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국제적으로는 힘이 약하더라도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국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위상을 갖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세력전어로 인해 도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도전하는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적극적 대응(중국 봉쇄 또는 예방적 무력개입)을 한다면 힘의 구도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때 한국의 국력은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된 국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구도가 변할 수도 있다<sup>218)</sup>.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한미동맹에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위 ‘균형자 역할’은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굳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한 이 시기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되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19)</sup>.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한 무리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후에라도 우리는

---

적 민주제도 하에서의 사회적 통합수준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국내외적 도전과 안정속에서 당분간 패권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8) 필자는 당연히 역학구도에서 패권국인 미국을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19)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취한 전략은 ‘도광양희 유소작위(有所作爲 韜光養晦)’다. ‘제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해야 할 것은 한다’는 뜻이다.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미국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피하고 국력의 소모를 억제한다는 실리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전략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덩샤오핑 시대의 대외전략인 도광양희를 대신해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롭게 우뚝 일어난다)’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경제력과 국력에 부합하는 대국으로의 부상과 국제사회와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중국도 ‘굽히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국익을 당당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틀 내에서 원활한 한미군사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안보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취약점이 해군력과 공군력이라 한다면 한국의 지상군과 미국의 공해군의 결합은 최상의 동맹군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을 통해 군사적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일전쟁이다. 러일전쟁 당시 영일동맹의 군사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상군과 영국 해군력의 결합이었다. 비록 영국과 일본이 영일동맹이라는 큰 틀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각국은 스스로의 군사적 취약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국은 만주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지상군이 부족한 반면에 일본은 러시아 해군력을 압박할 수 있는 영국의 해군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동맹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동맹의 틀에서만 너무 안주하다 보면 강대국의 정책에 편입되어 국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주적인 국방력을 건설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특히 해군력은 전시 운용뿐만 아닌平時 운용에 있어서도 전쟁억제, 해군외교,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질서 유지, 그리고 국위선양 등의 대외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중요한 국력의 일부임이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혹은 패권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구상에 오직 미국만이 대양 너머에 있는 대륙의 적대국가에 대항하여 수십만 단위의 군사력을 상륙시키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이 지구상의 여러 강대국 중 오직 미국만이 ‘세계의 바다와 해양교통로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해양통제권(Control of the Sea)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220)</sup>. 이러한 미국의 능력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미국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미국의 해군력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상황에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변화될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고려할 경우 미국과의 편승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안보 협력 체제의 구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sup>221)</sup>.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러일전쟁을 재조명해 본 결과 언은 교훈이므로 다시 부연설명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제관계의 본질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익<sup>222)</sup>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익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가 재정립된다는 것인데, 러일전쟁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전쟁 종결의 중재자로 나섰는데 1905년 7월의 카스라-태프트 조약에 의해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일본은 조선에서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한반도병합을 보장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최대 관심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한반도 병합은 강대국들의 국익추구를 위한 하나의 조치였을 뿐

220) 이춘근, “美國 海軍力 發達의 歷史的 軌跡,” 『미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18회 학술제미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p. 66.

221) 황병무 외, 전계서, p. 50.

222)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한 국가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이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치추구를 했을 때, 스스로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다. 결국 러시아의 침략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경계는 소홀히 함으로써 그 후 일본이 최대의 평화교란세력으로 등장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sup>223)</sup>.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건설해야 하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동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때에는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호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시공간에서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함으로써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공고한 한미동맹의 틀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려 주변국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한편, 어느 일방과의 지속적인 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타방에 의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특히 강대국의 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에서 그 역학구도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방위 협력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3. 동맹을 고려한 해군력 건설

그렇다면, 한국의 해군력은 어떤 수준에 있으며 어떤 전력을 구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이 미국에 사활적인 이익(Vital interest)이 있는 것으로 판

---

223)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2), p. 248.

단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둔을 바라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를 근거로 해·공군력 위주의 첨단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군사 대국화하고 있다. 중국은 병력은 감축하고 있으나 성장하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군사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국익차원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첨단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의 복원 및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주변국의 지역패권 추구 경향의 군사력 건설은 21세기 경제활동의 주 무대인 해양에서의 갈등과 양상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강대국 세력 감퇴에 따른 자국안보 증대와 영향력 확대 의도; 둘째, 대외무역 증대에 따른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방어 필요성의 증대; 셋째, 해양에 대한 군사 활동영역의 확대, 넷째, 해양 영토분쟁에의 대비 등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224)</sup>.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5-2>에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 해군력 현황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해군력은 전력지수 면에서 일본의 31%, 중국의 29%이고, 총톤수 면에서 일본의 40%, 중국의 39%이며, 전력가치 면에서 일본의 19%, 중국의 22% 정도로써 전력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도 취약한 수준<sup>225)</sup>을 보이고 있다. 외형적인 숫자로 볼 때 호위함급 이상의 수상전투함의 경우

---

224) 이서항, “동북아 해양안보 강화 협력 방안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03-10』 (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03), pp. 22-24.

225) 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김병관 역, 『현대전의 실체』 (서울: 현실적 지성, 1999), pp. 760-761. 전투력의 가치는 각국의 함정별 전투가치(무기, 장비, 임무수행에 대한 양적, 질적 요소 고려) 산출 비교.

한·일·중 해군간 비율은 1:3.6:3.4, 척당 평균톤수는 1:1.95:1.35이고, 잠수함의 경우 1:2.7:10.2, 척당 평균톤수는 1:2.14:1.43이며, 해군항공기의 경우도 1:3.4:11.8의 비율로 매우 열세하다<sup>226)</sup>. 이러한 전력으로는 성분작전 능력, 장기 작전수행 능력, 그리고, 광역초계 능력이 제한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표 5-2>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 해군력 현황

단위: 척

구분	항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전투함	기뢰전함	상륙함	잠수함	기타 *지원함	계
미 국 (태평양)	6	13	24	15	2	23	35	71	189
일 본			4 (이지스)	49	31	8	16	38	146
중 국			21	42		50	69	528	710
러시아 (태평양)	-	1	5	2	8	4	9	87	116
북한				*430	30	260	70	*30	820
한국				*120	10	10	10	*20	170

출처: *Military Balance '04 ~ '05*, 『일본 방위백서 2004』, 『한국 국방백서 2004』 참조.

한국 해군은 ‘협력적 자주국방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군사 개혁적 차원에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며, 전략개념은 자주적 해양방위 보다는 방위의 실현가능성, 주변국의 경제력, 그리고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극적 해양방위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 대등한 대양해군 수준의 전력건설은 사실상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

226) 권태영,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전과 선택,”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비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p. 695.

는 수준, 평시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 해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해양강국이 전력건설을 위해 사용한 기준과 과거 해군 군축회의시 제시된 전력 수준, 전통적 3:1 군사법칙 등을 고려하여 전력 수준을 분류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전력수준 분류

전력 구분	전력 수준	비 고
제한된 해양통제권 행사전력	상대전력비 1.5이상	한국해군이 지향해야할 이상적 전력수준
자주적 예방 억제전력	상대전력비 1.0	자주전력
보복적 억제전력	상대전력비 0.9	공세전력
거부적 억제전력	상대전력비 0.8	현재지향하고 있는 전력수준
최소 해상방위전력	상대전력비 0.7	전쟁발발시 방위가능하나 억제에는 미흡
절대적 열세전력	상대전력비 0.33이하	적의 도발 초빙
외교적 예방억제 전력	(상대전력×2/3) - 제3국 지원해상전력	지원억제전력

출처: 정호섭, “21세기의 한국해군의 전략소고,” 『해양전략』, 제 38호 (해군대학, 1994), p. 15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억제전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잠정 침략국 전력 대비 70% 수준의 해군력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주변국과의 쌍무적·다자간 안보협력이 성사된다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sup>227)</sup>. 다만 한국은 주변강국과 경제력 면에서 군비경쟁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군력 건설과정에 있어 주변국을 자극한다면 불필요한 군비

227) 하태민, “해군목표 달성을 위한 해군력 발전방향,” 『해군대학 교관 연구보고서』 (대전: 해군대학, 2002), p. 30.



경쟁을 불러와 해군력건설의 목표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이 달성해야 할 장기 군사력 건설의 목표가 ‘방위충분성에 입각한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sup>228)</sup>이라고 볼 때, 한국해군도 ‘방위충분성’<sup>229)</sup>에 입각하여 억제전력 위주의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미 해군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해군전략의 현대적 유용성

20세기의 첫 현대적 전쟁이었던 러일전쟁시 해전은 전통적 해군전략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해군전략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해군은, 비록 통상과괴전의 효용성은 있었지만, 요새함대전략과 현존함대전략을 취함으로써 우세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대결전 전략을 추구한 일본에게 패배하였다. 여기에는 무기체계의 질적 우수성도 하나의 원인이었으나 그에 앞서 양국의 해군전략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러일전쟁 시 전쟁의 승패 여부는 어느 해군이 어떤 전략사상을 가지고 함대를 운용하여 전쟁에 적용하였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장 환경이 단순했던 러일전쟁 시기에는 그에 부합하는 전략

---

228) 차영구·황병무, “21세기 한국 국방의 방향,”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 오름, 2003), p. 682.

229) 방위충분성 전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주변국과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역학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한 군사력에 한국의 군사력을 합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을 능가할 수 있는 필수전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의 선택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는 전장 환경이 복잡한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해군전략이 현대전에서 어떻게 유용할 수 있으며, 변화된 전략적 환경에 적합한 해군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전시 해군력의 운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1. 해양통제 전략

### 가. 함대결전 전략

현대전에서도 함대결전이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답은 유용하다이다. 다만 전략과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라 전쟁양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제해권’의 개념이 ‘해양통제’와 ‘해양우세’의 개념으로 변천된 것처럼, 전장범위가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과 공중으로 확대되면서 함대결전의 개념도 변하게 된 것이다. 코르벳은 “결전이 일방적인 적의 격멸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함대결전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비록 함대결전이 적 함대를 완전히 격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고 적국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함대결전(Decisive Battle)이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러일전쟁이었다. 적극적인 공세로 제해권 확보를 주장한 마한의 함대결전 사상은 일본의 해군전략에 큰 영향을 미쳐 전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sup>230)</sup>.

그러나 이러한 마한의 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독일 해군이 현존함대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유틀란트해전을 제외하고는 주목할 만한 함대결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전의 주요 양상이 독일에 의한 통상파괴전과 연합군의 대잠전이었기 때

---

230) 이후 일본은 전함 위주의 해군력 건설에 주력하면서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를 탄생시켰다.

문이다. 그러나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복잡한 전장환경은 태평양과 동북아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과 미국간의 태평양전쟁은 함대결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

여기서 전장환경이 해군전략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넓고 단순한 전장환경에서 일어나는 양자간의 해전에서는 함대결전이 중요하며, 좁고 복잡한 전장환경에서 일어나는 해전은 현존함대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상대국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국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미래의 전장환경은, 현재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연안에서의 해군작전이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핵무기와 막강한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의 출현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 약소국들도 마찬가지로 초강대국인 미국에 함대결전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연안중심의 작전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해군전략은 강대국의 경우에는 함대결전 전략이, 약소국에게는 현존함대전략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약소국이 변화되는 전장환경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응성은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미래의 함대결전 양상은 어떻게 변하며 변화될 양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미래의 함대결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sup>231)</sup>. 첫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휘통제 능력의 구비이다. 둘째, 정밀유도무기 및 항공전력 기반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셋째, 플랫폼 생존성을 기반으로 한 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실로 네트워크화는 정보의 공유능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입수된 정보가 선별되어 신속한 지휘결심이 가능해지면서 정밀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sup>232)</sup>, 현대전에서는 생명

231) 정호섭·이상갑, “함대결전과 해군의 전쟁수행방식,”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pp. 2-37을 요약함.

232) 2003년 4월 7일 바그다드 시내에 후세인이 자식 2명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식사하고

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정보전을 기초로 하는 미래전에서는 누가 먼저 원거리에서 적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밀유도무기가 플랫폼의 발전을 능가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자가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과거와는 달리 플랫폼의 유기적 분산을 통해 보다 넓은 해양전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서도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전투력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 함대의 격멸이 핵심적 요소이다. 아울러 해양에서 자국의 의사를 적에게 강요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함으로써 해양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대결전 전략은 변함없이 유용하다.

#### 나. 현존함대전략과 통상파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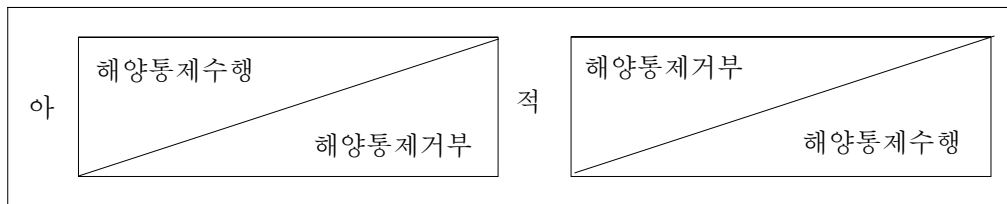
현존함대란 ‘해양통제’보다는 ‘해양거부’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것은 작전수행과 무기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파악되는 속성이다<sup>233)</sup>. 첫째, 작전수행 측면에서 볼 때, 현존함대란 최강의 함대처럼 제해권을 점유하고자 함대결전을 열렬히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전투에 의한 결전을 회피하면서 우세한 적 함대나 적 해안에 대해 집요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해상에서 우세한 적의 일방적인 제해를 거부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세 이전의 계기가 조성될 때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방어태세를 견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무기체계 측면에서 볼 때, 항모전투단과 수상전투단보다는 은밀성과 기습의 특성이 있는 잠수함과 유도탄, 고속정, 어뢰정 등을 중심으로 운용하므로 해양거부에 가까운 전략개념이다.

---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B-1B에 의한 정밀폭격이 이루어진 시간은 불과 12분이었다.  
233) 정삼만, “현존함대의 개념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pp. 3-16.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해상에서 완전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적어도 해양통제 또는 해양우세를 점할 수 있는-절대강국이 아닌 다음에는 해군력 건설의 제한상 이러한 개념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국가가 해양거부만을 위한 현존함대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보다 더 약소국에 대해서는 해양통제전략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해양통제와 해양거부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터너 제독은 이러한 개념을 <그림 5-1>와 같이 도해하였다.

<그림 5-1> 해양통제수행과 해양통제 거부와의 상관관계도



출처: Standsfield Tuner, "Missions of the U. 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April, 1974, p. 8.

터너(Standsfield Tuner)제독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국의 해양통제 수행능력은 적 해양통제수행에 대한 거부능력이 될 수 있으며, 자국의 해양통제 수행에 대한 거부능력은 곧 적의 해양통제 수행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234)</sup>.

이러한 현존함대전략을 위해 유용한 수행전략이 러일전쟁시 블라디보스톡 전대와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이 채택한 통상파괴전이었다. 통상파괴전은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우세한 세력이 추구하는 제해권 확보 노력에 대해 열세한 세력이 효과적으로 해상거부를 수행하는 한 방법으로 이

234) Standsfield Tuner, "Missions of the U. 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April, 1974, p. 8.

해될 수 있다<sup>235)</sup>.

러일전쟁시 블라디보스톡 전대는 공세적인 통상과괴전을 통해 충분한 전략적·작전적 가치를 발휘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전대의 통상과괴전에 대한 개념·예측·대비 등의 전비태세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육상 및 해상의 작전수행에 있어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그러나 해전에서는 적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주어야만 전쟁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상함으로만 구성된 함대 대 함대 전투에서는 통상과괴전과 같은 비대칭적 성격이 강한 전략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실효적이지만 적의 주력함대가 존재하는 한 함대결전 없이는 제해권 확보가 불가능했다.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티피츠(Tirpitz)가 영국의 ‘2개국 표준주의’(Two Power Standards)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이론’(Risk Theory)을 내세웠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다른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영국과 주력함대간의 결전을 피하면서 전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존함대전략을 모색하였고 대안적 전략으로써 잠수함에 의한 통상과괴전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과괴전은 가장 약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존함대전략은 통상과괴전이라는 전쟁수행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억제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련은 적과 첫 핵 교환시에 생존성이 우수한 전략핵잠수함의 일부 사용을 유보하여 적의 공격을 억제시킴은 물론, 전쟁중이나 전쟁 후 평화협상 시 유리한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보류전략(Withholding Strategy)을 채택했으며, 또한 해양요새를 구상하여 바렌츠해나 오호츠크해를 적의 어떠한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잠수함의 성역으로 만들었다. 그 곳에서 미 본토 전역에 도달 가능한 SLBM을 장착한 델타-III, IV급 SSBN과 타이푼급 SSBN을 가장 신뢰성이 높고 억제효과를 확실하게 발휘할

---

235) 코르벳은 통상과괴전과 통상보호전을 근본적인 해전 수행의 목표로 인식하고 적이 결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통상과괴전으로 결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 있는 현존함대로 운용하였다<sup>236)</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존함대전략은 오늘날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외교적 이용을 제한하여, 해양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함은 물론, 해상현시에 의한 위기관리, 억제, 해양에서의 제한전쟁 수행 등에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개념은 강대국가, 중급국가, 그리고 약소국간의 상대적인 개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략개념으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 2. 군사력투사 전략

### 가. 군사력 투사

러일전쟁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작전들 중의 하나는 육해합동작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뤼순항 점령과 지상군 상륙작전이다. 특히 일본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지상군의 안전한 상륙을 보장하여 지상군이 연전연승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해양통제권 확보와 군사력 투사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 투사 작전의 성공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 군사력 투사는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을 일컬어 왔으나, 1970년대 미 해군의 임무가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해군력을 육상에 투사할 수 있는 모든 형태 즉, 상륙작전, 해상화력지원, 전술항공지원 등의 작전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군사력 투사는 상륙작전 교리가 정립되기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시와 그 이후부터 해군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왔고, 그 전략적 가치도 또한 증가되어 왔다.

상륙작전은 군사력 투사의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로 해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적의 통제하에 있는 해안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오늘

---

236) 정삼만, “현존함대의 개념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pp. 34-35.

날에도 그 유용성은 변함이 없다.

탈냉전 이후 군사력 투사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해군의 대지타격능력의 획기적인 증대<sup>237)</sup>, 둘째 적 중심에 대한 공격을 지향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쟁양상의 변화, 셋째 해양에서의 미국의 독보적인 존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밀유도탄 및 전술항공기 등 해군의 대지타격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장기 소모전으로 빠져들 수 있는 지상전보다는 개전 초 적 전투력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해병대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조기 종전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해군 군사력 투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력 투사의 개념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 해군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다른 국가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무기체계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해군도 장거리 대지타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접근적 전투수행이 일반화되어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군사력 투사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셋째 잠수함의 은밀성, 수상함의 기동성과 결합된 대지타격능력은 전쟁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나. 대군사력투사

개전 초 러시아는 최초의 계획과는 달리 일본 지상군의 운송 및 제물포 상륙을 너무 쉽게 허용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이는 패배로 연결되었다. 물론 블라디보스톡 전대의 통상과괴전으로 후속군수지원 세력과 상륙군을 격파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처럼 해양에서 미리 적을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과 해상에서 조우시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

---

237) 오늘날 수상함과 잠수함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은 1,000마일이나 떨어진 육상목표물에 대해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전략과 작전을 구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해상으로부터 침공하는 적 세력은 전투함대와 원정군을 수송하는 수송선단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군의 지상에 있으므로 원정군을 상륙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때 우리 함대의 주요 공격 목표는 적의 호송부대가 아닌 수송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sup>238)</sup>.

이러한 맥락에서 포클랜드 전쟁시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상륙군 수송함을 공격하지 않고 전투함공격에 집중함으로써 영국의 포클랜드 상륙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기습상륙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를 호송하는 전투함보다 LCP 등의 상륙정 공격에 일차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함을 뜻한다<sup>239)</sup>. 만약에 일단 적이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그들의 거점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적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작전을 방해하고 후속 군수지원 작전을 불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적이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 해군간 해상에서의 조우시에는 결전을 통해 해양통제권을 장악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불가하여 적이 전투세력과 상륙세력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침공한다면 적의 중심 마비작전을 구사해야 하며, 이것도 실패하여 적이 상륙한다면 해상교통로를 차단하여 해양거부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지속적인 침공을 막아야 한다.

### 3. 한국 해군전략의 선택

러일전쟁의 해전은 제해권 확보를 위해 공세적인 함대결전 전략이 수세적인

---

238) J.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18), p. 256.

239)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p. 35.

현존함대전략이나 요새함대전략보다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었다. 더구나 휘순함대는 함대결전의 상황에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수세 전략을 취함으로써 패배하게 되었다. 반면 블라디보스톡 전대의 통상파괴전은, 비록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후속작전을 교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공세전략의 효용성이다.

남북한은 안보환경이 달라 해양 전략 면에서 비대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륙국가의 해양전략은 해양거부사상에 근거하여 고속정과 잠수함 세력으로 발전시키며 해양국은 전통적인 해양통제 사상에 따라 항모전투단과 수상전투단 위주로 함대를 건설하고 운용한다<sup>240</sup>). 한국과 북한의 해군전략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인 구소련과 중국의 해양전략사상에 영향을 받은 북한은 해양거부전략 사상에 기초하여 해양거부형의 해군력을 발전시켜왔다. 현재에도 소형의 고속유도탄정과 특작부대 침투를 위한 공기부양정 등 연안방어 및 공격형 비대칭적 무기체계 위주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해양국가인 미국의 해양전략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한국은 완전한 해양통제전략은 아닐지라도 전략 자체는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양통제형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중대형함 위주의 전투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대결전 전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해양안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해야 하고 주변국과는 해군력 열세를 고려하여 평시에는 현존함대전략 개념을 구사하고 전시에는 함대결전과 비대칭전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이러한 비대칭전은 주로 잠수함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목표는 적 주력과 병참선이 될 것이므로 통상파괴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240) Stansfield Tuner, "The Naval Balance: Not Just a Numbers Game," *Foreign Affairs* (Jan., 1977), p. 347.

한국은 해군력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력을 고려할 때 주변국에 비해 우세한 수준의 해군력 건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한국해군에 비해 비대칭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해군의 대형함 위주의 전력과 대간첩작전 위주의 전력은 전시에 그 효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변화된 우리의 해양안보환경에서는 함대결전사상 보다는 오히려 현존함대 전략(주변국 대비 70%의 전력 유지 필요)과 통상파괴전과 같은 비대칭전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적국을 억제할 수 있는 대형함 위주의 해군력 건설과 북한뿐만 아니라 해군력이 우세한 강대국과 대결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제 6 장 결 론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국력을 결집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승전국으로서 당시 유럽 열강들이 주도하던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 러일전쟁은 일본의 팽창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충돌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러일전쟁의 종결을 위한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비록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쓰시마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에 의해 러시아 발틱함대가 괴멸됨으로써 일본은 전승국으로서의 대우를 주장할 수 있었고 열강들도 사실상 일본을 승전국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의 소국의 지위를 탈피하여 열강 대열에 합류하면서 적극적인 식민지 제국건설을 위한 팽창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러시아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세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연합함대가 발틱함대를 전멸시킴으로써 일본이 승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군사적 역량과 정부의 외교력 그리고 국민의 대내적 단합과 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강화조약을 위한 러일간 회담이 진행될 당시의 지상 전투 상황을 보면 양국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일본이 만주에서 러시아군을 격퇴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본국으로부터 만주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의 흐름을 변화시킨 것은 해전상황이었다. 러시아의 발틱함대는 일본 연합함대를 격파함으로써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여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희망과는 반대로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쓰시마 해전에서 괴멸시키고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전의 승리가 전쟁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러일전쟁의 승패에 있어 해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전에 앞서 일본은 지상군의 능력은 갖추었으나 해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키웠다. 일본은 주로 영일동맹을 통해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또 이 동맹을 통해 러시아 해군력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간섭과 견제를 구사할 수가 있었다.

일본은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경쟁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국제정치 및 군사 전략적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열세한 전력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해군은 기습공격을 통해 전쟁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지상군이 안전하게 인천과 만주에 상륙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이 만주에서 러시아 지상군을 격파하면서 북진을 계속했고 묵텐전투에서도 승리를 했으나,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으며 러시아도 혁명의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내적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단 한번의 결정적인 승리가 러시아의 국내 소요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만약 발틱함대가 해전에서 승리한다면 해상통제권을 장악할 수가 있고, 일본의 후방 보급 및 지원작전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통해 일본 지상군을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하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해전승리를 통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내적 안정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발틱함대에 러시아 제국운명을 맡긴 것이었다. 그러나 해전의 결과는 일본 연합함대의 승리로 돌아갔고,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통해 사실상의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였다.

전쟁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왈츠의 시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framework)을 제시해준다.

본 논문은 왈츠의 3 이미지(Images)를 사용하여 러일전쟁에서 해군력의 역할을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력이라는 특정분야를 하기 때문에 왈츠의 방법론을 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즉 해군력에서의 개인적 역할, 국가적 수준에서의 해군력 운용,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해군외교라는 시각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러일전쟁시 해군력의 역할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분석되고 도출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 관한 분석이다.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것처럼, 전쟁에서 정부와 군대, 그리고 국민의 삼위일체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의 삼위일체이론은 러일전쟁에서도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도 결국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었던 일본은 열세한 해군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러시아는 우세한 해군력을 보유했음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국가적 수준에서의 해군력 운용에 관한 분석이다. 일본 해군은 해양통제권 확보라는 분명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해군력을 운용함으로써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의 교통선을 혼란시킨 블라디보스톡 전대의 공세적 활약을 제외한다면, 러시아 해군은 그들이 추구해온 남진정책에 필요한 해양통제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세적인 현존함대전략과 요새함대전략을 고수함으로써 우세한 해군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해군외교에 관한 분석이다. 일본은 열세한 해군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일동맹을 통해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뤼순함대와 발틱함대를 하나씩 차례로 격파하여 러일전쟁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일본이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개전을 결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일동맹이 있었다. 또 영국과 유

럽 국가들로부터 전쟁자금 동원 및 해군력 건설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도 바로 영일동맹이었다. 또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도 영일동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대국인 영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았던 일본의 외교력은 수준높은 것이었다. 아울러 전쟁의 종결과정에서도 미국과의 준동맹 관계는 결정적 시기에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3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영일동맹은 일본의 해군력 증강뿐만 아니라 해군력에 의한 선제 기습공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전쟁발발은 물론, 해상통제권 확보와 나아가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동맹이란 평시의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전시의 결정적 승리도 보장해준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주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주변국과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열세를 자력으로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일동맹에서 영국의 해군력이 일본 해군력의 증강과 활동에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적극적인 해군외교를 통해 우리의 해군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의 평균 해군력 대비 최소 70% 정도를 유지한다면 바다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전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에서의 전진방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시 영일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미일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적인 번영을 달성해 온

바, 이러한 편승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자국의 힘만으로 안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그 수단은 바로 동맹관계이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보유국가임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전쟁억제와 유사시의 한국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주국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한미동맹에서 메우는 것이 현명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동맹에서 최상의 정책, 즉 상지상책(上之上策)은 세계 최강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며, 하지하책(下之下策)은 기존의 가장 강한 동맹국과 동맹관계를 훼손시키는 정책이다. 한국은 여전히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주변국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편승과 이용의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 해군전략의 현대적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러일전쟁의 해전은 기존의 거의 모든 해군전략이 적용된 사례였는데, 당시에 유용했던 해군전략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해군의 목표가 ‘해양통제권의 확보’라고 한다면, 현대전과 미래전에서는 무기체계 변화에 따른 전쟁양상만 변화될 뿐 함대결전은 여전히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군전략의 일부이다. 그러나 함대결전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한 국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약소한 국가로서는 제한이 따른다. 상대적인 열세국가는 여전히 해양거부형 전략인 현존함대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함대결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적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기뢰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뤼순항 봉쇄와 이에 대한 공



방전에서 당시 러시아의 유능한 해군지휘관이었던 마가로프 사령관과 전함을 잃었고 일본도 전력의 33%에 해당하는 전함 2척을 기뢰로 인해 순식간에 잃었다. 이후부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기뢰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지휘부를 포함한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과 의지에 관한 것이다. 군 지휘부는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지휘관과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용병술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의 로제스트벤스키를 포함한 해군 지휘관들은 전투 경험과 야전 근무 경험이 부족하였다. 또한 필사즉생의 정신력도 부재하였지만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나 전쟁 목표 등의 전쟁 경영능력이 일본의 해군지휘관들과 비교하여 열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해군은 영국에서 군제, 조직, 제도, 전략, 전술과 함정 무기체계, 그리고 해군 병학교 및 해군대학을 도입하여 원양 항해실습 등의 교육훈련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러시아에 비해 보다 유리한 전쟁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명치유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 대등한 해군력과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문호개방을 거부했던 고종과 대원군 등의 쇄국정책과 리더십 때문에 결국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을 경험하였다. 반면 일본은 군 지휘부는 물론 국가 지도부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열정, 그리고 의지를 바탕으로 문호개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단이 문호개방을 요구한 도쿄만 시위로부터 개방을 받아들여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까지 불과 40여년 만에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특히, 전쟁 지휘관은 전쟁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원균의 리더십이 대비되고 있다. 지휘관은 충무공 이순신과 같이 유능하고 필사즉생과 멸사봉공의 신념을 갖추고 인재양성을 위해 발전적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고 정보교환과 전략전술 등의 전기를 연마하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득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제 2차 세계 대전시 독일은 수백척의 잠수함을 계속 건조하였으나 이를 운용·관리할 인재 양성이 충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군사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다.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수준은 정부가 결정하며 판단할 사항이다. 기업에서 마치 상품 개발과정에서 소비자의 기호나 구매력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는 기본적으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러일전쟁을 앞두고 일본 해군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가상 위협세력으로 예상하여 함정 척수와 톤수 등의 해군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두 단계에 걸쳐 10년만에 세계 제 4위의 해군력을 건설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의 남진정책을 고려하여 함정 건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일본 해군과 비교할 때 열세한 전투력과 무장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한 감시·정찰과 초정밀 타격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확대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전쟁 양상의 변화와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태세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과학적 경영기법을 통해 병력수준과 예산 편성 등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급속한 근대화과 국력 증대를 이루었고 러일전쟁을 계기로 동북아 질서에서의 세력전을 달성했으나 한국은 국권상실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생존의 토대 위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지속적인 자주국방 노력, 그리고 효율적 국방경영을 위한 인재양성에 정책 추진의 우선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들 다 잃는 것처럼 안보를 잃으면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은 전쟁의 원인과 수행, 관리론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면서 해군력이 러일전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전쟁의 당사국 가운데 일본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러시아측 자료는 문헌 확보 및 언어상의 문제점 때문에 몇 안되는 번역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쟁원인과 수행,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헌이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어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러일전쟁 관련 문헌 가운데 전쟁 원인론 및 관리론과 관련한 문헌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다. 이는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 및 시각으로 분석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전쟁수행론의 경우, 군사전략이라는 특수한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국내에서도 러일전쟁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 따른 분석 및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국가전략 수행에 필요한 교훈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단행본

#### 가. 국문

-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강영오. 『해양전략론: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_\_\_\_\_. 『한반도 해상전략론』. 서울: 병학사, 1988.
- 강진석. 『전략의 철학』. 서울: 평단문화사, 1996.
- 김경창. 『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2.
- 김기정. “20세기초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정과 구조변동: 만주위기와 영일동맹의 형성.” 『연세 행정논총』. 제23집, 1998.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김우상. “세력전이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2001.
-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해군본부, 1995.
-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92.
- 김충암. 『영일 군사외교』. 서울: 계몽사, 1986.
-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권태영.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전과 선택.”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비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 문희수. “국제관계에 있어서 청·일전쟁(1894-1895)에 관한 지도와 통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1호, 2002.
- 박경현 편. 『현대 군사전략 개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5.

- 박한규. “메이지(明治維新) 유신 이래 일본 외교이념의 흐름(1868-1945).” 『국가 전략』. 제10권 1호, 2004.
-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 박호섭. 『해양전략의 이론과 실제』. 대전: 해군대학, 2004.
-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2.
- 신상용. “英日同盟과 日本의 韓國 侵略.” 『日露戰爭 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역사학회 편. 서울: 일조각, 1986.
-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관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러일전쟁과 한반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이기탁. 『國際政治史』. 서울: 일신사, 1993.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1991.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서울: 일신사, 1993.
- 윤종욱. 『전쟁원인론으로 본 이라크전』. 서울: 국방참모대학, 2004.
- 윤형호. 『전략론』. 서울: 도서출판 한원, 1994.
-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1994.
- 정삼만. “현존함대의 개념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이론의 한국 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 정호섭·이상갑. “함대결전과 해군의 전쟁수행방식.”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대전: 해군대학, 2004.
- 정토용. 『한 권으로 보는 20세기 결전 30장면』.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7.
- 차영구·황병무. “21세기 한국 국방의 방향.”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03.

- 최문형.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서울: 지식산업사, 2004.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 한상일. 『日本軍國主義의 형성과정』. 서울: 한길사, 1982.
- 해군대학. 『露·日戰爭』. 대전: 해군인쇄창, 1993.
- \_\_\_\_\_ . 『세계해전사』. 대전: 해군인쇄창, 1998.
- \_\_\_\_\_ . 『해군력』. 대전: 해군대학, 1988.
- 해군본부.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대전: 해군본부, 2001.
- \_\_\_\_\_ . 『해군기본교리』. 대전: 해군본부, 2002.
- \_\_\_\_\_ . 『도고헤이 하치로』. 해군본부, 1998.
-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대전: 해군본부, 2004.
- 홍호균. 『전쟁원인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4.
- 황병무 외. 『2006~2020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 나. 번역서

- 가토 요코(加藤陽子). 『근대일본의 전쟁논리』. 박영준 옮김. 서울: 태학사, 2003.
- 등원창(藤原彰). 『일본군사사』. 엄수현 옮김.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 로스뿌노프 외 전사연구소편. 『러일전쟁사』. 김종헌 역. 서울: 건국대학교, 2004.
- 비즐리, W. C. 『일본 근현대사』. 장인성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이성환 역. 『일본의 외교』. 서울: 푸른산, 1993.
- 트레버 드퓨이. 『전쟁의 이론과 해석』. 주은식 역. 서울: 한원, 1994.
- 후지와라 아키라(藤原 彰). 『日本軍事史』. 엄수현 역.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 Kegley, Charles W. JR. and Wittkope, Eugene R.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85. 김철범 역. 서울: 법문사, 1989.
-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Hill and Wang, 1957. 해군본부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해군본부, 1987.
- \_\_\_\_\_.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al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 이윤희 · 김득주 공역. 『해군전략론』. 서울: 동원사, 1974.
- Till, Geoffrey.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해군본부 역. 『해양전략과 핵시대』. 대전: 해군대학, 1984.
- Stevena, William O. & Westcott, Allan. *A History of Sea Power*.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서울: 연경문화사, 1979.
- Dunnigan, James F. *How To Make War*. 김병관 역. 『현대전의 실체』. 서울: 현실적 지성, 1999.
- Plesschakov, Constantine. *The Tsar's Last Fleet*. 표완수 · 황의방 역. 서울: 도서출판사 중심, 2003.
- Evans, David C. & Peattie, Mark R.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상)』. 김태준 역. 서울: 국방대, 2001.
- \_\_\_\_\_. 『일본제국 해군의 발전사(하)』. 김태준 역. 서울: 국방대, 2003.

#### 다. 영문

- Beasley, W. G. *The Modern History of Japan*.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62.

- Berkowitz, Leonard.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 Hill, 1962.
- Booth, Ken.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rane Russack & Co. Inc., 1977.
- Brandenburg, Erich. *From Bismarck of the World Power: A History of German Foreign Policy, 1870-1914*. trans by Annie Elizabeth Adams, Oxford: Oxford Univ. Press, 1933.
- Brodie, Bernard. *War an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1973.
- Campbell, N. J. M. "The Battle of Tsu-Shima." *Parts 1-4. Warship 2*. 1978.
-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 Vom Krie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_\_\_\_\_. *On War*. 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ret.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Conroy, Hilary.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 Corbett, Julian S.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8.
- \_\_\_\_\_.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18.
- Denett, Tyler. *Rosevelt and Russo-Japanese War*. New York: Alfred A. Knopf, 1925.
- Department of the Navy, *NWP10(A) Naval Warfare*.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the Navy, 1961.
- Gond, George. *Admiral Dogo*. trans. by Edward Hyams. New York:



- Macmillan, 1960.
- Gorge, Gond. *Admiral Togo*. Trans. Edward Hyams. New York: Macmillan, 1960.
- Gorshkov, Sergei G. *The Sea Power of the State*. Annapolis: Naval Institute, 1979.
- Holsti, K. J. *The Diving Discipline*. Winchester, Mass: Allen and Unwin, 1985.
- Howard, C. H. D. "The Policy of Isolation." *Historical Journal*. Vol. 1. 10. No. 1, 1967.
- Huntington, Samuel.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Mar/Apr 1999).
- Kennan, George F. *The Fateful Alli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84.
- Kennedy, Paul M.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4-1914*. Boston: George Allen & Unwin, 1980.
- Ker, George. "Kodama Report: Plan for Conquest." *Far Eastern Survey*. Vol. 14, July 18, 1945.
- Langer, William.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in Carl E. Schorske and Elizabeth Schorske, eds., *Explanations in Crisis*.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Lijphart, Are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great debates and lesser deb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XXVI, No. 1, 1974.
- Lockwood, Willam W.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Growth and*

- Structural Changes 1868-1938*.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 Press, 1954.
-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Hilland Wang, 1957.
-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 Monger, George. *The End of Isolation*.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3.
- Moulder, Frances. *Japan and China and the Morden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 Nish, Ian.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Longman, 1985.
- \_\_\_\_\_. "Japanese Intelligence and the Approach of the Russo-Japanese War." in Christopher Andrew and Dabid Dilks. Ed. *The Missing Dimension*. London: Macmillan, 1984.
- Porter, Bernard. *The Lion's Share*. London: Longman, 1975.
- Royal Navy, Command of Defence Council, British Maritime Doctrine, 2nd Edition,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1999
- Steinberg, Jonathan. "Germany and the Russo-Japanese Wa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7, No. 7, December 1970.
- Steward, John P. & Lykke, Arthur F.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 S. Army War Colledge, 1982.
- Tardieu, Andre. *France and the Alliances: The Struggle for the Balance of Power*, New York: Mcmillan, 1908.
- Till, Geoffrey.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Macmillan

- Press, 1984.
- Tuner, Standsfield. "Missions of the U. S. Navy." *Naval War Colledge Review*. March-April, 1974.
- \_\_\_\_\_. "The Naval Balance: Not Just a Numbers Game," *Foreign Affairs*, 1977.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9.
- \_\_\_\_\_.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3(Summer 1964).
- White, John Albert.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Westwood, J. N. *The Illustrated History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Sidgwick & Jackson, 1973.
- \_\_\_\_\_. *Witnesses of Tsushima*. Tokyo: Sophia University Press, 1970.

#### 라. 日語

- 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史研究-朝鮮植民地化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2001.
- 藤村. "對鮮政策 轉換." 『日露戰爭の研究』. 信夫清三郎 中山治一 編.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 古層哲夫. 『日露戰爭』. 東京: 中央公論社, 昭和 53年.
- 鹿島守之助. 『帝國外交 の 基本政策』. 東京: 岩松堂書店, 1940.
- 外交時報社. 『支那 關係條約彙 』. 東京: 外交時報社, 1930.

- 黒野 耐. 『大日本帝國の生存戰略』. (東京: 講談社, 2004.)
-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亞海戰事』. (東京: 原書房, 1974.)
- 參謀本部. 『明治三十年・八年 日・露 戰事』 (東京: 嚴南堂書店, 1977)
- Kazutoshi Hando, "Russian Vladivostok Fleet in the Russo-Japanese War," 世界の艦船, 349, (東京: 海人社, 1985)
-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 第7券: 日露戰爭』 (鹿島研究所出版會, 1970)
-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 第4券』 (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70)
-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下)』, (東京: 原書房, 1979)
- 植田捷雄, 『東洋外交史(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9)

## 2. 논문 및 정기간행물

### 가. 국문

- 김열수. "전쟁원인론: 연구동향과 평가." 『교수논총』. 제38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4.
- 김영태·서희택. "러시아 해군사 연구; 해군력 건설 및 발전과정 중심." 해군대학 연구논문, 2001.
- 김태준. "해전사를 통해 본 고급리더십." 제정관 외. 『고급리더십』.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6호.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 \_\_\_\_\_. "쓰시마 해전 승패에 대한 분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軍事史研究叢書』. 제4판, 2004.
- \_\_\_\_\_.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군사』. 제54호, 2005.
- \_\_\_\_\_. "세력전이 관점에서 본 러일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

- 126호, 해군대학, 2005.
- \_\_\_\_\_. “러일전쟁의 성격과 전쟁수행방식,”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제2집, 동아시아문화학회, 2005
- 김태환. “해전사를 통해 본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과 잠수함 운용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2.
- 김현일. 『해양력과 동북아시아의 전쟁발생: 1860~1993』.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양전략연구부 편.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해군력의 전시 사용』. 제1회 해양전략 심포지움. 대전: 해군대학, 2004.
- 소상섭. “걸프전쟁에 관한 연구: 발발원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1995.
- 오유성. “동북아시아 지역국제체제 변동 연구: 역외·역내세력간 세력전이를 중심으로(1842~1992).”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 이서향. “동북아 해양안보 강화 협력 방안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03-10』. 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03.
- 이춘근. “미국 해군력 발달의 역사적 궤적.” 『미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18회 학술제미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 임인수. 『해양우세가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국방대학원, 1987.
- \_\_\_\_\_. “해양전략의 기본개념 연구.” 『해양전략』. 제88호, 1995.
- 정호섭. “21세기의 한국해군의 전략소고.” 『해양전략』. 제38호. 해군대학, 1994.
-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 학보』. 한국시베리아학회. 창간호, 1999.

하성한. “러일전쟁시 일본군의 합동작전 전례연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 연구 보고서, 2000.

하태민. “해군목표 달성을 위한 해군력 발전방향.” 『해군대학 교관 연구보고서』. 대전: 해군대학, 2002.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한용섭. “동태적 분석 모델을 활용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분석 및 대책.” 『한국의 군사력건설과 전략』. 안보연구 시리즈. 제3집 4호. 서울: 국방대학교, 2002.

『일본 방위백서 2004』

『한국 국방백서 2004』

Military Balance '04 ~ '05,

### 3. 기타

#### 가. 인터넷

[www.donga.com](http://www.donga.com), “[한국안보-자주국방의 현주소] 생화학무기에 속수무책,”  
(2003년 5월 21일)

[http://jsdworld.com/read.cgi?board=0\\_gb&y\\_number=26&nnew](http://jsdworld.com/read.cgi?board=0_gb&y_number=26&nnew)

<http://term.naver.com/item.php?dlid=7&docid=2073>